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MAY 17 1982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23 ~ 824 1982년 5월14일(금), 5월15일(토) Friday & Saturday, May 14, & May 15,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교황, 또 암살 모면·무사

신부복장의 자객 "폴란드사태 책임지라!"

총격사건 한돌날, 파티마에서

(파티마, 포르투갈=외신종합)요한·바오로2세가 교황저격사건 1년된날밤 11시쯤(현지시간) 칼로 무장한 신부복장의 한 청년의 공격을 모면했다.

반 교황 구호를 외치던 범인은 현장에서 경호원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국영 포르투갈 TV방송및 ANOP 통신이 보도했다.

교황은 64년전 바로 이날 성모마리아가 파티마 마을에서 농가의 아이들 3명(2소녀, 1소년)에 발현(현신)했다고 전해진데서 지어진 파티마 성모(Our Lady of Maria)성당에서 기념미사를 드리기 위해 이곳을 방문중이었다.

피습 수분전 교황은 백만 신도들이 운집한 가운데 촛불미사에서 작년 5월13일 저격범의 총탄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데 대해 파티마 성모에 감사했었다.

교황은 작년 같은 날 성·베드로 광장에서 한 터키인의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가 회복했다.

교황이 이날 성전에 들어설 때 한 신부가 계단을 헛디디어 군중들의 소란이 있자, 멈추어 신부를 부축해서 일으키는 순간, 곁의 한 신부가 "교황을 보호 엎드려라"하는 소리가 났다.

다음 순간 바티칸 경호원들이 칼을 들고 돌격하던 범인의 팔을 비틀고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신부복차림의 범인은 "교황은 폴랜드 사태와 전세계 공산주의에 책임을 지라"고 외쳐댔다.

그러나 교황은 돌아서서 범인에 접근, 묵도로 축복을 주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포르투갈 통신은 범인이 20대의 스페인 사람으로 무기는 총검, 혹은 단도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교황은 사건후 미사집전을 계속, 촛불을 든 군중들은 "교황만세"를 외쳤다.

요한·바오로2세는 이날 완벽한 포르투갈말로 "오랫동안 파티마성당을 방문하고 싶었다…작년 암살사건후 의식을 회복했을 때 내 생각은 나를 지켜주신 파티마 성모의 성당으로 달려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황과 함께 엎드려라" : 바티칸 경호원들이 신부복장에 칼을 든 범인을 덮쳤다. 위쪽 원내가 사거직전의 범인. 오른쪽 원내는 교황.

◆포르투칼경찰이 범인을 성당밖으로 끌어내고 있다.

社 告

자료제공자 속출

이민사자료연구실

본사는 지난 4월5일 「한인이민사연구실」을 설치, 캐나다 전국에 걸쳐 각종 이민사 자료 수집을 펼치고 있다.(본보 4월7일자기사, 4월19일자 사설참조).

이에 호응, 지금까지 참고자료를 제공한 교포인사및 자료는 아래와 같다. 본 연구소는 이 소중한 자료들을 자료실 시설완비와 함께 분류, 저장하며 이민사 정립의 중요사료로 삼을 것이다.

제공자 제위께 전체교민의 이름으로 깊은 고마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많은 교포들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자료제공자

◉김정근씨-1)교포지 창간호 1람.
2)한인회보 79.4.1/79.7.1/79.8.1/79.10.1/80.2.15/80.3.15/82.1.1/82.3.1/82.4.1
3)POLYPHONY(온타리오 복합문화사) 77년(창간호), 78년 여름호, 79년 겨울호, 79~80년호, 81년 겨울호 81년 제2호
4)Catalogue of Publications in Print 1981
5)Mennonite Studies in North America, The State of the Are (6.10~12.'82)

◉전택균씨-1)전택보씨의 캐나다정부와 이민교섭왕복서신
2)전택보 문집
3)전택보 전기
4)토론토지구 한인주소록 (1971)

◉이훈모씨-1)The Ukrainian Canadians History

◉캐나다한국문인협회-1)제1합작집 「새울」
2)제2합작집 「이민문학」
3)제3합작집 「이민도시」
4)문학의 밤 프로그램.

◇자료보낼곳

The Korea Immgration Resource Centre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Toronto, Ont. M6H 1Z7
Tel : 1-(416) 533-2361

한국일보사

프로축구 블리자드 對 몬트리얼·메닉
15일 8p.m. CNE
●입장권예매처
한국일보 : 533-2361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1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김복동 전육사교장 「광진공」사장 취임

(서울13일=연합)한국정부는 13일 전육사교장 김복동장군을 국영기업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에 임명했다.

김씨는 최근 전 유정회국회의원 이철희씨와 그의 처 장영자씨가 관련된 외화, 사채스캔달에 연루 12일 사직한 이규황 「광진사장」후임으로 취임했다.

김장군은 경북청송 출신으로 예비역중장이며 전두환대통령과 육사 동기생이다.

한인 배구팀 선발 「온」주 여름리그

재캐나다배구협회(회장 문영환)는 6월부터 온타리오 여름배구리그에 출전할 청소년을 선발한다.

지난 8일과 오는 15일 2차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선수선발은 한인청소년을 대상으로 배구의 기본기및 체력검사등을 실사한다.

15일밤 7시 스카브로 데빗·매리·톰슨고등학교(2740 Lawrence E.)에서 실시되는 선수선발에 많은 한인청소년의 참가를 희망한다고 배구협회 임승철사무장은 전했다.

한국인 4천4백98명 불법체류자 임시등록

(브라질지사)지난10일자로, 120일동안 실시되었던 외국인 불법체류자 임시등록에 한국교포는 모두 4천498명이 등록을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제정된 신 외국인법에 따라 브라질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던 81개국, 1만5천2백54명이(쌍파울로의 경우) 등록 이 가운데 한국교포 4,498명이 제일 많고 다음이 칠레인으로 3,643명, 중국인 1,613명등의 순이다.

전 국민대상 「주민신고연락망」조직

택시운전사등 특별지도원, 대형사고 대비

(서울13일=연합)한국내무부는 각종 범죄, 사고및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최근 전국적으로 「주민신고연락망」을 구성, 온 국민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12일 각 가정에서 대표로 1사람이 이 연락망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연락망은 마을이나 직장단위로 구성된다. 우체부, 택시운전사및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진 유지들은 「특별지도원」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내무부는 발표했다.

이같은 전국적 연락조직망의 실시이유로 최근의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의령학살사건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한 것으로 내무부대변인은 밝혔다.

3월18일 미문화원 방화사건은 문부식, 김은숙이 주범으로 반미감정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으며, 최기식신부가 이에 관련 구속되었다. 55명이 죽고 36명이 중경상을 입은 4월26일의 의령학살사건은 정신착란증세의 우범곤순경이 술에 만취, 주민들에게 총을 무차별 난사한 끔찍한 사건이다.

한국은 이미 향토예비군과 민방위조직이 있어 새로 생기는 「주민신고연락망」은 이와 비슷하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강남개발계획 재조정

서울부근 고층빌딩 제한 조치로

(서울 12일=연합) 한국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및 인천시에 대규모 빌딩건설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12일 서울시 개발에 관한 한 특별위원회는 내주(5월17일)부터 실시될 건물제한 조치에 따라 21층이상의 정부건물·국영회사건물 및 민간건물 건설을 금지되며 백화점건물은 11층 이하로 제한된다.

도시인구 분산및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이번 조치로 사실상 서울시가 서울의 다운타운을 강남의 서초동 지역까지로 확대시키려던 지금까지의 계획은 모두 전면 재조정된다.

오늘의 예금금리 (4월23일 부터)

종 별	기 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5%	13~13.5%
	90일	15.25%	13.75~14.5%
	180일	15.5%	13.75~14.75%
	365일	15.75%	14.75~15.25%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R)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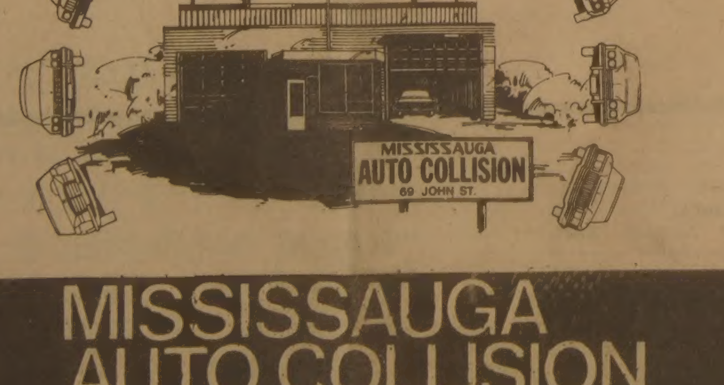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창사5주년 사상최초
대 재고정리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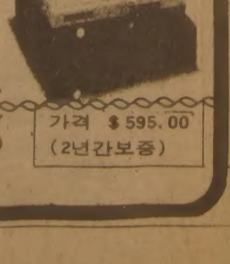
다이아몬드
각종보석·
귀금속
일본산 진주
비취
고급시계
카나다보석 협회 회원
고려보석
EATON CENTRE
(Level 1분수대 옆)
중앙분수대옆
979- 3196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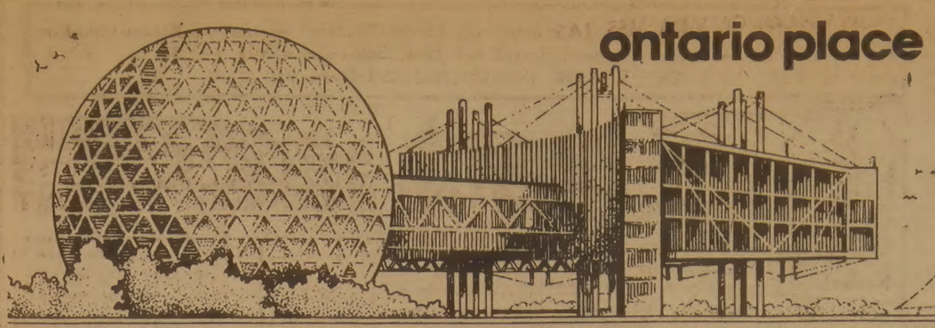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PANASONIC, SHARP, N.C.R.
Sweda, Victor, Delta Systems, TEC.
◎판매, 써비스, 렌트
—Same day 써비스
—pick up & 배달
—Paper Rolls
—Free demonstration
Rent on lease with option to buy
◎ 2년간 보증
252-7377



822 The Queensway
(퀸스웨이 × 이슬링톤)
— 하비 햄버거앞 —
가격 $595.00
(2년간보증)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온타리오·플레이스 15일 개장
원더랜드등 입장권도 무료 배부

온타리오·플레이스(Ontario Place)가 오는 15일 개장한다.

올해로 12회째 맞는 온타리오·플레이스는 트우벤·베츠 여행및 오락성장관이 82년도 다운힐 월드컵 스키·챔피온 스티브·포드보르스키와 82년도 미스·토론토 유본·로빈슨양의 도움을 받아 개장테이프를 끊는다.

개관식은 이날 상오 10시 중앙입구에서 성대하게 행해지며 이날 첫입장 1200명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후 낮12시까지는 입장료, 파킹료, 탈것및 토론토 하버와 아일랜드(Toronto Harbor and Islands)까지 가는 유람선삯이 모두 12센트씩이다.

이날 고무풍선, 포스터및 CN타워, 원더랜드, 메트로동물원과 해밀턴의 아프리칸·라이언·사파리 입장권도 무료로 배부된다.

온타리오·플레이스내의 포럼(Forum)에서는 금요일 로니 학킨스의 공연에 이어 토요일은 글렌·캠벨, 일요일엔 엔디·윌리암스와 짐·커레이가 각각 공연한다.

온타리오·플레이스의 일반 입장료는 성인과 13세 이상의 어린이는 작년보다 50센트 비싼 $4,(8월18일~9월6일의 CNE기간동안에는 $3,50으로 내린다). 13세미만의 어린이는 $1(어른이 동반하지 않을때는 $2,50), 65세이상으로 신분증을 소지한 노인은 무료이다.

온타리오·플레이스 개장시간은 월~토요일은 상오10시~밤1시, 일요일은 상오10시~밤11시다.

한국, 쌀 37만톤 추가도입
제3의 코멧회사에서 톤당 $426에

(서울12일=연합)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한국과 거래가 없던 켈리포니아의 코멧미곡회사에서 톤당 $246의 가격에 370,000톤의 쌀을 들여오기로 계약했다고 12일 조달청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이 82년도에 미국에서 도입하는 쌀은 총 50만톤이 된다.

조달청 대변인은 새 계약이 11개 미국 쌀회사가 경쟁, 입찰가격이 최고 톤당 $283까지 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중순 쌀도입을 둘러 싼 뇌물 사건때문에 국회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었다.

미국의 코넬미곡및 설탕회사는 당시 또하나의 미국회사, 피르미사가 한국정부에 뇌물을 주고 계약을 가로 채갔다고 주장, 고소를 제기했었다.

교민동정

김 홍 량

◆김홍량(IMPERIAL LIFE근무)=지난 29일 보험회사가 101 Bloor St. W. Suite 201로 이전했다. 전화는 961-3774.

슈가레이 눈手術
망막再結合위해 두시간…6~9개월 요양해야

(버팔—UPI)9일 분리된 왼쪽 눈의 망막재결합 수술을 받은 WBA, WBC웰터급 통합챔피언 슈가레이·레너드는 이수술로오는 14일 예정된 타이틀전을 연기함은 물론, 자신의 복싱생활에 큰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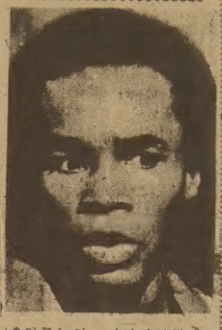
세계적인「윌머눈연구소」에서 2시간에 걸친 레너드의 눈 외과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은 레너드가 정상상태로 회복하려면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정도 필요하다고 전했으나 조심스럽게「레너드의 상태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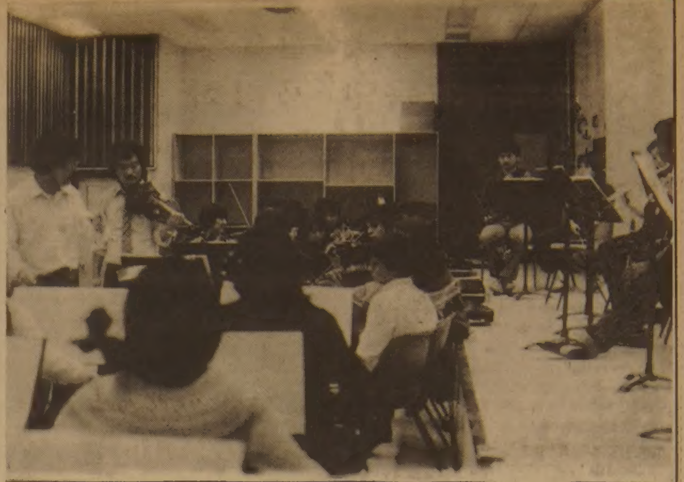
그러나 일부에서는 레너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망막의 훼손」으로 시야에 커다란 장애가 안겨져 그의 권투선수생활에종지부를 찍게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더우기 6개월동안 그의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런지는 예측할 수 없으며 6개월이 지나서도 다시 시합을 벌일 수 있느냐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레너드의 눈 부상이 지난해 9월 토미·헌스와의 통합타이틀전때 입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레너드측은 이를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15일 경기를 주최하는 버팔로 상공회의소는 이 대전을 연기할 태도를 분명히 했으며 레너드가 회복되는 즉시 경기일정을 다시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왼쪽눈의 망막재결합수술을 받고 권투선수생활에 위협받고 있는 레너드.


◆29일 정명화와의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손질에 바쁜 한인교향악단. 서있는 사람은 지휘자 김승순씨와 실제 연주로 보충 지도하는 바이올린의 박영대씨.

질적 향상위한 혼연일체의 노력
한인교향악단, 정명화와 협연 대비

"온타리오주 유일의 에트닉 오케스트라로서가 아니라 음악의 질적수준으로서 메이저·오케스트라로 인정받는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입니다."

창단 1년 6개월의 토론토 한인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김승순씨가 8일 연습을 끝낸 뒤 꺼낸 소감이다.

오는 29일 첼리스트 정명화씨와의 협연을 가질 한인교향악단은 이같은 당면 목표달성을 위해 단원·지휘자·이사회·후원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쏟는다.

우선 단원들은 자치회를 조직, 그 매니저로 혜원·잉글리쉬(플룻주자)씨를 선출했다.

자치회가 기획한 빅·이벤트중의 하나는 자체기금을 위한 마라톤 연습 리허서톤(Rehearse—a—thon)이다. 정기 연습일의 하나인 15일 평소연습시간의 배인 6시간동안 마라톤 연습을 갖고, 단원들이 이를 기념, 가까운 친구·친지들로 부터 이미 후원금 약정을 받았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공동체가 되어 만드는 아름다운 화음의 저변에는 후원회·이사회 뿐만 아니라 한인코뮤니티의 공동체적 지원이 깔려있다.

"토론토·심포니의 예를 들면 공연수익도 적지는 않지만 각 기업은 지원금이 토론토·심포니 운영자금의 대종을 이룬다"고 말하는 한인오케스트라 이사회 고순복총무의 말속에는 어려움속에서 애쓰는 단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울러 코뮤니티에 대한 지원호소도 담겨있다.

기자가 8일 연습이 거의 끝날 무렵 오벌리고교강당을 들어섰을 땐 지휘자 김승순씨가 한창 단원들을 지도하고 있었으며, 악장 박영대(바이올리니스트)씨는 실제 연주로서 현악 파트에 시범을 보이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학부모를 비롯한 후원회·이사회 인사 10여명이 연습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현재의 총 단원수는 작년보다 늘어 35명. 공연때는 모자라는 파트 25명을 빌려올 예정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비한국계 단원 6명이 노스·욕, 스카보로심포니등에서 한인오케스트라로 이적, 정기단원으로 매번 연주에 열심인 것. 이들은 "한인오케스트라가 연륜이 오래 된 다른 오케스트라들 보다 생동적·희망적이라 연주에 힘이 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박인순, 이상수, 윤순희씨등 3명의 신입이사를 받아들인 한인오케스트라는 80년8월 창립, 김영욱, 백건우씨와 협연한 바있다.

윤보선씨 2남 플로리다에

(로스엔젤레스 11일=연합)2년동안이나 실종된 것으로 밝혀진 윤보선 전 대통령의 2남 윤동구가 현재 미 플로리다에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LA에 거주 윤동구의 형 윤상구(33)씨는 "동생이 실종됐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며칠전 플로리다의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디자이너인 동생은 때때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뉴욕의 자기 아파트를 비우는 수가 많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키·아가일교차지점에 제2한인연장자 아파트설립

(시카고지사)한인연장자주택공사(회장 차응만)는 27일 하오6시 본사회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제2의 한인연장자아파트를 플라스키와 아가일교차지역에 건립 추진키로 확정했다.

차응만회장과 신현정서기, 이충식이사장과 차락우·이태영이사, 건축설계사 란·로토코우스키씨등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1차분 연장자아파트인「무궁화아파트」의 기공식을 오는 6월15일 하오4시 4848 N.켓지의 부지현장에서 갖기로 하는 한편, 2차분 연장자아파트의 건립을 새로이 추진하기로 공식 결의했다.

현재 켓지와 에인슬리교차지역에 건립이 추진중인 1차분의 무궁화아파트는 이미 연방정부 주택청으로부터 도면 승인이 나서 마지막승인 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오는 6월15일에는 제인·버언 시카고시장과 유병현주미대사등의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거행될 예정.

오는 6월15일 기공식을 갖는 무궁화아파트는 7월에 착공하여 1년6개월만인 84년1월에 완공될 계획이므로 2차분 150세대 입주용 연장자아파트는 1차분의 완공직후 잇달아서 착공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뜻도 없는 소음속에서 기자「본드」가 화면을 헤집는다.

새 映画

틀린것이 맞다
「소리」로 시작「소리」로 끝나고…

전쟁영화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다.「WRONG IS RIGHT」는 처음부터 끝까지 브래스밴드소리, 총소리, 총소리, 군중의 고함소리, 폭탄소리와 출연진들의 악쓰는 소리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시끄러운 소리까지 한데 어울려 영화가끝나면 후미한 머리로 소음지옥서 풀려나온 안도의 숨까지 내쉬게 된다.

감독 리처드·브룩스는「블랙보드 정글」,「엘머 갠트리」등 훌륭한 작품을 만든 장본인인데 한동안 조용했다 느닷없이 뛰어나와 소리만를 요란하게 만화경이나 다름 없는 장면들만 나열한 어지러운 영화를 만들었다.

시끄러움의 장본인은 수퍼스타 TV앵커맨이자 기자인 패트릭·헤일(숀·코너리). 세계의 특종뉴스는 혼자 도맡다시피 하는 헤일은 사신을 초청한 아랍국의 한왕이 살해됨으로써 테러리스트와 미정부간의 거미줄처럼 얽힌 것같으나 실은 아이들 장난같은 음모에 한몫 끼게된다.

테러리스트 헨리·실바는「샤키의 부하」이후 또한번 멍청한 역을 맡으면서 국왕의 살해는 CIA의 짓이라며 미대통령(조지·그리자드)의 사임을 요구한다. 사임 안하면 무기밀매상 하디·크루거에게서 탈취한 원폭2개를 뉴욕상공에서 폭발시키겠다는 것. 이 위협을 놓고 헤일은 신나게 특종을 내보내고 대통령은 폭탄을 찾아내라고 소리 지르고 반테러리스트 책임자인 육군장성 로버트·콘대드는 적을 싹 밀어버리자고 열러리소릴 하지만 긴장감은 커녕 허무니가 없어 웃음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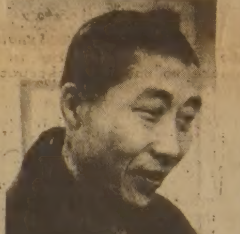
영화는 FBI, CIA, 백악관, 아랍국과 테러리스트등 눈요기의 주인공이 될만한 대상은 모두 끌어내 스파이와 배반, 음모, 살인, 도청, 자폭등을 얼기설기 엮어놔 잡탕중의 잡탕이 됐다. 제임스·본드가 기자가 된듯한 숀·코너리가 마치 미국과 전세계를 통틀어 기자는 자기 하나밖에 없다는듯 혼자 날뛰는 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미친 현대문명을 대표한 TV와 더럽기 짝이없는 정치세계를 풍자하려는 의도도 엿보이나 한심한 넌센스 코미디를 보는 셈이다. 캐더린·로스가 잠깐 나오고 존·색슨과 레슬리·닐슨도 공연한다. 등급R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불교의 은혜 ④

김 삼 우


◇김삼우 씨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지침으로 의지해왔던 고유한 가치관은 수정되고 재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대개의 전통가치관은 이미 우리안에서 경직되어 수정되고 보완될 여지가 없다. 이리하여 우리안에 있는 위기의식은 증대하고 극한 상황은 심화한다. 이것이 이민온 사람들이 앓는 정신적 질환이다. 이러한 질병에서 벗어나기위해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고집을 부리던가 아니면 물질문명의 물질적가치에 영합하거나 서양종교에 안식처를 구한다.

하지만 한국인은 한번 반성해 보지않으면 안된다. 한국에는 국토와 인종만 있고, 언어와 생활풍습만 있고 보편적가치를 지닌 깊이있는 정신문화는 없는 것일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에게 용기와 신념을 줄수있는 종교적인 가치관은 없는 것일까. 우리 자손들이 한국말과 생활풍속을 다 잊어버리고 얼굴색깔과 라스트·네임만을 제외하고는 북미인이다 되어버린 후에라도 이들에게 일러줄 수 있는 한국의얼이 담겨있는 세계적인 정신적 가치관을 없는 것일까. 우리 가운데는 아마 그냥 정신적인 질문없이 이민오신 분들이 많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서 캐나다에 이민온 현실적인 사실만으로 우리안에는 이미 동양과 서양이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두개의 커다란 이질적인 가치관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대립과 알력, 갈등의 양상으로 우리를 한동안 괴롭힐런지 모른다. 그러나 참된 만남은 한쪽의 패배와 한쪽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기이지 만남이 아니다. 만남은 하나에로의 지향이며, 그것은 화합이며, 공이며, 무아이고, 자비이며, 사랑이고, 평화이다. 이것이 불교를 신봉하였던 우리 선조들이 이상으로 삼았던 정신적 가치관이었다. 이제 우리는 만남을 통하여 하나의 세계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문화에 참여하고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고유문화안에 있는 보편적가치를 찾아보지 않으면 안된다. 우주와 인생에 대한 뚜렷한 태도를 가지고 사상과 예술성을 갖춘 한국의 고유문화로서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수 있는 정신문화는 어떤것일까. 우리에게는 기층문화로서의 무속이 있고 불교문화와 유교문화가 있고, 천도교가 있다. 무속은 우리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모든 원시감정을 대표하는 고유문화중의 고유문화이기는 하나 사상과 예술성이 없어 세계에 내놓을수가 없다.

유교문화는 우수한 사회철학과 윤리사상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세상을 구제하는 초월적인 종교성이 결여되어있다. 세계성을 가진 한국문화로서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수 있는것은 한국불교문화뿐이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수있는 문화재의 약80%가 불교문화재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정신문화와 종교문화를 알고져하는 외국인은 한국사찰을 방문한다. 거기에는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있고 살아있는 전통이 숨쉬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한국인이며, 우리가 흔히 세계에 자랑하는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진리와 거기에 서려있는 우리조상이 가꾼 한국의 얼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계속)

토론토·한국일보
이민의 문화적·사회적 자아(Identity)를 밝혀 가는 신문.

Peat, Marwick, Mitchell & Co.

Peat, Marwick, Mitchell & Co., Chartered Accountants, Toronto, announces the engagement of Mr. Young I. Hyun, C.A., to be responsible for the Firm's newly formed Korean Practice.

Peat, Marwick, Mitchell & Co. maintains 300 offices in 86 countries around the world, providing a full range of services in accounting, auditing, tax and management consulting. Throughout Canada, these services are provided to our clients through the Firm's 23 offices.

The Korean Practice will serve the specific needs of Korean businesses operating in Toronto and throughout Canada, as well as the requirements of Korea-domiciled companies seeking professional business advice on commencing operations in Canada.

Peat, Marwick, Mitchell & Co. 현영일공인회계사

본 Peat, Marwiclo, Mitchell & Co공인회계사 회사는 Montreal에서 공인회계사 회사를 운영하던 현영일(Chartered Accountant)을 한국담당책임자로 선정하여한인사회에 봉사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사는 한국을 위시한 세계 86개국에 300여 사무소를 갖고 **회계, 감사, 세무**및 **경영상담**에 걸친 폭넓은 전문업무를 취급하는 국제적 명성의 공인회계사 입니다.

현영일공인회계사의 한안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바랍니다.

주소 : Commerce Court West P.O. Box 31 Commerce Court Postal Station
Toronto, Ontario M5L 1B2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 인정"
제3국어 교육안 공청회 결론

조성준(한국교육연구회장)

◆편집자주: 지난 6일 토론토시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제3국어 교육안(본보5월10일자 참조)의 공청회 기간동안 한인교육연구회 대표로 참석했던 조성준(사회사업가)씨의 공청회 소감(한글)과 연설문(영문)을 전문게재한다. 교포 2세들을 위한 영문원고는 조성준씨가 이 공청회에서 행한 연설원문이다.

조성준씨.

◆서 론

토론토시교육위원회는 5년전 모국어교육프로그램(Heritage Language Program)을 시작, 지금까지 국민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30분씩 혹은 주말을 이용하여 모국어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 프로그램에 적극참여 혜택을 받아온 언어민족으로는 이태리계, 폴류갈계, 희랍계, 중국인계, 우크라이나계, 인도계등 기타 소수민족이 있다. 한국학생들은 씨알학교와 Y.M.C.A.한글학교에서 160명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 교육을 받아왔다.

이번 공청회는 종전의 모국어교육프로그램을 개선, 정규학교수업까지 연장시켜달라는 많은 학부형(주로 모국어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였다.

캐나다 공용어인 영·불어외에 제3국어(모국어)를 토론토 국민학교에서 가르칠것인가하는 문제는 이미 2년전부터 논쟁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제3국어 교육에 대한 찬·반 양쪽이 모두 나름대로 강력한 이유를 들고나와 토론토시교육위원회는 약18개월전 「제3국어 교육연구전문위원회」를 구성, 제3국어 교육에 관련된 자료수집및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지난 3월 제3국어교육전문위원회 최종보고서가 작성·출판되었는데 그 명칭은 Towards a Comprehensive Language Policy (The Final Report of the Work Group on Third Language Instruction)이다.

◆찬성및 반대 이유

본 공청회를 통해 196명의 각계각층 인사가 수일에 걸쳐 의견을 발표했다. 필자는 한인교육연구회를 대표하여 지지발언을 했다. 발언자중에는 하바드대학에서 언어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현직대학교수(지지발언), 온타리오 신민당(N.D.P.)당수 밥뢰(지지발언)가 있는가 하면 가정주부, 고등학생도 있었다. 여러 소수민족단체장, 현직교사들도 많이 눈에 띄었으며 중국인 몇명은 통역까지 대동 중국말로 의사를 발표했다.

찬성 : 비용많이들고 게토화 우려
반대 : 복합문화주의 성장에 필수조건

먼저 반대측의 의견을 요약하면 1)우리(캐나다)국어가 영어인 이상 구태여 외국의 언어를 이곳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2)비용이 많이 든다. 3)학교내에서 제3국어를 가르치면 그언어를 배우는 아이들끼리 뭉쳐서 게토(ghetto)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4)국민학생들에게 여러가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5)제3국어를 가르치는 시간때문에 영어, 수학교육에 지장을 초래한다.

지지측의 발언을 간추려보면 1)복합문화는 캐나다의 정책이니 만큼 제3국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 2)토론토시내 국민학생 50%이상이 이민가정의 자녀들로써 가정내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소통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제3국어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3)학교에서 정식으로 제3국어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주말에나 가르치면 결국 소수민족은 변두리에서 게토(ghetto)화 될 우려성이 있다.

◆공청회의 중요성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러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제3국어교육에 대한 찬·반을 표시했지만 한껍질 벗겨보면 반대측의 주류를 이루는 영국계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영국계문화를 계속 보존, 백인앵글로색슨(WASP)의 사회를 지속하자는 의도겠고 유색인종이나 구라파에서 이민온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화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살 수 있는 사회, 즉 복합문화사회를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국민학교에서부터 떳떳히 배워 명실공한 복합문화사회를 건설해 나가자는 취지가 있겠다.

이런 각도와 차원에서 볼때 이곳 소수민족에게는 이번 공청회만큼 중요한 잇슈(Issue)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영국계사람이나 이민온 사람들이 며칠씩이나 새벽2시까지 서로 뜨거운 논쟁을 계속했던 것이다. 또한 이논쟁은 진정한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아름다운 산역사이며 미래의 방향설정이기도 하다.

복합문화사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유럽, 인도, 중국, 흑인들및 기타 소수민족들이 오랜 시간과 많은 정력과 피땀나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사회제도 속에서 한국사람들 만은 내자식만 공부 잘시켜 일류대학보내고 시간나면 골프치고, 주말이면 교회나가 나만 성령, 은혜많이 받고, 죽은 다음 천당간다는 이기적, 내세지향적 삶을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다른 소수민족도 없고 복합문화도 없는 일본에 사는 한국교포들의 위치를 본다면 이곳에서 복합문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곳으로 이민왔다는 사실은 몇년 살다 귀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 후손이 자손만대 다른 민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잘 어울려 살며 이나라와 전세계의 인류공영 사회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때때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 론

결국 제3국어 교육안이 지난 6일 토론토시교육위원회에서 15:10으로 정식통과되었다. 복합문화를 아껴주고 모든 어린이를 가능한한 동등하게 교육시키려고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 그러나 온타리오주 문교부장관은 제3국어교육에 필요한 예산책정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좀더 구체적인 문제는 금년도 신학기인 오는 9월에 가보면 확실한 윤곽이 드러나리라 본다. 끝으로 한국어를 못읽는 한국자녀들을 위해 필자가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영문연설문을 아래 게재한다.

Chairman of the Board, Mr. Bob Spencer and trustees:

As the chairman of the Toronto Korean Education society, I wish to submit to the Toronto Board of Education the following reasons for my full support of the Third language program in the elementary day school program.

We are living in an multicultural society. A school is the multicultural place where children bring their culture, they learn more about their own culture and they also learn the culture of others. The central element of the culture is language. If young children are exposed to another language, they will also learn the culture of that group. These children will not be "ghettorized" because they learn another language. Instead, in my view, they will become richer in communication skills.

I have two boys who are presently attending a French immersion program. When they are in class they are French and they speak French. During the recess at school they play with Canadian children and speak English. When they go to our Korean church they worship in Korean. When they are at home they speak in Korean to us but they usually speak in English to each other. My children are not in a ghetto.

Some parents express concern about teaching the third language in schools, saying what the immigrant children need in schools is more English, not the third language. But recent studies support the fact that third language teaching in school helps immigrant children learn English better.

Example: Rock Point Navajo Study in the U.S.

Despite of intensive teaching of English, the Indian children's reading level was two years behind U.S. norms in English reading by the end of grade 6. Then, in 1971 the school introduced the bilingual program, that is, Navajo as the major medium of instruction for kindergarten through grade 2 and continued its use throughout elementary school for between 25 and 50 percent of the instruction. By the end of grade 6, children in the bilingual program were performing slightly above U.S. grade norms in English reading despite considerably less exposure to English instruction than previously.

According to Professor Cummins at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learning another language helps a person in five areas: ability to analyze and become aware of language; overall academic skills (for example, reading and writing); general conceptual development; creative thinking; and sensitivity of communicative needs of the listener.

Better self-esteem

If a minority student could learn his own language in his Canadian school during the school days with other children he will certainly feel proud of himself and his ethnic background. If he feels good about himself, chances are that he will make a good citizen and a good Canadian citizen.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the Third Language

I started learning English from grade 7 in Korea. Now, thirty years later, I sincerely thank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having allowed the English language to be taught in a Korean senior public school, instead of saying that "this is Korea and the Korean students should learn only Korean and the Korean grammar." If I had not learned English from grade 7 in Korea, I would not have been able to graduate with a Master of Social Work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Toronto -- in English of course -- and go on to work as a professional social worker in Canada today.

Some parents are concerned about financial aspect of teaching the third language in the day school program. And I appreciate their concern. It is my concern as well. But still, education is investment and any investment requires money.

In the long run, I think, teaching a third language in the day school will not only save money but create stronger human resources for the future.

Thank you

Raymond Cho, M.S.W., M. Ed.
Chairman
The Toronto Korean Education Society, Toronto

◆토론토시민인 삽화가 톰·벤자민씨가 고안한 60센트짜리 새우표. 한국등 해외항공편지(20g)에 쓰인다. 이 우표의 전경은 고급부띠끄·찻집등으로 유명한 욕빌스트릿을 그린 것이다. 이 작품은 벤자민씨의 21번째 우표 도안이다. 시중우체국에서 판매중.

한국일보
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8.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신앙의기본
기도란 무엇인가(2)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28 : 9)

전호에서는 기도할때에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의 하나로 "실천상 무신론"을 다루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과 기도를 잘못 이용하여 종교 삼매경에 도달하는 방법이나 또는 이교도들과 같이 복을 비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루었다. 그리고 참된 기도의 상태란 "구걸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이라 했다.

참된 기도가 이교도들 처럼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독교인들은 필요한 것이 있어도 구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약1:5)"하시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약4:2)"이라 하신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구하기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마태6:8)"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구태여 구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의 교통"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 자신이 그 구하는 내용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앞에 마음을 터놓고 구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며"기도하는 사람은 "중언부언(마태6:7)"도 않고, 생각없이, 무책임하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숭고하신 분께 "실례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기도한다. 그는 또 "듣지 않으신" 기도나 "끝 대답을 않하시는 기도"에 대하여도 맹목적으로 같은 기도를 되풀이만 하고 있지 않는다. 대신 "왜 안들으시는가?" 또는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의사표시를 하시는가?"를 적극 찾아보려고 한다. 우리 주께서도 "생각하며" 기도 할것을 가르치시면서 구한 자가 구한 후에는 "찾아도"보는 것이고 또 깨닫음이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는 "문도 두드리는"(마태7:7)사람과 같이되라 하신다.

이와같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에 어서서 우리의 장성이란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욕심꾸러기같이 항상 졸라만 대는 기도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이어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서 젖이나 먹는 상태(고전3:1-3)"에 있는 것과 같다. 장성함이 없이 언제까지나 갓난아기로 있다던지, 난쟁이와 같이 예수 믿은지 10년, 20년이 되어도 키가 조금도 자라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근심과 실망을 드리는 상태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장성한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철이 든 사람은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는데 오늘 그것을 들어 주셨나이다"라던지 "제가 기도한 내용을 들어 주시지 않으셨을 찌라도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더 깊은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나이다."라고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냐, 네가 와서 말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반갑게 들었다. 그런데 네가 구하는 것을 지금은 안 주겠다"라 하시던지 "지금 주마" 혹은 "아니, 그것은 네가 잘 몰라서 그렇게 구하고 있지만 네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이것을 받아라"라던지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인지 알수없다.

그렇게 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쁨"을 거두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때 즉석에서 들으심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오래 끌고 가시다가 들어 주신다는 것도 귀한 상태이다. 기도한 후에 장성한 사람은 "잠잠히(잠62:1)" "기다리면서(시편40:1)" "하나님만을 바라는(시편62:5)"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해 감으로서(행17:11)"하나님께 대한 그의 인식이나 구한 바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더욱 깨달아 가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의 상태야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시키시는 은혜의 방법인 것이다.

내가 구한 것은 못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것으로 대신 받는 것 역시 귀중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버지께서는그 자녀에게 항상 좋은것으로 주시는 고로(마태7:11)" 내가 구한 것 보다는 다른 것이 내게 더 절실히 있어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하신후 구한 것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생각의 미숙함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려 깊으시게 대하고 계시는 가를 체험하게 된다.

이는 마치 어린 아이가 배가 고프면서도 사탕을 달라고 조를때 그것 대신 영양분이 많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주어 먹이는 부모와 같은 것이다.

어떤때에 우리가 구한것은 주시지않으면서 구한자에게 새로운 깨달음만을 일으키시는데 이러한 대답의 방식 역시 귀한 일이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현금 만이 돈인줄 알고 그의 주머니에는 거액의 보증수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돈인 줄 깨닫지 못한채 친구에게 돈을 꾸러 간 사람과 같다. 그의 친구가 돈은 꾸어주지 않고 그가 가진 보증수표가 바로 돈 임을 알려줄때 그는 돈을 꾼것 이상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쓰셔서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를 장성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하여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묵묵부답은 기도한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져야 한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 "실천상 무신론자"들 처럼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면서 그들을 자기의 목적에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의 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싫어 하시는 죄악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의 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이교도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기도는 아닌지?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증히 여기신다(잠28:9)"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즉시 들어주신 예를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있다. "갈멜산 상에서의 엘리야의 기도(왕상18:16-40)", "히스기야가 앗시리아왕 산헤립의 도전을 받고 드린 기도(왕하19:8-37)", "아사왕이 구스왕 세라의 도전을 받고 드린 기도(대하14:9-15)"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대답해 주시는 것 외에 응답을 끌고 가시다가 자신이 구하는 것의 내용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후에 이루어 주시는 기도의 예를 우리는 "나사로가족(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에서 볼 수있다. 이 문제는 다음회에 상론키로한다.

—다음호(5월22일)에 계속—

개혁장로교회(1355 WARDEN + ELSMERE 남쪽 : 예배 - 주일오후2시 : 문의 - 492-9889. 592-6142):REFORMED PRESBYTERIAN CHURCH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張여인관련、두銀行長 사표

林在琇 朝銀·孔德鍾 商銀 후속大幅人事 예상

林在琇 조흥은행장과 孔德鍾상업은행장이 11일하오 사표를 제출했다.

두 은행장이 사표를낸것은 張여인 私債사건과 관련, 인책된것으로 알려졌다.

두은행장의 사표는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林在琇조흥은행장과 孔德鍾상업은행장의 후임 人選을 계기로 시은의 부분적인 인사가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 國會서 全貌밝혀"

羅재무、財務委소집 요구

재무부는 李哲熙·張玲子씨부부사건의 전모와 이에대한 대책을 13일 열리는 국회재무위에서 밝힐 예정이다. 羅雄培재무부장관은 11일 이번 국회재무위는 자신이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고 전제, 국회에서 모든것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털어놓겠다고 말했다. 羅장관은 또 은행관계자의 문책문제에대해 아직 거론한적이 없다고 잘라말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후 최종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羅雄培장관은 11일상오 全대통령에게 사건전모와 수습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일련의 수습대책을 마련한것과 때를같이해서 금융단은 11일 그동안 교환에 돌리지않고 보류해왔던 共榮土建과 日新제강의 어음을모두 부도처리했다.

정부는 共榮土建은 부도처리한후 法定관리로 전환하고 日新製鋼은 공매처분, 새경영주를 찾을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李·張씨부부 사건과 관련된 업체는 共榮土建·日新製鋼·라이프주택·三益住宅·太陽金屬·해태제과등 6개업체이며 李·張씨부부가관련된 이들업체의 어음은 모두 2천6백억원 규모이다.

나머지 8백여억원의 어음중 5백여억원어치는 張여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당했고 잔여 3백여억원상당의 어음은 관련업체들이 교환을 보류하고 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大和산업명의로 상대방회사에 담보조로제공된 어음이 1천여억원에 달한것으로 알려졌다.

日新제강, 共榮土建등 관련업체의 어음이 11일자로부도처리됨에따라 두회사의 어음을 할인해줬던 私債權者는 물론이고 단자회사에서 共榮토건CP (신종기업어음)를 매입했던 선의의 투자자들도 채권회수가 당분간 불가능하게됐다.

두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등을 통해 부도를 내지않고 자체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共榮土建계열기업중 건실한 기업도 母企業에 대한 法定관리와 동시에 公賣, 2천억원규모인 모기업의 은행부채 (지급보증포함)를 상환토록 할방침이다.

日新제강도 공매절차를 거쳐 매각토록할 예정인데 현재L그룹, P사등에 넘겨질 가능성이 큰것으로 알려졌다.

「共榮」法定管理결정 「日新」公賣처분키로

어음總額 2천6백억 見質은 1천9백억원

檢察、李哲熙·張玲子씨搜査결과 어제밤發表

李哲熙·張玲子씨부부의 어음사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 이들부부가 취급한 어음총액은 2천6백억원이며 이가운데 7백억원만이 발행기업이 張씨에게서 실제로 빌어쓴 액수일뿐 나머지 1천9백억원은 담보용 견질어음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1천9백억원가운데 張씨가 이용한것은 1천6백억원으로 이가운데 1천44억은 할인해유통시켰고 5백억은 보관중이었음을 밝혀내고 수사결과를 11일 하오10시께 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또▲張씨가 처음갖고있던 순수개인자본은 20억원이었으며▲자금증식과정에서 기업이 담보용으로 맡긴 견질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을 취했고▲지금까지 수사결과 일부기업의 견질어음을 사전양해없이 할인했음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검찰은 견질어음 1천9백억원 가운데 발행기업의 사전양해없이 할인해쓴 정확한 액수를 가려내기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張씨가 발행기업의 사전양해없이 할인해쓴 어음액수에대해 張씨와 발행기업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사채업자및 업계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액수를 밝혀내는 작업을 벌이고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미결제어음의 담보확보를 위해 이들 부부의 은닉재산을 추적한 결과 21억원상당의 慶州유스호스텔, 濟州道소재 농장, 3만5천평규모의 워커힐염 별장및 清潭洞자택등의 부동산과 동산, 귀금속, 골동품등 2백억원어치를 찾아낸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가운데 1백70억원어치는 관계은행에서 이미 채권확보가 끝난 상태다.

검찰은 또 국내에서 은닉중 압수된 미화40만달러의구입목적은 해외도피를위한 준비자금이었던 것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와관련, 이들 부부가 그동안 회전시킨 사업자금 규모에 비해 현재와인된 재산이 너무적다는 사실에 의문을 갖고 밝혀지지않은 張씨의 재산이 더있을 것으로보고 또다른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에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사건에대해 시중에서 많은 의혹과 소문이 나돌고있는점을 감안, 우선 중간수사결과를 11일하오5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고위층의 보고과정에서 문제점등이 지적돼 하오10시로 늦어지기도 했다.

현재 검찰이 밝혀낸 관계기업의 張씨에대한 어음발행액수는 다음과같다.

▲共榮토건 1천6백억원 ▲日新제강 4백억원 ▲라이프주택 4백25억원 ▲太陽금속92억원▲三益주택50억원▲해태제과 32억원

對政府건의案없이 閉會

「宜寧國會」議政同友會 반대로

「內閣사퇴」표현싸고 停會거듭끝에

제112회 임시국회는 11일하오 本會議에서 宜寧경찰관총기亂射사건과 관련, 責任행정의 구현을 촉구하는 對정부건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議政同友會의원들이 對건의문에 內閣사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극력반대하고 일부 民韓黨의원들도 이에 同調할 움직임을 보여 건의안을 채택하지않고 閉會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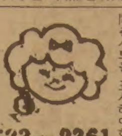
이날 국회본회의는 議政同友會가 건의문작성에서 疎外된데 반발,『內閣사퇴』를 文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民正·民韓·국민등 3黨이 합의하여 마련한 對정부건의문에적극반대, 이를 만류하느라 장시간 停會에 들어가 6차례의회의續開가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으나 同友會의원들이 계속반대를 고집하고 일부 民韓黨의원들도 이에 同調할 기미를보이자 丁來赫 국회의장은 3黨총무들과 협의한끝에 對정부건의안은 이번會期에 처리하지않고 다음會期로 넘기기로했다.

運營委의 건의안채택 지연으로 예정보다 1시간40분늦게시작된 본회의에서 黃明秀議同회장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同友會의원 17명이 참여한일도 없는 건의안에 찬성할수 없으며 건의안에 內閣총사퇴를 표시해야한다』며 表決에 부칠것을 주장했다.

이에 丁來赫의장은 停會를 선포, 各黨대표、議政同友총무등과 對策을협의했으며 民韓黨은 院內대책회의를、同友會는 의원총회를 각각열고 黨論조정작업을 벌였다.

특히 同友會는 黃회장주재로 이날 상하오3차례에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이문제를협의,『본회의에 참석하여 반대한다』는 강경방침을 세웠었다.

이와 함께 民正·民韓·국민당은 총무회담을 열고 장시간空轉되고 있는 本會議의속개를 협의한끝에 表決에붙여 처리키로 결정했으나 辛相佑 韓秉寀등 일부 民韓黨의원들이 반대에 가담할것을 선언하자 건의안을 처리하지않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533—2361

포클랜드 새海戰 발발

英艦、封鎖구역서 아르헨艦 공격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11日 UPI AP=聯】영국국방성은영국군함 1척이 포클랜드주변 2백해리 봉쇄구역을 침입한 함정 1척을 공격함에따라 이일대에서 새로운 해전이 발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국방성은 또 피격선박부근에서 큰폭발이 발생한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이날일찍 남대서양에서 영국기를게양하고 포클랜드 전쟁수역으로 항진하거나 아르헨티나안보를 위협하는것으로 믿어지는선박은 어떤것이든지 적대행위로 간주돼 응분의보복을 받을것이라고 선언했다。

아르헨티나 최고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은 결정은 영국의 끈질긴 침공태세및 아르헨티나 수역의 해상교통을 방해한는데 대한 자위권의 발동으로 취해진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巡洋艦 벨그라노號의 最後

◇헤네랄 벨그라노號의 침몰직전。1만3천6백톤짜리 아르헨티나 유일의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號가 지난3일 영국核잠수함이 쏜 타이거피시 어뢰단2발을 맞고 10m波高에 零下의 남대서양 심연속으로 기울고있다。미사일 현대전이 가져올 가공할결과를 미리짐어 볼수있는 이사진은 임피리얼 프레스 (IP) 가 특종, 본사 宋孝彬 주일특파원이 긴급전송한것이다。【東京11日宋孝彬특파원發—KIT수신】

張여인事件을 규명 善意의 被害없도록

정부·民正간담회

정부와 民正黨은 11일상오 정책간담회를 갖고 오는13일의 국회재무위에서 李哲熙 張玲子부부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善意의피해가 없도록 사후 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羅雄培 재무장관과 民正黨소속 재무위원들은 이날아침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번사건의 대책을 협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引責요구도 不辭

국민당 院內대책

국민당은 11일상오 李東鎭원내총무주재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張여인사건은 解放이후 최대금융사건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財務·法司委를 통해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李총무는 이 사건규명과 정부관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생길경우 철저히 책임지도록 할것이며 관련금융기관장도 引責하도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1천억 緊急방출

韓銀、市銀통해 기업 資金難 덜어주게

금융시장의 경색된 자금사정을 완화하기위해 1천억원의 자금이 긴급방출된다.

한국은행은 11일 최근일련의 사태로 야기된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위축현상때문에 중소기업과 일부 건전기업들이 겪고있는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5개시중은행과 외환은행및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1천억원의 자금을 긴급방출키로했다.

한국은행은 이 긴급자금을 ①共榮토건등 최근 문제된기업들에 납품을하고 대금을못받는 중소기업들과 ②사채시장의 급격한위축으로 사채조달이 어려운기업 ③CP (신종기업어음)의차환발행(만기도래한 어음을 결제하기위해 또 CP를 발행하는것)이 어려운기업 ④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등에 집중지원하라고 시달했다.

共榮토건 11일以前 賃金外의 변제禁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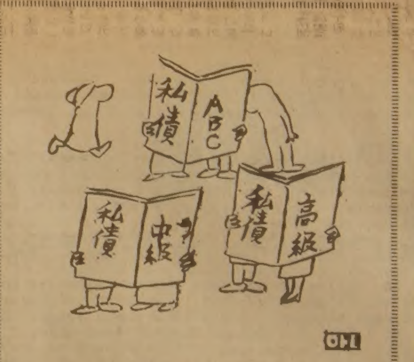
法院결정문

서울민사지법합의16부 (재판장 安文煥부장판사)는 11일 共榮토건이 신청한 회사정리및 재산보전신청을 이유있다고 판단,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共榮토건은 종업원의 임금을제외한 5월11일 이전에 생긴 일체의 채무를 변제해서는안된다▲부동산등 회사소유 재산에관해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임차권의 설정등 기타일체의 처분행위를해서는 안된다▲어떤 명목이나 방법으로도 차재(借財)를 해서는 안된다▲노무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을 금한다▲다만 이결정사항중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받았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을내린 배경으로▲共榮토건의 해외공사계약 잔액고가 현재6억달러 (4천2백억원) 이고 국내공사계약잔액고도 5백29억원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으며▲국내종업원 5천7백명, 해외종업원 5천8백명등에 대해 파산으로생기는 실직여파가 엄청나고 ▲기업경영을 분석한결과 기업수지가 건실한 회사로 평가됐을뿐아니라 ▲서울·釜山의 지하철공사를맡아하고 있는점등을 지적했다.

社會漫評



讀書붐……

共榮토건·日新제강 株式거래 停止

증권거래소는 부도가 발생한 共榮土建과 日新製鋼등 두상장회사에 대해 11일부터 매매거래정지를 시켰다.

地平線

거리에서 버젓이 날개 하나에 1천원씩 파는 바나나가 알고보면 몽땅 불법유출품이라고 한다。그나마 전량 加工 재수출조건으로 12kg 한箱子1만원에 들여온것을 7∼8배나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니. 어이가없다。▼바나나 시비는 몇해전에도 있었다。사과등 국산과일 수출품의 代價수입으로 18만달러어치나 들여온것이 국산과일값을 떨어뜨린다고 야단이었지만 불법은 아니었다。또 바나나 통관이 늦어 썩는다느니、썩은바나나를 들여왔다느니 시비가 많았지만 이번의 경우와는 얘기가 다르다。올해는 물론 지난해에도 단1전의 바나나 수입허가가 없었다。껌이나 페이스트용으로 재수출조건이 붙은 바나나만 수입됐는데 어느덧날개가 돋아 시중에서 팔리고 있으니 업자들의 재간은 보통이 아닌성 싶다。▼어느해든가 바나나가 너무 많이 들어와 농협구판장까지 동원, 배급주듯 팔던 시절이 있었던것같다。그때처럼 값이 쌀때는 일반 시민들도 손에 한번 만져 볼 수 있었지만 요즘 같아서야 병자와 입덧하는 임신부、기껏해야 부유층 아동들이나 먹어봤지 일반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으로 거리에서 관상정도나 하는것이 고작이다。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바나나는 대만산이 대부분이다。초승달에 가까운 긴 타원형의 바나나ㅡ과일 중에서도 영양분이 가장 많다는 바나나는 맛도 좋거니와 그 향기 또한 싱그럽다。▼국내서도 비닐재배에는 성공했지만 노천재배는 기후관계로 어려운모양。인도、말레이지아가 원산지이고 주산지는 남아메리카라고 한다。브라질이 세계 총생산의 20%를 차지하며 그다음이 포르투갈、에콰도르의 순서다。수입은 미국이 제일 많고 이어서 일본、西獨、프랑스이다。미국、일본에선 1인당 소비량이 한해 10kg 정도에 이른다。아동 딸의얼굴을 머리에떠올리면서 바나나한개를 살까말까 망설여야하는 우리들처지로는 부럽기 그지없는얘기다。▼시중에 나돈는 바나나가 몽땅불법유출품이라는 소식도 한심하지만 유출품의값이 7배나된다는것은 정말 알다가 모를일。조그만일이라도 모든것을 정상화하는것이 중요할것같다。바나나를 불법품이 아니면 한개도 사먹지 못하는것도 뭣인가 잘못되어있는듯하다。국산과일을 많이 먹고 사치스런 바나나는 먹지말아야 되겠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값싼 바나나를 한개씩이나마 사줄수있는 여유쯤 있어야되지 않을까。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전교포 화목의밤
댄스파티
일자 : 1982년 5월22일 (토요일 저녁)
시간 : 7 : 30∼9 : 00—저녁식사
9 : 00∼1 : 00—댄스
장소 : CONSTELLATION HOTEL(BALL ROOM)
900 DIXON RD. (AIR PORT 지역)
입장권및 점식 : 1인당 $25.00(좌석이 제한되어 있으니 표를 일찍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표판매처 : 각 한인식품점
복장규정 : 남—정장(신사복과 넥타이)
여—양장 혹은 우아한 한복
시 상 : 우수한 댄서 3쌍 선정 시상과 약간명의 행운상이 있음.
연 락 처 : MR. 박 ☎ : 661—1523 (5시 이후)
※경쾌한 라틴음악(우리 노래도 포함)과 쌓였던 잡념을 씻고 하루저녁을 마음껏 즐겨 보십시요!
박희원과 그의악단
(6인조 라틴캄보밴드)

여사무원 급모
모집인원 : 약간명
자 격 : 캐나다에 5년이상 거주한자로써 영어능통하고 영문타자에 능숙한자. (미시사가거주자 환영)
※희망자는 5월21일전에 (312)271—2757로 시카코시간으로 오후6시부터 8시사이에 콜렉트·콜로 전화주시기 바람. (근무처 : 미시사가지역)
EAST WEST MARKETS EXCHANGE
(운동구사 캐나다지사)

張女人사건에 얽힌 金融波動의 內幕

「李哲熙·張玲子부부 사건」은 정치·경제·사회 각분야에 충격을 주었으며 그 波高는 자못거세게 일고있다. 이번사건은 그동안 비틀어진 경제·금융·의식구조등이 곪아 터졌다는 점에서 기자들의 긴급방담을 통해 원인과 문제점, 정부와 업계에 미친 영향등을 알아본다.

經濟界 뒤흔든 私債 회오리

國民疑惑커지자 수사擴大 결정

「地下經濟마비」부작용우려 신중

經濟·社會部 "" "" 긴급放談

—검찰이 11일 급작스레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된것은 시중에 난무하고 있는 루머를 진정시키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자는데 의도가 있는 것같더군.

—그래, 검찰이 지난 7일 李씨부부를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만 구속하자 실제로 금융가나 사채시장, 기업등에 파문을 일으킨 어음파동부분은 덮어둔「모호수사」가 아니냐는 의문과 비난이 파다했었으니까.

—검찰의 한고위간부도 이점을 의식했음인지 지난번 발표가 잘못된것이다고 솔직이 털어놓더군. 당초엔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만 구속하고 수사는 종결하겠다고 흘렸었으니까 말야.

—그런데 검찰이 정말 수사를 종결하려고했다가 여론을 의식, 추가수사를 재개했는지 또는 수사는 사실상 계속하면서도 보안상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것처럼 흘린것인지는 분명치않아.

—아니야. 책임있는 검찰간부가 李씨부부의 어음유통행위가 사기죄가되지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었고 이번 발표전날 검사3명을 수사팀에 보강시킨것으로보아 덮어두려던 부분에대해 수사를 재개했다고 보는편이 옳을거야.

—검찰이 수사확대를 주저한것은 관련된 사채업자나 은행관계자들이 소환되고 하는경우 그렇지않아도 위축된 사채시장이 동결되고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을 감안했기 때문이야.

—결국 여론이 비등하자 비록 수사확대로 사채시장을 비롯, 금융계 건설업계등 관련업계에 약간의 위축을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더낫다는 판단을 한것 같더군.

—이번사건처리가 국민으로부터 납득을 받지못하면 지금까지 구정권에 대한 각종비리와 부정을 바로잡으려는 새정부의 이미지에 큰손상을 줄것이 뻔하므로 분명히 흑백을 가려야한다는 民正黨의 강력한 의견제시가 있었다는 후문도 나돌고있잖아.

—고위층의『밝힐수있는데까지 소상히 밝히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있고….

—수사확대야 여러가지 요인으로결정됐겠지만 11일 중간결과라도 발표하게된것은 전날 중앙청후생관에서 총리주재로 열린「張여인 사건긴급대책회의」에서 결정됐다는거야.

—이날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에 鄭致根 검찰총장도 참석한후 돌아와 하오 늦게「11일발표」를 밝혔었어.

—이때문에 수사실무를 맡은 사람들은 약간 난감한 표정이더군. 수사팀장인 成敏慶부장검사도『일주일은 더해야할텐데…』하며 말끝을 흐리더군.

—구태여「중간수사결과 발표」라고 한이유가 이해가 가잖아. 아뭏든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점도있지만 그보다는 더 밝혀야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은닉재산도 분명히 있을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거야.

—그런데 현재 드러난 재산은 제주도에 있다는 몇십만평의 농장과 워커힐뒤편의 별장, 유드호스텔등 1백70억원정도에 불과해. 검찰은 계속해서 돈의 행방을 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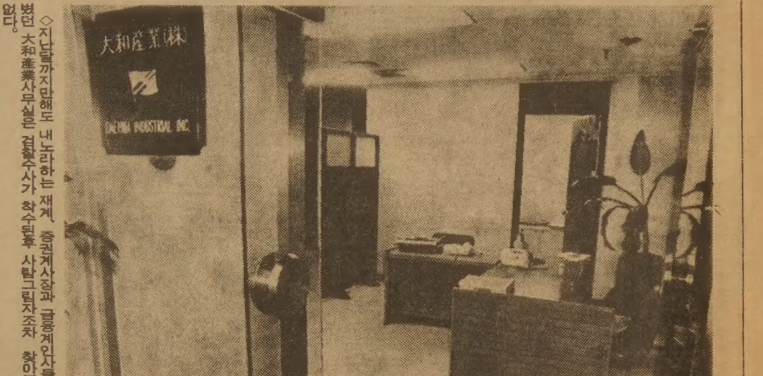
재무부나 은행감독원 쪽에서 조사해 발표해야할부분까지 검찰이 떠맡은데 대한 곤혹감도 엿볼수있고….

—검찰이 형사문제외에도 국민들이 의혹을 품고있는 부분까지 밝혀내 발표했으므로 오히려 검찰로서는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

—검찰이 張여인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사채시장이나 금융기관의 부조리에 대해 수사도 풀어야할 한계를 놓해서 속시원히 밝혀줘야 국민들은 납득할수 있을거야.

—원래 재무부에서 발표하려던 침이 검찰발표로 바뀐것은 어차피 13일에 국회재무위가 열리므로 재무부는 이자리를빌어 밝힐것은 밝히고 그 이전의 시중에 떠도는 의혹을 진정시키기위해 부랴부랴 검찰이 발표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더군. 발표전날일 10일과 11일상오에 걸쳐 검찰은 재무부와 서로 조사한 내용을 비교검토해보고 발표문안을 다듬은 모양이더군.

—이사건의 수사가 시작된것은 언제쯤였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검찰의수사착수는 지난달 26일께 였어. 대검공안부



◇지난달까지만해도 내노라하는 재계, 증권계사장과 금융계인사들로 붐볐던 大和産業사무실은 검찰수사가 착수된후 사람그림자조차 찾아볼수가 없다.

新興재벌만 골라 魔手뻗혀

관계部處선"金融구조에 문제점"自省도

26일부터 수사着手…액수맞추기에 진땀

메아리

傳統 生活文化

法定관리란 어떤것인가

會社가 파탄직면때 法院이 관리인選任 모든 業務맡아

채무자 債權결재등 모두凍結

기업의 경영이 부실해져 그대로 두었다가는 파탄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됐을때 일반적으로 취할수 있는 구제조치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회사정리법에 근거를 둔 法定管理와 금융기관 임시조치법에 근거가 있는 임의관리, 그리고 법적근거는 없으나 금융단협정등에 토대를 둔 銀行監理등이 바로 그것이다.

共榮土建

56年설립2~3年새 급성장

中東등서 거액 海外受注도

日新제강

社力20年 3개系列企業도

무리한事業확장이 禍根돼

外信 얼레빗

路物받은紙幣 꿀꺽

海外토픽

로잔스키 美서結婚

核戰대비 遺物보존

波, 反政시위관련 2천여명 체포

한국일보

STATEMENT FROM TORONTO AREA PRESBYTERY
O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This is publicly to declare that the Korean Emmanuel United Church Congregational Meeting held May 2nd and advertised in this newspaper May 5th was **NOT LEGAL** according to Sections 58 & 171 (h) of the United Church Manual.

Certain members of this congregation, together with Pastor Howard Cho, have chosen to separate from it. But the Korean Emmanuel United Church is continuing to worship under the due authority of this Presbytery. The Service of Worship is held at 2 : 30 p. m. on Sundays at Armour Heights United Church and Korean Christians would be most welcome.

Signed Presbytery
Commission

The Reverend Don. Reed
The Reverend Ken Purdon
The Reverend W. E. Stanford

연합교회 노회 공고문

지난 5월2일에 모였고 또 5월5일 신문에 공고된 임마누엘 연합교회 공동의회는 노회법 58조와 171조(H)에 의거 불법임을 선언 합니다.

조창환 목사를 따라 일부 교인들이 임마누엘 연합교회를 떠났읍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연합교회는 종전대로 노회의 합법적인 교단으로 예배를 보고 있읍니다. 예배시간은 주일 오후 2시30분에 같은 장소인 아모하이트 연합교회 에서 예배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환영 합니다.

노회 특별위원

Don Reed 목사
Ken. Purdon 목사
W. Stanford 목사 서명

英, 포群島상륙 임박說

아르헨軍거점 猛砲擊 봉쇄強化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10日AP·UPI=聯】포클랜드(말비나스)전에 나서고있는 영국기동함대는 9일에 이어 10일 연이틀째 포클랜드주둔 아르헨티나군거점을 맹포격, 포클랜드일대에대한 봉쇄를 강화하는한편 기동함대의 일부 함정을 포클랜드근접해역으로 이동시키는등 포클랜드 상륙을위한 마지막 준비작업을벌이고 있는것으로 보도됐다.

英기동함대에 승선중인 영국PA통신 특파원은 기동함대의 일부 프리카트함과 구축함이 포클랜드 최근해까지 접근, 육안봉쇄를 펴는한편 포클랜드주둔 아르헨티나군의 거점과 헤이다기지등에대해 4·5인치함포를 9일에 이어 연이틀째 포격을 퍼부었다고 보도했다.

PA통신은 영국함대의 포클랜드접근이 아르헨티나군에 지속적인 봉쇄를 가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날 포클랜드포격은『마지막상륙에 앞선 준비과정』으로 보여진다고 논평했다.

소식통은 또 약1백명의영국특전대가 포클랜드에 상당기간 머무르면서 아르헨티나주둔부대가 주둔중인 동포클랜드의 핵심목표물을 선정해왔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또 영국본토와 포클랜드를 잇는 중간기지인 아센션도 공항주변 1백해리이내의 공역에 공동통제구역을 설정하고 군수송기를 급유기로 개조하는등 기동함대에 대한 공중지원을 본격화했다.

라이베리아元首 陸士시찰

서울大서 名博·前方부대 시찰도

라이베리아의 새뮤얼·카논·도국가원수는 訪韓 3일째인 11일 상오 서울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받은뒤 육군사관학교를 시찰했다.

도원수는 陸士시찰을 마친뒤 泰陵그린하우스에서 陸士교장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했으며 이어 이날 하오에는 前方의 군부대를 시찰했다.

도원수는 또 이날저녁 경제4단체가 新羅호텔에서공동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도원수는 12일 상오 浦項제철을 시찰하며 13일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발표한뒤 離韓한다.

IPI總會 개막

【마드리드=聯】국제 신문인협회(IPI)제31차총회가 10일상오11시(한국시간 하오6시) 한국을비롯한 자유세계43개국의 중진언론인 4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마드리드시근교의 에스꼬리알 고궁에서 환·카를로스국왕사회로 개막됐다. 소피아왕비와함께 개회식에 참석한 카를로스국왕은 개회사에서『언론은 국민들의 감정과 양심의 메아리』라고 말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교환이그요체라고강조했다.

한편 이날하오 마드리드시내 유로빌딩호텔에서 속개된 31차 IPI총회에서는 6명의 IPI이사선거에서 東亞日報의 金相万 명예회장을 임기4년의 IPI이사로 재선했다.

오는13일까지 속개되는 이번총회에서는 기자의 자격허가문제 자유사회에서의 정부와 언론의관계, 언론의 소유관리및 편집문제 그리고 남북대화문제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10일하오 스페인의 마드리드 에어로 호텔에서 열린 제31차 IPI총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 ⓐ로부터 한국일보 張康在회장 文胎甲서울신문사장 李鍾基 中央日報사장. 【마드리드10日聯=聯】

나의 이력서

金蘇東 (42) (映 · 字 金蘇東)

會社設立 부사장에

軍需공장 朝鮮電工상대 갖가지 中古品사서納品

조선전공은 화신 건너편에 있는 한청빌딩을 80만원에 매입, 정식으로 출범했다. 시라하다(白畑)가 사장이었고 공학박사 오까자와·쓰루지(岡澤鶴治)가 기술을 지휘하는 총수였다. 오까자와는 당시 일본의 경제계를 지배하던 아지노모도(味の素)회사의 사장 스즈끼(鈴木)란 분이 막대한 연구비를 제공해서 알루미늄생산방식을 신한 입지적인 인물이다. 후일 이들과는 상당한 친교를 맺고 사업을 운영했으나 당시 이러한 일본실업계의 거물들과 접촉하기에는 내 힘과 실력이 모자랐던것도 사실이다.

이무렵 혜성과같이 나타난사람이 신다니(新谷虎重)라는 일본인이다. 그는 일본四國에서 활약하던 언론인으로 나보다는 5세가 위였다. 그는 호탕하고 집념이 강한 오야붕(親分)타이프의 인물이다. 그와알게된이래 1945년8월15일까지 고락을같이하면서 나는 일시 한국의隣國人이된 셈이다. 내가 경영하던 기계공구상의 재고품을모조리 조선전공에 팔아넘기고 조선전공에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신다니가 사장이되고 내가 부사장이되었다.

조선전공은 진남포에 수백만평의 부지를사들이고알루미늄공장건설을 서둘렀다. 상황만도에 무진장으로 쌓인 알루미늄 원료 반토혈암(礬土頁岩)을 진남포로수송해서 전해에 필요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것이임무였다.

비행기를 만드는 알루미늄의생산은 당시 일본의 생명을 좌우하는일이기도 했다. 물자는 극도로 모자랐고 태평양전쟁은 날이 갈수록 급박해졌다. 일본국의 군수공장건설에 물자를 공급하는것은 일견 매국적인 행위같이도 생각된다. 그러나 내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다. 패배의 징조는 뻔히 보이는 일이고, 그 거대한 공장건설은 쉽게 진행되지 않을것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모든 물자가 철저하게 바닥이 난 시대인지라 물자라고 이름붙은것은 무엇이든지 사들이는 판이다. 함남 차호에 가서 일본부자의 정어리깡통공장의 탱카사분이라도 사고, 목포에 있는 화력발전소 바브코크·보일러도 매입했다. 드럼통도 사들였고 심지어는 약품, 신발류도 납품했다. 나는 폐재를 부르면서 조선전공의 수표를 받곤했다.

내 실력이 시라하다의 인정을 받았고 신용도 높이 평가됐다. 우리가 운영하는 新谷산업은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중 시라하다는 나에게 다량의 목재납품을 제의했다. 이제의를 응낙한 나는 곧 평양으로 뛰었다. 거기에는 한일합방직후부터 매년 36만주의 낙엽송을 식목해온 西鮮造林회사가 있었다. 아까바네(赤羽)라는 사장과 교섭해서 80만원(현재의 15억원정도)에 매입키로 약속하고 조선전공으로 돌아왔다. 시라하다에게 전말을 상의하고 목재선금으로 1백만원을 받아냈다.

영화를 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일을 했겠느냐고 의심하는분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때 나는 확실히 한국의 小國民이 된것이다.

이로부터 1백만여평의 사인작 봉학, 자성부근의 넓은지역에 36년생 낙엽송 1천여만주를 소유한 서선조림회사의 주인이 되었다. 평양, 미네(三根)여관뒤에 있는 우오만(魚萬)이라는 3층 일본요정을 9만원에 매입해서 평양사무소로 썼다.

평양사무소에는 내 아우 金德日(영화감독, 『그여자의 일생』, 『여성의 적』 『진리의 밤』 『길잃은 사람들』 『내가 낳은 검둥이』등을 감독, 작고)과 영화배우 趙寬, 그리고 일본인사원 구도(工藤)라는 사람을 두고 진남포에도 영업소를 설치했다. 舍人場에도 사무실을 두었다.

당시 한반도에는 창씨개명이 강행되었고 대학생과 대학생을 가진 한국가정은 전전긍긍하던 시대다. 많은 한국인대학생들이 학병으로 끌려갔다. 현 서울대학교총장 權彝赫과 내아우 金德日은 경기고동학교의 동기동창이며 내10년후배들이다. 징집영장을 받은 권군이 당황해서 내집으로 달려왔다. 나는 그날밤으로 권군을 평양에있는 아우에게 보냈다.

아우는 권군을 趙寬과 함께 [illegible]에 있는 숯굽는 초막으로 은신시켰다. 그는 여기에서 오랫동안 숨어지내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日帝말 필자와함께 新谷산업을 경영했던 日人 新谷虎重씨ⓐ가 내한했을때. 가운데는 필자의 처.

流星의 賊 <380>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고독한 英雄 (36)

명천현의 사노(寺奴) 정말수가 현성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비롯해서 경성관노 귀서과 성인손이 우후 이범을 갈아 적진에 투항한 사건이 있었다.

이어 경성관노 국세필과 회령의 토관진무(土官鎭撫) 국경인(鞠景仁)이 두 왕자를 포박하여 가등청정에게 갖다 바친 엄청난 일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온성부 품관(穩城府品官) 김신(金信)등이 부사(府使)인 이수(李洙)를 잡아주며 적병에 투항한 사실도 있었다.

국경인으로 말하면 원래 전주인(全州人)이었는데 죄를 얻어 회령에 귀양살이를하고 있었다. 귀양살이로 부의 아전이 되었는데 조정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었던 모양으로 가등청정군이 회령에 다다르자 그의 일족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 아까 말한대로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 두 왕자와 김귀영, 황정욱 부자등 배신들을 모두 포박한 다음 가등청정에게 갖다 바쳤던 것이다.

가등청정은 그 공로가 대단하다고하여 후일 크게 논공행상할 것을 약속하고 우선 회령은 너의 영토나 마찬가지니 그리 알라고 했다. 국경인은 자기 세상을 만난듯 기뻐하며 기고만장 했다.

이윽고 가등청정이 작전상 길주 이남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때 가등청정이 국경인에게 일렀다.

『이곳은 지금도 네땅이려니와 장차도 네땅이다. 그러니 굳게 이곳을 지키고 있거라. 후일 마땅한 논공행상이 있을것이니라』

국경인은 그의 일족을 기간으로하여 그밖에 반민(叛民)들과 합세하여 회령을 지킬 작전을 세웠다. 그런데 회령의하생 오윤적과 회령의 품관 신세준이 협력하여 근왕의 군사를 모집하고 국경인 일당을 사살하고 그머리를 의병대장 정문부에게 바쳤다.

이를 나는 우리역사상 가장 추악한 반역사례(叛逆事例)로 안다.

한편 경성으로 도망친 한극성은 호지(胡地)로 들어갔으나 그곳의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다시 경원으로 돌아가서 바다로 도망치려다가 경흥땅의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등청정의 손으로 넘어갔다. 가등청정과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청정은 그를 양주에서 풀어주었다. 한극성자신의 말론 탈출했다는 것이었으나 행재소에 왔을 때 조정은 그를 적과 내통한 놈으로 보고 사형에 처했다.

감사 유영립도 반민들에게 붙들려 적의 손으로 넘겨지려는 직전 감시의 눈을 피해 간신히 도망쳤다. 남병사 이혼은 갑산에서 숨어 있다가 반민들에게 붙들려 이윽고 반민들 손에 맞아 죽었다. 반민들은 이혼의 머리를 잘라 적군에게 보냈다.

갑산 사람들이 부자를 죽이고 적에게 항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조정에선 후임 부사로 임순을 보냈다. 임순은 반민 20여명을 죽여 겨우 그곳을 평정했다. 감사 유영립을 파직하고 후임에 윤탁연이 앉았는데 그는 적을 피하여 삼수에 가서 숨었다.

아뭏든 이 무렵 함경남북도는 반민들이 휩쓰는 바 되었다. 강원도에서 경흥까지의 연도엔 5리마다에『이[illegible]이 되고 김성일이 장(將)이 되었다』고 써붙인 푯말이 늘어서고『왜적에 항복하면 죽지 않는다』는 풍문이 돌아 인심은 매우 흉흉했다.

한국일보 533-2361

주간女性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08>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明暗 (42)

인재는 그제서야 가슴이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의 수지를 보고싶은 일편단심과그가 이해할수없는곤경에서 그녀를 구해내고싶은 용맹심이 한낱 치한취급이었다. 딴사람도 아닌 수지로부터.

예감중 배신의 예감처럼섬뜩한게 또 있을까? 인재는 그가 앞으로 견디어야할 배신의 고통에다 대면 지금까지의 굴욕과 외로움은 아무것도 아닌것같은 예감에 소스라쳤다.

인재가 그걸 바랐기때문인지 수지는 그동안 약간 수척해진듯도 했지만 더 예뻐지고 더 거만해져 있었다.

『고작 그 소리밖에 할게 없니?그동안 내가 널 얼마나 찾아 해맸다고!』

『그건 나도 알아』

『알면서 어떻게 그런소리를 하니?』

인재가 눈물이라도 흘릴것처럼 비굴하게 말했다.

『자긴 너무 별 몰라』

수지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말씨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을 통해 읽을수있는 건 아직도 사람이 아니라 연민이었다.

『그래 난 아무것도 몰라. 도대체 느네진 진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무슨 수로 아니?그래서 더 더욱 미친 개처럼 쏘다닌 거야. 네가 그걸 좀 가르쳐주면 안되니.너까지 날 따돌리고 그괴롭단지들 편이돼야 옳으냐말야?』

『아직도 가르쳐줄 단계가 아냐. 나도 괴로와』

그녀의 괴로와하는 표정은 너무도 빤하게 가식적이었다. 인재는 자기가 괴로와한 수많은 날들을 생각하고 따귀라도 한대 때리고싶은 손등을 가까스로 억제했다.

『알았다. 이제야 알겠다. 너 선 봤다는 거 정말이구나?』

『왜 난 선좀 보면 안되나?』

『묻는 말에나 대답하라니까』

『날 죄인 다루듯 다달질 하지마. 나 자기한테 죄진거 없어』

『그럼 선 안봤단 얘기니?』

『좋아하지마. 봤어. 실없이 날 선 봤어. 식구들이 날 과년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렇지만 내 뜻은 아니었어』

『어떤 놈이야?』

『왜 대판 놈자를 봐? 별꼴이야』

『그 놈하고 그 동안 쏘다니느라 날 따돌렸다 이거지?』

『여봐. 그렇게 무작정 감정적으로만 나오면 곤란해. 자기도 자존심을 좀 가져』

『나더러 자존심을 가지라구? 맙소사 자존심이 어떻게 생긴 건진 모르지만 밸을 빼놓고 대신 얻어갖는게 자존심이라던?』

인재가 흥분할수록 수지의 표정은 침착하고 단아하게 굳어졌다.

『자긴 한번이라도 내 나이가 몇인지 헤아려본 적 있어?』

『우리의 사귐이 얼마나 오래 되었나를 되새겨보는 뜻으로 그런 적도 있지』

『부모님이 계셨으면 아마 더 여러번 선을 봤을거야. 안계셔서 아직 한번이지』

『그렇지만 내가 있는데 어떻게 선을 볼수가 있니?』

『흥, 자기가 뭔데? 나하고 약혼이라도 했어. 우린 구체적으로 장래를 의논한 적조차 없었잖아』

수지가 말끄러미 인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얘기없이 환담한 눈빛이었다.

노년층을 위한 온타리오주 세금 보조금

82년도분으로 최고 $310가 지급됐다.

노년층을 위한 온타리오세금보조금은 65세이상의 노년층 주민들을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 국세청은 5월10일 모든 대상자에게 1분기(6개월)재산세 보조금 최고 $250과 연료보조금 $60, 합계 $310 우송했다.

누가 이 보조금을 받나?

■65세(포함)이상의 노인으로서 집을 소유했거나 렌트했으면 재산세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81년에 재산세보조금을 받았던 모든 온타리오주 노인들에게 82년도분을 우송했다.
■이 보조금은 82년 1기분 재산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이번 가을 2기분에도 자동적으로 이 보조금($250)을 받게된다.

누가 이 보조금을받받지 못하나?

81년도 재산세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번에도 우송 안됐다.
■양노원이나 재산세면제대상의 건물에서 살고있는 노년층은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81년12월31일 이후 65세가 된 사람을 1분기 보조금은 받지 못 했으나 가을전에 신청서가 우송되고 2분기에 전액 지급된다.

임시 연료보조금이란?

금년에는 상승하는 연료비보조금으로 $60가 노인들의 재산세 보조에 추가됐다. 예를 들어 81년에 $480의 재산세보조금을 받는분은 82년도 1분기 $240과 연료보조비 $60를 합해 $300을 받았을 것이다.

문의사항 전화

■ In Metro Toronto— dial 965-8470
■ In Area Code 807— ask the Operator for Zenith 8-2000
■ In all other areas— dial 1-800-268-7121

또는 우편으로

Ministry of Revenue, Guaranteed Income and Tax Credit Branch, Queen's Park, Toronto, Ontario. M7A 2B3

Ontario Ministry of Revenue
George Ashe Minister
T.M. Russell Deputy Minister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82. 세계복음운동 토론토집회

철인 파스칼은 인생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읍니다. 저마다 성격이 있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인생들은 주님을 떠난 방랑자가 되었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자신을 찾아 모든 악순환으로 바뀌야 하겠읍니다.

세계복음운동 토론토지회 김선운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셔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제 :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요한복음 6장68절)
강 사 : 목사 김선운(Ph.D)
일 시 : 5월21일(금)~23일(주일) 매일 저녁7시30분
장 소 : 벧엘교회당(401HWY와YONGE 동남쪽코너)
395 OLD YONGE ST.
주 최 : 세계복음운동 토론토 지회
THE GOSPEL TO THE WORLD INC.
TEL : 221-1382(교회) 496-2967, 431-7391
후 원 : 교육자협의회

《강사소개》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졸업. 미국 체스남리및 규니드대학교종교철학교수 역임. 필라델피아북부한인교회담임목사. 세계복음 운동 회장.

새로나왔읍니다!

Digital Excellence DX

DIGITAL EXCELLENCE

ORGAN계의 새로운 혁명!…

TOTAL DIGITAL CONTROL DX SERIES…

서울市廳·法院청사등 江南이전 전면 白紙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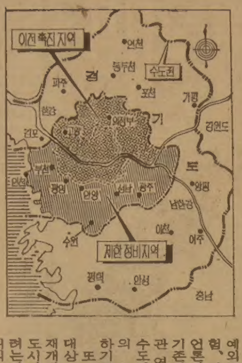
수도권 公共청사·大學·大型빌딩 新·增築도 금지

인구집중 抑制계획안 確定

再開發 해당지역은 例外로

서울시청과 법원청사의 강남 이전계획이 전면백지화 됐다.

이같은 결정은 정부가 10일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인구집중억제를 위한「수도권내 공공청사및 대규모건축물 규제계획」을 확정함에따라 밝혀진것이다. 이밖에도 서울과 仁川직할시、경기도 행정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등 공공청사의 신축및증축이 전면금지되며 서울시행정수도권 내에서는 대학、전문대학등 교육시설과 민간대형빌딩에 대해서도 신·증축을 일체못하도록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이날자로 서울、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행정구역 일원을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지정하는한편 차등규제를위해 서울、議政府등 2개시 3개군 각일부는 이전촉진지역으로、仁川、水原、城南、安養、富川、光明등 6개市、6개군 각일부는 제한정비지역으로 각각고시했다.

이번 규제조치로 서울행정구역과 그 이북인 議政府市까지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는 대학、전문대학의 신·증축과 민간건축물로서 높이 21층이상인 대형사무실용 빌딩이나 높이11층이상의 백화점、쇼핑센터등 판매시설용 빌딩의 신·증축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고교의 신설및 신·증축도 서울도심8㎞이내(통상 4대문안)에서는 금지됐으며 서울江北지역에서의 사설강습소(학원) 신·증축도 불허된다.

그러나 고교의경우 지난 77년이후 서울江北전역을 대상으로 신규허가를 전면 금지해오던것에 비해 도심8㎞ 바깥지역에서는 신설이나신·증축이 허용되게된것은 다소 정책이 완화된것.

한편 정부는 이번규제조치에서 洞사무소、우체국、파출소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지역단위기관청사는 예외로하고 이밖에 금융、보험、증권、무역、체육、관광、언론기관이나 교육시설로서 기존정원의 범위안에서 도서관 연구시설등의 신·증축은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거쳐 허용을 검토하기로했다.

또 이전촉진지역내의 규제대상 대형민간건축물이 도시재개발、특정지구정비계획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건축하려는경우도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때는 허용해주기로 예외규정을 두었다.

규제대상지역과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대상지역▲정부청사및 공공청사=서울、仁川직할시및 경기도 전역 ▲교육시설및 민간 대형건물=수도권 8개市、9개郡을〈이전촉진지역〉과〈제한 정비 지역〉〈기타 경기도지역〉으로 구분、차등규제.

◇규제내용▲정부청사=행정、입법、사법부 각기관및 지방자치단체청사의 신·증축을 일체 금지한다. 다만 洞사무소、파출소등 소규모지역단위 기관은 예외로하고 본부·본청의 차하(次下)급 지역단위기관은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군용청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공공청사=①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본사사옥 ②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法人의 본사사옥 ③국유재산 현물출자에관한 법률에의한 정부출자기업체본사사옥 ④기타법률에의해 정부지원을 받은 法人청사의 신·증축은 전면금지. 다만 금융、보험、증권、무역、관광、체육、언론、통신기관은 수도권문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 허용할수있다.

▲교육시설=이전촉진지역내에는 대학、전문대학의 신·증축금지. 서울도심8㎞이내 고교신설및 신·증축금지. 서울江北지역 사설강습소 신·증축금지.

▲민간대형빌딩=이전촉진지역내에서 사무소용 건물로 21층이상의 신·증축이나 판매시설용 건물로 11층이상의 신·증축은 금지. 다만 도시재개발계획、도시설계、특정가로정비계획에의한 건물은 수도권문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허용가능.

▲제한정비지역내규제=이전촉진지역내에서 금지된 교육시설로서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을받을때 선별허용.

이전촉진지역내에서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교육시설은 자동허용、민간대형건물은 자동허용。

間諜자수 期間한달 2천5백93件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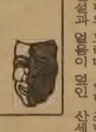
문공부는 11일 지난1개월간에 걸친 간첩자수및 신고강조기간이 끝남에따른 성명을 발표、『정부는 앞으로도 일시적 잘못을 뉘우치고 당국에 자수하는 자에게는 계속 관용을 베풀어 과거의 죄를 일체 벌하지않고 생활정착금 지급과 직장을 알선、안정된 새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는한편 간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금을 지급하는등 적극 보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공부는 이 성명에서『지난 4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1개월동안 2천5백93건의 신고가 당국에 접수되어 對共수사에 크게 기여했을뿐아니라 북괴의 간첩침투와 고정간첩 불순분자들의 준동을 사전에 견제저지하는데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鐵의 여성」 람중히말峰 정복한 奇亭禱양

수영·力道로 단련…「여성上位」과시

신장1m57㎝、몸무게42㎏、깜찍스런 얼굴、바람에 날려갈듯 가냘픈 그녀의 어디에서 그런 엄청난힘이 솟구치고 있는것인가。鮮京여자산악회 람중히말 원정대의부대장 奇亭禱양(26·사진)。지난6일 히말라야의 거봉 람중히말(높이6천9백86m)을 정복한 鐵의여성이다。



奇양이 람중히말의 정상에 섰다는 뉴스가 처음 外信을 탔을때 그것은 高相敦씨의 에베레스트 정복과는 또다른 반응을 가져왔다。

초인적인 인내와 투지로 점철된 히말라야등반의 드라마、숱한 조난사고、만년설과 얼음이 덮인 산세의 위용을기억하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등산전문가들에게는 하나의 놀람이었다。

그러나 따지고보면「놀람」도「충격」도 아니었다。그녀가 쌓아온 피눈물나는 훈련과정을 안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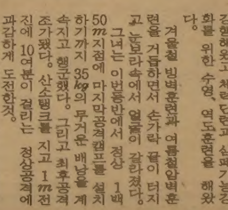
奇양이 히말라야등반을목표로 훈련을시작한것은 3년전인 지난79년초。

국내에서는 제일 높은 한라산을 몇차례올랐고 출국전에는 2개월에걸쳐 한국등산학교에서 강훈을했다。

매일새벽5시 기상、로프워크를 강행해왔고 체력단련과 심폐기능강화를 위한 수영、역도훈련을 해왔다。

겨울철 빙벽훈련과 여름철암벽훈련을 거듭하면서 손가락 끝이 터지고 눈보라속에서 얼굴이 갈라졌다。

그녀는 이번등반에서 정상 1백50m지점에 마지막공격캠프를 설치하기까지 35㎏의 무거운 배낭을 계속지고 행군했다。그리고 최후공격조가됐다。산소탱크를 지고 1m전진에 10여분이 걸리는 정상공격에 과감하게 도전한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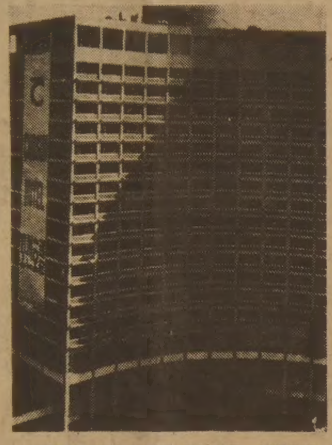
주산1급·부기1급의 서울여상출신。경력6년의 경리부사원 이기도한 그녀는 수영、역도훈련을 해왔다。

지난해10월 람중히말현지정찰을 떠날때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었던 3백만원을 털었을 정도로 집념이 대단했다。

이번 등반길에 한복과 화장품까지 배낭속에 챙겨 넣고갔다는 奇양。그녀의 위업은「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낫다」는 스포츠에서의「여성상위」를 다시한번 과시한게 아닐까。【姜秉泰기자】

조선호텔이 팔린다

관광공사持分 60%…3백億추정



◇한국측 주인이 바뀔 유서깊은 朝鮮호텔。이번에 팔기로 내놓은것은 60%의 주식지분과 부지3천3백여평이다。

朝鮮호텔이 공매에 붙여진다。국제관광공사는 11일 이 호텔의 주식지분 60%와 호텔부지 3천3백48평을 모두 매각하기로하고 구체적인 공개입찰절차를 밟고 있다。

관광공사가 팔기로 결정한 지분과 땅값은 81년 인근지역에 대한 감정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할때 줄잡아 3백억원이 훨씬 웃돌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조선호텔은 지난70년 미국의 웨스턴·인터내셔널 호텔체인과、50대50으로 투자하고 주식지분은 관광공사측이 60% 소유하는대신 웨스턴·인터내셔널이 40%를 소유하는 한편 경영권을 25년간 갖기로하고 개관했었다。

이번에 팔 호텔의 부지는 모두 관광공사의소유로 당초 호텔측으로부터 연간 임대료 21만달러 (약1억4천만원)를 받아왔다。

한편 국제관광공사는 이밖에도 뉴설악호텔·금오산관광호텔·내장산호텔등 소유재산을 모두 매각할 방침이며 이미 지난4월 慶州 朝鮮호텔·朝鮮비치호텔·보문컨트리클럽의 소유지분을 라이프주택에 1백64억3천만원에 매각했었다。

관광공사의 이같은 소유재산매각처분은 궤도에오른 관광시설을 민간에 넘겨 운영토록하고 거기서 얻은 예산을 中文단지를 비롯한 새로운관광개발에 투자하기위한 조치다。

한국貨物船 충돌 日船과…선원無事

【東京=聯】한국선적화물선 101 삼양호(3백88톤)가 11일새벽 1시15분께 일본규우슈우(九州)와 시고꾸(四國)사이의 분고해협에서 일본화물선 제28 류마루호(6백88톤)와 충돌、침몰했으나 승무원10명은모두6시간만인 상오7시30분께구조됐다。

일본「오오이따」해상보안본부에 의하면 이날 충돌사고는 짙은 안개로 류마루호 선수가 삼양호의 좌현을 들이받아 발생했으며 고무보트를 타고 표류중이던 삼양호 승무원은 사고현장에서 15㎞ 떨어진 해상에서 시멘트탱커에 의해 구조되었다。

北傀등에 被拉가능성없어

행방불명된 同求씨…방랑벽인듯

【워싱턴10日=聯】미국서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진 尹潽善전 대통령의 차남同求씨(30)에 대한 소재수사요청은 아직 尹씨에의해 공식적으로 미정부에 전달되지는 않은것으로 보이나 지난4월이래 비공식적인 수사는 진행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柳炳賢駐美대사는 尹씨로부터 同求씨에 대한 소재수사요청을 받은바 없었고 따라서 미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이문제에대한 언급을회피했다。

그러나 한국대사관의 한관리는 同求씨에 대한 소재수사요청이 비공식적으로 FBI에 전달됐다고 밝히고 FBI가 현재 비공식적으로同求씨의 소재수사를 벌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同求씨가 범죄조직이나 북괴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은없다고 말했다。

그는 同求씨가 방랑벽이 있어 예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몇달씩 모습을 감춘 적이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同求씨가 이번에도 미국어딘가에살고있음이 분명하다고말했다。

미스코리아候補들 前方방문

美女49명 將兵들과하루보내

82미스코리아본선에 참가할 국내외 미녀49명이 11일 한국일보社 자매부대인 서부전선○○부대를 방문、국군장병들을 위문했다。

이날 張在九본사사장의 인솔로 전방에 도착한 미의사절들은 본사 權赫昇편집이사、裵成煥업무이사와함께 땅굴을 돌아본뒤 장병들과만나 한국일보社가 마련한 컬러TV 2대、시계10개、자전거5대、주간한국、주간여성、각5백부등 푸짐한 선물을 전달했다。

이어 미녀들은 미스코리아 기념메달 6백개를 장병들에게 일일히 달아주고 모범사병들과함께 기념촬영도 가졌으며 개그맨 李洪烈군의 사회로 인기가수 桂銀淑양등 7명이 노래를 부르는가운데 2시간동안 장병들과 춤도 함께 추었다。

◇자매부대를 방문한 미녀들이 준비해간 기념메달을 장병들의 가슴에 달아주고 같이 어울려 기념촬영을 하는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다방만골라强盜 상습범拘束

【浦項】경북 浦項경찰서는 11일 야간에 시내 다방만을 골라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도·강간등 범죄를 저질러온 許龍珠씨(27·경북迎日郡九龍浦邑九龍浦里297)를 특수강도·강간·야간주거침입·절도등 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許씨는 지난 7월10일 새벽3시께 浦項市新興洞 모다방에 흉기를들고 침입해 자고있던 종업원 金모양(27·大邱市南區

38만원상당)와 현금 8천원을 빼아 달아난것을 비롯해、지난8일까지 시내다방을 무대로 강도및 강간5회、특수강도 3회、야간주거침입 절도 1회등 9회에 걸쳐 모두 3백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는것。【聯】

5월15일을 스승의 날로

국무회의議決

국무회의는 11일하오 각종 기념일등에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스승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키위해 5월15일을「스승의날」로 정하도록했다。

또 이개정안에 규정이포함되지않은 기념행사를 시행할경우 지금까지 국무회의의심의를 받던것을 총무처장관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보고만으로 시행할수있도록 조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軍人事法시행령개정안을 고쳐 旅團級이상의 전투를 주임무로하는부대의 장으로 보직될수 있는 장교의 범위에 육군의 항공병과출신장교를 추가토록 했다。

때이른 초여름날씨

평년보다 7도높아…夏服미리착용

초여름 더위가 성큼 다가섰다。

지난10일 大邱32도를 최고로 서울27·4도 大田30도등 초여름 기온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날씨는 11일에도 서울이 24·5도로 예년보다 1도이상높은 기온을 보였다。

이같은 무더위는 평년보다 5~7도 높은것으로 남부지방에서는 2~3일 더 계속될것으로 보인다。

성급한 더위로 大邱시교육위는 6월부터 입을 예정이던 학생들의 하복을 11일부터 학교장재량으로 앞당겨입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중앙기상대는 이번 더위가 북태평양고기압이 갑자기확장해왔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1일부터는 중부지방부터 예년기온을 되찾겠다고 예보했다。

病院서 變死申告 기피

경찰搜査에 차질

釜山서 醫師3명 立件

【釜山】부산 南部경찰서는 11일 부산대학병원 정수상의사(28)를 의료법24조(변사체신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의사 정씨는 지난6일 하오6시께 이병원에 들어온 김금씨(61·여·南區大淵6洞1796)가 남편 우기찬씨(60·살인혐의 구속영장신청중)의 칼에찔려 사망했는데도 신고하지않아 경찰수사를 5일동안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에앞서 지난4월26일 메리놀병원 소아과의사 黃容均씨(32)와 한독병원 내과과장 全英萬씨(34)등 2명도 같은혐의로 입건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메리놀병원 의사 黃씨는 지난3월30일밤 11시40분께 메리놀병원에 입원한 南區忘美洞881 朴守民씨(35)의 아들 강현군(5)이 연탄가스와 약물중독으로 사망、타살혐의가 짙은데도 사망진단서를 발부하면서 경찰에는 신고치 않았으며 한독병원의사 全씨는 지난 3월24일 하오6시30분께 이병원에 입원한 朴씨의 딸 강희양(3)이 같은증세로 사망했는데도 역시 신고치 않았다는 것.

경찰은 이사건을 죽은 朴군남매의 어머니 全美子씨(29·살인혐의로구속중)가 부부싸움끝에 두자매에 극약을먹이고 연탄가스로 숨지게한 살인사건으로 추정하고있는데 병원 의사들이 신고를 제때하지않아 경찰수사가 1개월여동안 지연됐었다.

의료법24조(변사체신고)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등은 사인에 의심이있을때는 반드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토록되어있고 이를위반할때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경찰은 의사들이 신고를 잘 않는것은 지난해 12월30일부로 개정된 의료법24조가 체형이 없어져 처벌이 가벼워진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2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되어 있었다.【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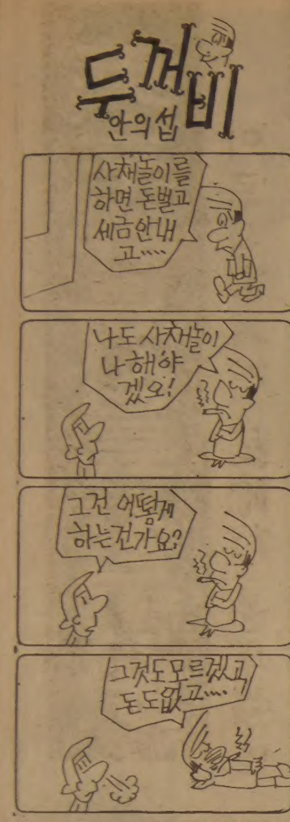
세브란스醫師2명 罰金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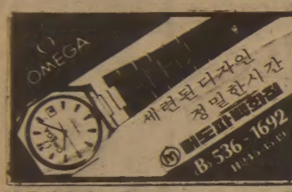
서울刑事地法…과실致死罪 적용

서울형사지법 3단독 崔秉[illegible]판사는 11일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과장 郭顯模씨와 마취과의사 金鍾來씨에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각각 1백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郭씨와 金씨가 마취 개복수술때에는 사전에 혈청에의한 간기능검사를 마친뒤 수술해야 하는데도 이를 태만히해 사고를 냈다고 판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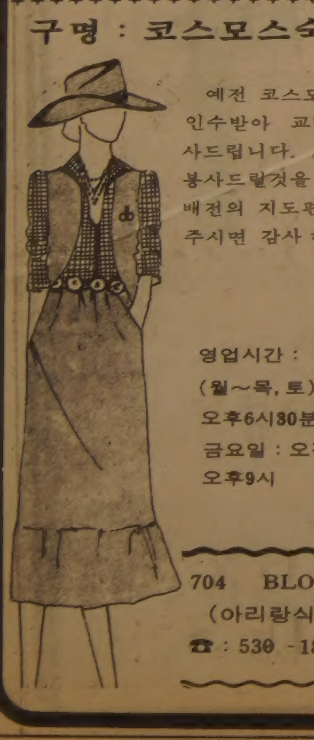
郭씨와 金씨는 지난80년11월초 난소낭종절제수술을 받으러온 李元榮씨(31·여)에게 마취제 할로탄을 사용、전신마취를 시킨뒤 개복수술을 했다가 李씨가 전격성 간염을일으켜 80년11월28일 간괴사로 숨지게한혐의로 기소됐었다。





YOUNG SOOK '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MIRAGE BOUTIQUE
구명 : 코스모스숙녀복집



예전 코스모스숙녀복집을 인수받아 교민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드릴것을 약속드리며, 배전의 지도편달과 이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최은경 올림
영업시간 :
(월~목, 토)오전11시~
오후6시30분
금요일 : 오전11시~
오후9시
704 BLOOR ST. W.
(아리랑식당옆)
☎ : 530 -1870

제2회 한인친선낚시대회 개최공고

일 시 : 5월 24일〈빅토리아 데이〉 오전 9 : 00~오후 4 : 00

시 상 : (1)특등, (2)대어 1 등, (3)대어 2 등, (4)대어 3 등, (5)4 등, (6)5 등, (이상 모두 PIKE에 한함), (7)잉어대상, (8)회귀상, (9)노익장상, (10)부부상, (11)아동상 〈12세 미만〉

장소 : BELL WOOD CONSERVATION PARK

※주의사항 :
1. 등록비 $5를 납부하고 등록번호를 받을것.
2. 82년도 회비 필한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수시로 등록비가 면제되며 선거 피선거권과 리셉션에 초대함.
3. 1인 낚시대 1개 바늘2개 이하사용
4. 본인이 잡지않은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질서가 문란한 선수는 입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5. 잉어상, 회귀상, 부부상, 아동상등에 해당자가 없을때에는 시상식후에 등록번호로 추첨함.
6. 1인2회 입상불허 허함.
7. 낚시대, 바늘, 미노스, 떡밥, 지렁이등 각자지참.

※대회조직 : 대회장 : 정삼열 부회장 : 곽창수 총무 : 최남해
진행 : 이장관, 백은범 재무 : 김종근 심사위원장 : 강철용
심사위원 : 김재용, 이근호, 구진모
안내 : 755-9902 정, 298-7806 최.

후원 : 총영사관, 한인회, 한국일보

찬조 : 무역진흥공사, 동궁식당(곽창수), 한국식품, 블로아안경(구진모), 미도파선물(장추신)

--- 토론토한인낚시협회 ---

사 진
출장만합니다.

결혼식
광 고
단 체
인 상
(416) 270-2709
Mississauga, Ont.
Peter 's Photography

死境의 比발라바 끝내숨져

申喜燮에 KO敗…腦수술 나흘만에

外國복서 첫國內사망…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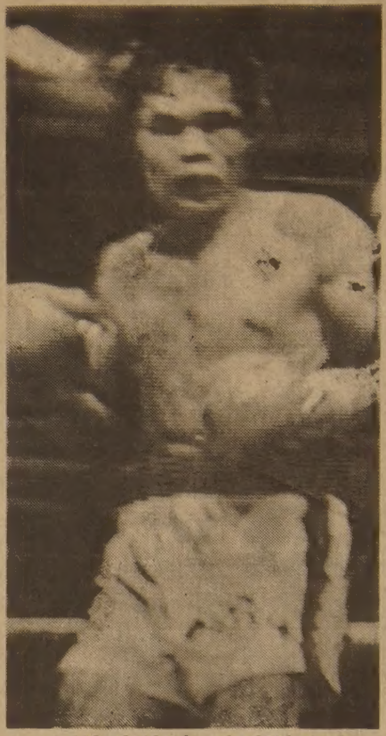
補償제도 마련안돼 논란일듯

뇌수술을받고 국립의료원에서 사경을 헤매던 필리핀 프로복서 앤디·발라바(26) 선수가 수술 84시간만인 11일상오9시43분끝내 숨을거뒀다.

—발라바는 10일 낮12시께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는등 상태가 악화, 이날저녁 한때 호전되는듯 했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외국 프로권투선수가 국내에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것은 발라바선수가 처음이다.

필리핀 플라이급 2위인발라바는 지난 7일밤 장충체육관서 申喜燮선수(18·한국주니어 플라이급1위)와의 논타이틀전서 9, 10회에 모두 세차례 스탠딩다운 당한끝에 KO패가 선언된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었다.



◇발라바의 마지막모습 세계 도전의 꿈을 펴지 못한채 끝내 이역에서쓰러진 발라바。申喜燮과의 논타이틀전(7일밤·장충체) 10회 KO패가 선언된 직후의 「마지막모습」。 【KBS·TV녹화찍음】

故鄕에 妻와 3남매

발라바는 고향인 민다나오에 아내와 1살된 아들등 3남매를 두고있다.

발라바의 유해는 필리핀대사관서 인수, 13일상오 KAL편으로 마닐라로 옮겨져 배편으로 발라바의 고향인 민다나오섬까지 운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발라바의 유족들은 한국에 오지 않았다.

주최측서 弔慰金

한편 발라바-申喜燮대전을 주최했던 極東프로모션대표 金鍾洙는 발라바의 수술 입원비전액을 책임지고 발라바의 유족에게 도의적인 면에서 3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라바는 상해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데다가 아직까지 프로권투선수의 사망에 따른 보상제도등이 국내에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것으로 보인다. 한국권투위원회(KBC)는 그간 선수들의 개런티 1%씩을 떼내 적립해온 「건강보호기금」(현재적립액1천여만원) 가운데 일부를 발라바의 유족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比GAB、필름要請

필리핀 프로권투를 관장하고있는 GAB(경기및 오락위원회)서는 11일 발라바-申喜燮 대전의 TV녹화필름을 보내달라고 KBC에 요청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경기주심 金數根씨와 링닥터 朴春植씨등으로 부터 사고경위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안실 찾아 申喜燮 조의

한편 발라바와 싸웠던 申喜燮선수는 11일 상오 발라바의 유해가 안치된 국립의료원 영안실을 찾아 눈물을 글썽이며 이국에서 비명에숨진 선배권투선수의 명복을 빌었다.

金喆鎬 밴텀級2位 美링誌 綜合랭킹

【뉴욕10日AP=聯】美國의권투전문잡지 『링』은 프로복싱 세계권투협회(WBA)와 세계권투평의회(WBC)의 4월랭킹을 토대로 독자적인 12체급별 종합랭킹을 발표했다.

『링』誌 최신호에 게재된 이랭킹에서 헤비급챔피언에는 WBC의 래리·홈즈가 올랐으며 WBA챔피언인 마이크·위버는 1위로랭크됐다.

또 WBC슈퍼플라이급 챔피언인 한국의 金喆鎬는 밴텀급2위로 기록되고 WBA의 제프·챈들러가 챔피언으로 랭크됐으며 鄭巡鉉과 金煥珍은 각각 주니어페더급9위와 플라이급 7위에 올랐다.

미들급의 朴鍾八을 비롯한 기타선수들은 10위안에 들지 못했다.

「링事故」對策시급하다 ①

발라바死亡계기 복서들의 保護조치와 補償제도 긴급診斷

프로복서들은 무방비다. 필리핀 프로복서 앤디·발라바의 비보는 국내 복싱계에 큰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챔피언의 꿈을 펴지 못하고 異國의 링서 쓰러진것도 애석한일이지만 복서들에 대한 사전 보호조처나 보상제도의 미비는 이번 발라바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하게 일고 있다.

발라바의 유족에게 돌아갈 보상금이 어느 정도가 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공식적인 보상금은 「건강보호기금」뿐이다. 국내선수라도 링사고로숨지면 전보금외에 달리 기댈곳이 없다.

건보금의 실태를보면 여기서나오는 보상금은 너무나 미약하다.

지난 66년부터 국내에서 경기를갖는 내외국인 선수들의 대전료가운데 1%씩을떼내 적립하고있는 건보금은 현재 1천만원을겨우 웃돌고 있다. 전보금은 경기중 각종사고로 상처를 입은 선수들을돕기위한 相助的인 기금지급액은 너무 미미하다.

지난72년 머리를다쳐 뇌수술을받고 선수생활을 그만둔 文正潔선수의 경우, 건보금에서 받은돈은 15만원。당시 文의 매니저였던 徐順鍾씨가 1백60만원의 입원치료비를 전담했고 은퇴후의생계를위해 가게를 하나 마련해주었다。

이같은 도움없이 전보금에만기댔더라면 文은 회복못했을지 모른다。

현재 국내 프로복서중 상해보험등에 가입한 선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한때 金泰式등 몇몇선수가 보험에 든 사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복서가 보험에 가입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얼마 안되는 수입의로 보험금을 납입하기는어려운형편이며선수들을관리하는매니저들도보험가입에 무관심하다。일부선수들은『보험에들면재수가없다』며보험가입을기피한다。요즘 보험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권장하고있지만 부상위험이 많은프로복서의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없지않다는 권투관계자들의 이야기다。

WBC(세계권투평의회)의 경우 세계타이틀전을 개최하는 프로모터로부터 3백~5백달러의 보험금을 의무적으로 받고있다。사고가 없으면 이 돈은 보험회사에 들어가고 다친 선수가 발생하면 선수들은 상당한 보상을 받게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KBC의 건보금이 제구실을해야하며 선수의 매니저·프로모터들도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傷害보험加入 거의外面

選手각출「健保金」도 쥐꼬리

腦波검사등 보다철저히

KBC 의무위원회서는 지난 2월 국내 A급선수 1백여명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1차로 뇌파검사를 한뒤 이상이 나타나면 뇌단층 촬영검사를 하도록 했지만 뇌단층검사는 물론 뇌파검사에도 응한선수가 별로 없었다。20~30만원의 단층검사비, 4~5만원의 뇌파검사비를 낼 능력이 없기때문이다。복싱의학 관계자들은 이같은 검사는 선수 부상을 사전 예방하고 선수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조처라고 강조하고있다。

앞으로 복서들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있다。

자주 KO패당하는 펀치·드링커 들에게는 상당기간 출전을 금지시켜야 할것이다。경기장에 최소한의 의료장비를 갖춘 의무실을갖추자。【金仁奎기자】

曺薰鉉9단、昇段대회 나머지對局도 快勝

趙治勳名人 아마 30面棋대국서 16勝14敗

바둑소식

○…曺薰鉉名人이 9단으로 올라가자 한국기사들간에는 한동안 그가 이번 승단대회(제55기)의 남은 대국에 출전할것인가의 여부로 추측이 난무했다。9단이 되고보면 그이상의 승단대국이 필요없기때문에 다음 대국부터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기사들이 있는가하면 9단승단에 필요한 기본대국수(33국)를 채우기위해 나머지4국에 참가는하되 져줄 가능성도 있다는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은 너무 빨리 무너졌다。曺名人은 승단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인 5일 河燦錫7단과 대국했을뿐 아니라 백으로 불계승까지 거두었다。원래 이 대국은 11일에열리게돼있으나 이날은 王位戰도전5번기중 제2국이크라운호텔에서열림예정이어서 曺名人은 일정을앞당겨 휴일(어린이날)까지 쓸데없는(?) 고생을 했던것。대국조건도 원래 집흑이었는데 9단이되자 河7단과 2단차이로 段差가벌어져 집백으로 바뀌었다。

金寅8단은『曺名人이9단승단에 개의치않고 남은 승단대회에서 최선을다해 싸운것은 프로기사의 정도라고생각한다。그가 출전하지않거나 싸워서 적당히 져주면 예정된 대국자는 부전승등으로 점수를 따게되나 이것은기사들의 세계에서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촌평。

○…지난8일 趙治勳후원회의 초청으로 내한한 趙治勳名人은 롯데호텔의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아마愛棋家30명과 多面棋대국을 가져 16승14패를 기록했다。

국민학생12명이 참가한 이다면기에서 佛光국민학교1학년 전성철군(3급)은 5점접바둑으로 趙4冠王에게 불계승을 거두어 갈채를 받았으며 趙9단도『침착하고 수를 잘읽어 장래가 촉망된다』고 격려했다。趙9단은 이대국에 앞서 金哲中아마국수(5단)와 2점접바둑을 가져 2백31수만에 4집승을 거두었다。

趙9단의 이번귀국은 별다른 목적이 없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라이벌 고바야시(小林) 9단과의 本因坊도전기를 앞두고 머리를 식히기위한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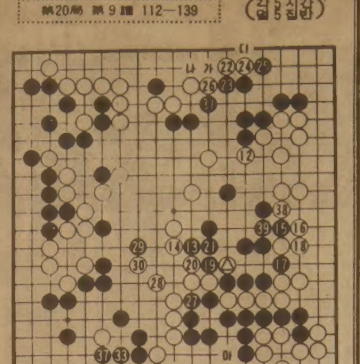
趙本因坊은 고바야시9단과의 대결은 앞두고 승산이 있느냐는 질문에『최선을 다할뿐』이라고 담담히 말하고있다。그는 최근 후지사와(藤澤秀行)棋聖의 就任式에서 고바야시9단과 속기를 두어 이긴바있다。이 속기는 후지사와의 棋聖6連覇를 축하하기위한것이지만 워낙 큰 대결을 앞둔 巨人들의 대결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일본棋界는 趙9단이 일단 전초전에서 고바야시9단을 꺾었다고 미리부터 흥분。

○…愛棋家들의 모임인 淡水會(회장 鄭雲燁)는 지난 6일 앰배서더 호텔에서 曺薰鉉名人의 9단승단을 축하하는 칵테일 파티를열었다。

이자리에는 曺9단의 양친과 부인 鄭美和씨및 2살난 아들등 전가족과 趙南哲、金寅、尹奇鉉8단등 동료기사들과 기타 일반축하객 2백여명이 참가했다。淡水會는 曺9단에게 순금10돈쭝짜리 기념메달까지 증정했고 白成豪5단과 姜勳4단이 속기로 기념대국을벌였으며 바로옆에서 이날의 주인공 曺9단이 해설을 했다。【梁平기자】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0局 第9譜 112—139



白(7段) 河燦錫 3勝2敗
黑(6段) 徐能旭 2勝3敗

[illegible]

右上黑31 異變前夜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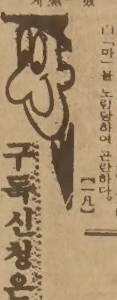
黑23은 1분。당연히 24의곳을 막을줄 알았던 河7단은 뜻밖의 표정을 지으며 24쪽으로 밀고 黑25때 26으로 막는다。

이대목은 바로뒤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 승패가 좌우되지만 우선 8단의 말부터 소개한다。

『黑23은 24로 막아야 黑이 유망했다。그리고 白26때는 즉시 黑「가」로 젖혀 白「나」와 교환한 다음 黑「다」가 언제든지 절대선수로 되게 했어야 옳았다』

黑「가」를 게을리한 탓에 승패가 갈라지는 변화를 다음보에서 보게 되거니와 당장은 黑31로서 이쪽을 맛부터 보강해야 되었다。

한번 끝내기에서 黑33은 부득이하다。직접 34로 막으면 白「라」로부터 白「마」를 노림당하여 곤란하다。【一凡】



구독신청은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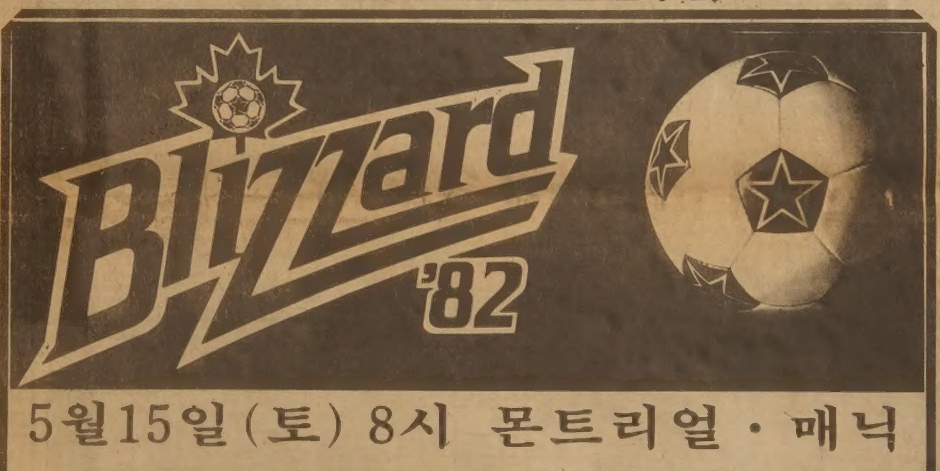
◇女子농구팀 凱旋 자랑스런 딸들이 돌아왔다。東京제9회아시아여자농구 선수권대회서 강호 中共을 물리치고 3連覇를 차지한 한국대표선수단이 7일하오개선, 金浦공항서 환영식에 참석한후 오픈카에 분승, 체육회관앞까지 퍼레이드를 펼쳤다。

한국일보 詩壇

不變說

咸惠蓮

그 때
아름다운 湖畔 눈꽃송이 거닐면서
부지하고 변신이나
선의에 찬 어부유희 제자로 삼고
하늘 가는
밤의 길을 설파하던 그의 음성
녹음된 音聲같은
강변길을 달리다가 나는
오늘
영리하고 온전하나 악의에 찬 하루놀음
제자로 삼고
땅에 떨은
하늘길을 설파하는 그의 모습
차창에서 언뜻 봤다
그리고
그 때 자연, 영감이 물결치던 湖畔의
풀꽃 싱싱한 나무들이
지진에 휘말려
세월 속에 매몰됐다
化石한
강변의 별덩송을
그 숲길을 걸어가는 솔로몬의 뒷모습과
그 때는 彷彷翻翻 비둘기 떼로 날던
마태복음5장 眞福八端이
4통8달의 자동차물결되어
추억의 갈림길을 질주하는 한낮에―



5월15일(토) 8시 몬트리얼·매닉

HOME GAMES AT Exhibition Stadium

Dates	Opponents	Times
Saturday, May 15	Montreal Manic	8:00 pm
Thursday, May 20	Chicago Sting	8:00 pm
Tuesday, May 25	San Diego Sockers	8:00 pm
Wednesday, June 16	Portland Timbers	8:00 pm
Saturday, June 19	San Jose Earthquakes	8:00 pm
Wednesday, June 23	Seattle Sounders	8:00 pm
Wednesday, July 7	Montreal Manic	8:00 pm
Thursday, July 22	New York Cosmos	8:00 pm
Sunday, July 25	Vancouver Whitecaps	3:00 pm
Wednesday, July 28	Chicago Sting	8:00 pm
Saturday, Aug. 14	Jacksonville Tea Men	8:00 pm
Sunday, Aug. 22	Tampa Bay Rowdies	3:00 pm

프로축구와 운동모자

블리자드 티켓을 (성인용2장) 본사에서 구입하면 선착순 20명에게 $5 상당의 대한항공(KAL) 이 제공하는 운동모자를 증정합니다.

장 소 : CNE 축구장
입장권 : $12(A석), $9(B석), $6(C석)
※학생및 유아, 노년입장권은 반액.

입장권예매처 : 한국일보사 533-2361
Brandon Sports Co.

한국선교100주년기념

토론토연합전도대회

Toronto Korean Christian Crusade '82

강사 : 박조준목사(서울 영락교회 당회장)
☆한국 연예인들의 간증도 있을 예정임.
일시 : 82년6월11일, 12일, 13일, 저녁7시30분
장소 : Cross Roads Cathedral 300Queen's Dr. (401 & Jane, E.)

연 락 처 : 755—7979, 535—6864, 496—2967
부 대회장 : 김재광목사
준비위원장 : 박희민목사

후원 : 토론토한인교역자회, 뉴코리아·타임즈, 민중신문, 코리언·저널

토론토연합전도대회 대회장 : 안병한목사

「空輸기동 戰警」창설

宜寧사건 4개常委 政府、조사결과·對策보고

年2회 警官정기交流배치

班단위등 申告網편성강화

自道요원 自道모집…支派出所 年次증원

국회는 10일하오 法司·內務·國防·保社등 4개 常委를 열고 宜寧경찰관亂射사건의 조사결과와 수습및개선대책에 관해 보고를들은뒤 질의를벌였다。국회는 11일 運營委와 본회의를 잇달아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룬 宜寧사건의 처리방안으로 對정부건의안을 채택한뒤 閉會한다.

內務委 은 盧泰愚내무장관으로부터 宜寧사건을 다룬 지난달30일 內務委에서 건의한 8個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對策보고를 통해 경찰의 연락망정비와 統班長을 이용한 예비군과 民防衛隊의 召集體制 보완으로 비상소집체제를 정비하며 支·派出所 중심의 지휘관요원 不時소집훈련과 脆弱시간 이용소집등 비상소집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보고는 경찰5분待機부대에대해 1일2회씩 出動태세를점검하며 奧地의긴급지원을위해 경찰특수작전부대(機動隊)를 지역별로 지정확보하고 空輸및 특수훈련을실시하며 통신망을현 90개소에서 1백86개소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취약지역에 19개 전투경찰 타격중대를 창설배치하며 空輸기동 전투경찰중대2個를 창설, 운용하고 空輸작전용 헬機10대를 구입하는한편 경찰34개특수작전부대에대해 中隊當2週씩 軍위탁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보고는 또 銃器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武器庫를 일제 점검, 정단되지않는 자물쇠및철책, 2重門설치, 非常벨 配線地下化등 방호시설을 보강하고 컨테이너移動式 무기고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무기고경비방위병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支·派出所의人力증원을 年次的으로 계획하고있으며 주민신고체계의 확립을 위해 全家口가 참여하는 班단위 신고망을 편성하고 商街아파트 多衆의出入장소 工團은 별도로 편성할것이라고 이보고는 밝혔다.

이보고는 이밖에 경찰人事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등으로 人力選拔委를 구성하고 循環補職관리를 제도화, 舊警級은 전국을 5개群, 警正이하는 市道단위 3~5개 경찰서로 補職群을 설정하고 上向순환원칙을 체계화하고 연2회 정기적인 人事교류를 실시하며 自道要員自道모집배치 원칙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法司委 은 李鍾元법무장관은 『우리나라에는 政治犯이 한사람도 없으며 정치범의 개념으로 처벌한일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범이 있는가』라는 金永俊의원의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단지 實定法에 위반한 사람은 실정법의 규정에따라 형벌을 가하고있을뿐』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국가배상을 무한정으로 할수있도록하는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연구, 검토해보겠으며 피해자보상법의 제정을 검토중인데 이법이 제정된다면 釜山美문화원 피해자들에대한 국가보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國防委 周永福 국방장관은 ▲예비군 무기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지휘감독과 근무기강확립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방위병 제도와 예비군 동원문제에서 과거의 훈련실적이나 軍복무경험의 일제점검결과 별문제가 없으며 ▲非正規戰지침과 後方지역방위태세에는 조금도 허점이 없다고 보고했다.

私債파동 收拾策등 논의

劉總理주재 張女人사건 經濟영향 極小化

"眞相 철저糾明、관련자 嚴罰"

정부는 10일 하오 李哲熙·張玲子부부 사건과 관련, 劉彰順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 후생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낮 오찬을 겸한 회의에서는 李鍾元 법무장관의 사건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사건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극소화하는 방안과,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은행장등에 대한 引責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金俊成부총리, 羅雄培재무, 李법무장관과 鄭致根검찰총장, 趙永吉총리비서실장, 李揆成재무부차관보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한고위소식통은 이번사건은 정의사회구현 목표에 逆行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없는 중대한 金融부조리」라고 지적, 『정부는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파헤쳐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問責, 嚴罰할방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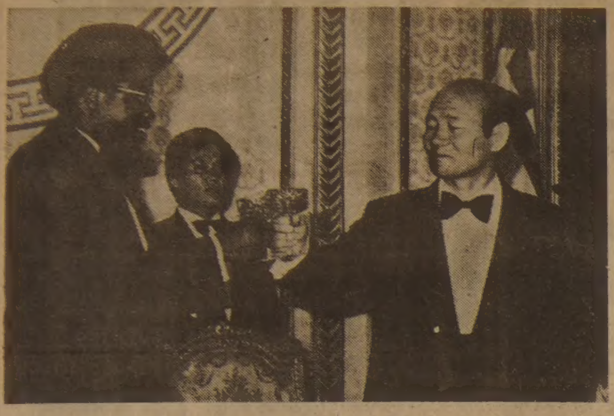
이소식통은 이어 『정부는 맑고깨끗한사회와국가를건설하는 입장에서 이번사건을 국민앞에 밝힐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이날회의에서 私債파동수습대책을 보고했는데 우선 사채시장의 경색에 따른 자금난을 완화해주기위해 韓銀을통한 자금지원을확대하고 은행인사를 포함한금융질서쇄신작업을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인사는 이번 張여인사건과관련 일부은행이 張여인등 私債업자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대가로 사채업자가 지정하는 기업에 거액을 대출해준 혐의가 밝혀짐에따라 은행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대상으로 문책인사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또 私債시장의 혼란과 더불어 극도로 위축된 증시를 진정시키기위해 兩大투자신탁회사를 포함 증권회사들이 증시에 적극개입, 주가의 봉락을 막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재무부는 共榮土建이 法定관리를 신청함에따라 해당기업의 뒷수습방안을 검토하고있는데 法定관리가 확정될경우 공영토건명의로 발행된 융통어음은 일정기간 동결되지만 물품납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에대해서는 단시일안에 대금을 지급키로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韓·라이베리아 協力확대合意

全大統領·도元首 한국民主統一방안 전폭支持



◇양국元首의 祝盃 全斗煥 대통령과 라이베리아의 도국가원수가 만찬에서 축배를들며양국의友誼를 다지고있다。

全斗煥 대통령은 10일상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라이베리아 국가원수 새뮤얼·카는 도 民族救濟위원회의장을 맞아 頂上회담을 갖고 東北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지역의 전반적인 정세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약50분간 진행된 단독회담에서 두 나라 元首는 평화와 자유 및 번영에 대한 양국의 신념을 재확인하고 정치·경제·기술·문화등 각분야에 걸친 협력확대가 양국의 관계증진과 경제발전 및 국민의 생활수준향상에 크게 공헌할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李鍾熙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두나라국가원수는 또 경제발전의 긴요성을 강조하고 이를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 및 사회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데 서로 같은 의견을 보였다고 李대변인은 전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이자리에서 도국가원수에게 우리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설명한뒤 이에대한 北韓의 거부一邊倒的인 태도를 개탄하면서 「그러나 유일한 평화의 길은 계속해 인내를 갖고 대화를 모색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도국가원수는 한국정부가 제안한 민주통일방안과 대화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李대변인은 밝혔다.

한국과 라이베리아 정부는 실무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력방안에 관해 계속협의할예정이며 오는13일 도국가원수의 離韓에 앞서 발표될 공동성명에 그 결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 앞서 全대통령은 도국가원수에게 無窮花대훈장을, 도국가원수는 全대통령에게 아프리카救濟 仁義功勳 대훈장을 서로주었다.

도국가원수의 청와대예방에는 한국측에서 劉彰順국무총리 盧信永외무 金容烋총무처장관, 李時容駐라이베리아대사가, 라이베리아측에서는 민족구제위원회의 바루위원 장 톨리사무총장 패뉴, 뉴마 위원 환경혜外相 존스財務相 볼레이文敎相 프로모얀農業相 엘리슨公報相 타르기획경제상 심슨駐韓대사대리등이 배석했다.

도국가원수는 회담에 앞서 이날상오 숙소인 新羅호텔에서 劉彰順총리의 예방을받았으며 정상회담이 끝난뒤에는 한국종합전시장을 시찰한데 이어 水原새마을지도자연수원, 京畿華城郡東炭面永川3里의 모범새마을을 각각 시찰했다.

한편 도국가원수는 全대통령의 초청으로 일요일인 9일하오1시15분 특별기편으로 來韓했다.

도국가원수는 이날 공항에서 3軍의장대를 사열했으며 金聖培서울시장으로부터 행운의 열쇠를 증정받았다.

그는 이날 도착에 즈음한 성명을통해 『이번 訪韓이 라이베리아국가재건에 있어서 한국민의 경험을 직접목격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줄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도국가원수는 11일 서울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뒤 육군사관학교와 前方을 시찰한다.

"經濟발전의 同伴者로"

全대통령 晩餐辭

全斗煥 대통령은 10일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라이베리아의 도국가원수를 위해 만찬을 베풀뒤 민속공연을함께 관람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만찬사를 통해 「오늘날 국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급격히 강화되는 추세아래에서 공동의 理想과 과제를 지니고있는 개발도상국가간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것」이라고지적하고 「더우기 많은천연자원을 보유하고있는 라이베리아 공화국과 경제발전의 시련과 보람을경험한 우리나라는 서로를위해서도 매우 소중하고 필요한 同伴者가 될수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도국가원수는 이에대한 答辭에서 『라이베리아 정부는 평화적수단에 의해 한국의통일을 이룩하려는 全대통령각하의 과감한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것』이라고밝히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상황을 타개하기위해 先進국가로부터의 더많은 재정적원조를 요청하지 않을수 없으며, 한국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열망에 계속 호응해주도록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英最後통첩속 反擊태세 完了

本社 李梓昇특파원 아르헨서 제2信 ★관련 10면

13일 財務委소집

私債파동全貌등 金融不條理추궁

與野는 張玲子여인 사건에 대한 진상과 對策을 따지기 위해 13일 국회財務委를 소집키로 했다.

民正 民韓 국민당등 3黨총무는 10일하오 이같이 합의하고 財務委를 통해 金融파동의 진상과 대책을 철저히 따지고 이에 관련, 金融부조리문제를 규명키로 했다.

民正黨은 특히 이날 상·하오 黨職者회의와 간부회의를 잇달아열고 이문제를 논의, 『이번 張여인 사건의처리에 있어 국민의 납득을 받지못하면 정부와 民正黨의이미지에 큰손상을 줄 우려가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강력한 진상규명요구를 정부에전달하는 한편 13일의 財務委에서 사건의 本質문제를 철저히 따지기로했다. 또 民韓·국민당도 이번 사건이 그동안 亂脈상태를보여온 금융및 私債업계의 대표적부조리 케이스로보고 財務委에서 사건의배경을 철저히추궁하는 한편 정부및 은행관계자의 책임문제도 거론키로 했다.

宜寧사건 單一建議案 합의

與野「內閣총사퇴」表現빼기로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들은 10일밤 하이야트·호텔에서모임을갖고 宜寧사건에 관한 對정부建議案文案을 절충한끝에 單一案에 합의, 11일상오9시 국회운영위를거쳐 하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했다.

與野의 文案작성小委위원(柳瓊賢·朴寬用·金輪煥의원)들도 참석한 이날모임에서 與野 3黨은 건의안속에 民韓黨이 주장한 「內閣總辭退」부분을 넣지않는 대신 「정부는 이사건의 책임을 痛感하고 이사건을 계기로 책임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정의사회구현과 민주주의토착화를 이룩할것」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담기로 했다.

이날 3黨총무가 마련한 건의안은 主文과 경찰행정제도의 개선, 民防衛·예비군 동원체제개선, 被害者보상및 사후대책등 4개項으로 되어있다.

安炳璨 駐佛특파원 어제 부임차 出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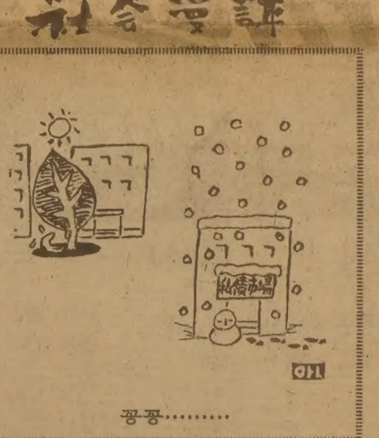
本社 駐佛특파원 安炳璨(편집국副局長)이 10일하오 부임차 KAL편 파리로떠났다.

韓·사우디委 12일부터 3일동안 開催

제6차 韓사우디아라비아합동위원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金東輝외무차관과 알리·레자 사우디외무성차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이번 합동위원회에서 양국간의 우호친선관계 강화방안을 비롯, 자본 통상 원유및 LPG공급 건설 한만 농업기술 문화 체육등 각종분야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문제를 논의한다.

社會漫評



地平線

「비디오·바이러스」라는 병균이 지금 전세계에 번지고 있다한다.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가 아니라 전자오락이라는 유행병을 말함이다. 『번쩍하는 레이저광선보다도 빨리, 이 생긴이래 유례없는 힘으로 대중문화를 점령했다』고 뉴스위크는 말하고있다.

삐삐거리는 이 컴퓨터·게임산업은 지금 미국에서만도 영화나 레코드산업을 앞질러 한해 50억달러규모다. ▼전자오락은 근래 동남아와 중남미에서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 이르기까지 세계도처에서 입씨름거리가 되고있다. 서독에서는 18세 이하의 전자오락실출입을 금지하고, 프랑스에서는 16세 이하는 부모와 동반해야만 들어갈수 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전자오락실이 동성연애자들의 소굴이 되고, 스웨덴에서는 허가제로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자 오락실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청소년의 돈과 시간을 빼앗을뿐만 아니라 폭력과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비난하고있다. 이에 대해 지지자들은 이 컴퓨터·게임이 눈과 손의 연결을 돕고 앞으로 있을 컴퓨터기술의 충격에 대비하는데 유익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판론이 많지만 없애지도 못하고 양성화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번져가고있는게 전자오락실이다. ▼전자오락실은 판문각에까지 버젓이 스며들었다. 6·25전쟁의 비극과 국토분단의 쓰라린 현장을 전세계에 보여주려는 그자리에 전자오락실이 들어선 것이다. 처절한 전쟁을 기억하는 사진 전시실이나 유물전시실도 없는 판에 전자오락실부터 차려 놓은 꼴이다. 비디오·게임의 엄청난 위력은 이땅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것인가하는 판단마저 흐리게한것 같다. ▼전자오락실과는 대조적으로 임진각 남쪽에는 黃眞伊詩碑가 세워졌다(日刊스포츠 10일자 11면보도). 검은 烏石의 비석에는 유명한 그의 「청산리 벽계수야…」라는 시가 새겨졌다. 朝鮮왕조를 빛낸 開城의 名妓라기보다 휴전선 너머서 숨쉬었던 이땅의 사람의 순교자를 회상하는 기념물이다. 이땅에 사람과 예술이 있었다는 자랑스런 기념비가 될것이다. ▼스스로 開城의 세명물중 하나라고 했던 여류시인 黃眞伊의 고장은 전방고지서 보자면 바로 코앞이건만, 분단선 저쪽에 두고온 땅이다. 사람과 예술만으로 살았던 그의 숨결속에서 민족분단의 아픔을 달랠수있기를 바랄뿐이다. 「춘풍 이불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통일이되는 그날 「굽이굽이 펴리라」 기원해 본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금하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전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재 캐나다체육회장배
골 프 대 회
일 시 : 1982년 5월22일(토) 12시
장 소 : STREETSVILLE GLEN GOLF CLUB(미시사가지역)
참가비 : 30불(디너 포함)
시 상 : ⊙그로스 1~5등 및 상품
○네트 1~5등 및 상품
○니어리스트 상품
○롱게스트 상품
○각종 경품있음.
연락처 : 이 기 훈 ☎ : 298-3584
장 추 신 ☎ : 536-1692
주최 : 재캐나다 대한체육회
후 원 : 한인골프협회

마야 미용실
개업인사 및 특별봉사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가 블로아에 미용실을 새로 개업하고 여러분을 모시고 특별봉사로 성심 성의껏 모시고자 하오니 한번 꼭 찾아 주시면 더없는 영광으로 모시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개업일 : 1982년5월1일 세일기간 : 5월초~6월말까지(2개월간)
HAIR 부문
* 캇트, 파마및 스타일 $25 & up
* 캇트 및 스타일 $9
* 샴푸 및 스타일 $8
* 머리염색 $12 & up
MAKE UP 부문
* 신부화장
* 파티화장
* 스테이지화장
* 심는 속눈섭 전문
* 신부드레스 대여
※머리가 상하신분 또는 헤어스타일에 항상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은 한번나와 주세요.
미용경력 : 14년

헤어스타일이스트 김 영 주
63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서울여행사2층)
588—1480(B) 243—8026(R)

화장스페샬이스트 클라라 홍

제2회 재캐나다 한인친선탁구대회
시 상 : 1982년6월5일(토) 오전10시
장 소 : 994 CARLAW AVE. (WEST WOOD JR. HIGH SCHOOL) CARLAW AVE & EST WOOD
경기종목 및 참가비 :
단체전 (4단1복) $30.00
남·녀개인전 $5.00
개인복식 $7.00
시 상 : 단체전 : 우승, 준우승
개인남·녀 : 1, 2, 3등
개인복식 : 우승, 준우승
연락처 : 송광호 (533—2361)
김동천 (243—0522)
주최 : 재캐나다 탁구협회
후원 : 재캐나다대한체육회, 미도파백화점, 브랜든스포츠, 거북이선물센타, 빅·세븐선물센타, 한국관, 동양식품 연합상사

「秒읽기」…포클랜드 大決戰

아르헨

【부에노스아이레스10日=李梓昇특파원】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말비나스島(포클랜드)결전은 秒읽기를 앞두고 있는것 같다. 9일만난 아르헨티나의 한외교소식통은 『영국의 증원군 해병대3천여명, 수직 이착륙 해리어전투기 20대가 내일(10일)이면 포클랜드 전투지역에 도착할것이다. 그후에는 대해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갈티에리 대통령은 9일 새벽5시(한국시간하오5시) 영국군이 포클랜드의 푸에르토·아르헨티노 (영국명·포트스탠리)를 재공습했다는 보고를 받고 관저에 긴급출두, 비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보다 앞서 아르헨티나는 지난 8일에는 영국系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영국인의 지방여행을 금지하는 동시에 영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했다.

아르헨티나는 갈티에리 대통령으로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협상에 앞서 실제 大決戰이 있을것으로보고있다. 이들은 한걸음더나아가 미국이 직접 지원하지않는한 영국의 기동함대전력에 충분히 맞설수 있다는 자신에 차 있는것 같다.

호시다·멘데스 아르헨티나 외상은 지난 9일 아르헨티나국영 컬러 TV방송의 24시간짜리 애국성금모금 특별프로에 출연 『아르헨티나는 군사외교 양면에서 영국에 대항할수있는 조치가되있다』고 말했다.

美서 對英지원 없을땐 승산

가미가제式 攻擊…布陣끝내

또한 한국방연구소장 조지·무이스 퇴역장군은 『영국이 말비나스島를 침공하려면 막대한 희생을 각오해야한다. 영국함대가 기술적인 면에서 아르헨티나 해군보다는 우위에 있으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비나스에 상륙할수 있는 여건에 있지않다』고 말하고 『영국의 폭격과제한된 해상활동으로 아르헨티나군을 철수하도록 군사적 압력을 지속하는데 그칠것』이라고 영국의 전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아르헨티나는 7일 영국이 전면봉쇄지역을 연안 12마일로 발표한것을 침략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히고 『어떠한 침략 행위도 영국의 군사적 목적을 결정하지 못할것이다』고 못박았다.

먼저 고지를 점령한 아르헨티나는 和戰양면작전을 펴고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親英노선을 견제하기위해 對蘇접근동작을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내는가하면 美洲기구(OAS)국가들에는 특사를 파견하는 공동전선구축을 펴고있다. 또 안으로는 영국의 침략성을 강하게 부각시켜 국민의 컨센서스를 굳히고 있다.

5일만의 小康상태를 깨뜨린 9일 영국군이 포트스탠리 공격을 재개하자 이것을 大會戰의 전초전으로 받아 들이고있다.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시내의 모든신문들은 주먹만한 표제를 단 1면 머릿기사로 이를 대서특필하고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크게 보도했다.

영국의 이날 공격은 영국이 기대하는 「위협효과」보다는 오히려 「反英감정」만을 더 고조시켜준 감이 있다.

합참본부는 이날새벽4시45분(현지시간)부터 하오4시까지 사이에, 8개의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영국군이 9일 새벽 1시15분부터 2시5분까지 함정과 헬機로 포트스탠리와 포트다윈을 공격, 50분간교전했고 또한 이날상오 9시5분에 영국전투기가 아르헨티나선박을 공격, 침몰시켰으며 25명이란 이 선박의 구명정에 무차별 사격을 퍼부었고 이들을 구조하던 구조선도 공격했다는게 코뮈니케의 내용이다.

포트스탠리와 포트다윈에 대한 피해사항은 발표되지 않았고 『영국군의 비인도적 공격』만을 클로즈업 시켰다.

그런가 하면 하오6시에는 아르헨티나 전역에 걸쳐 국기배례식을 가졌고 하오9시부터는 1시간20분동안에 걸쳐 4大TV방송이 지난 1일에 있었던 영국군의 첫 포트스탠리공항 공격모습을 국영TV가 취재한것을 받아 동시에 방영했다.

영국의 해리어機공격-공항시설의 일부파괴-대공포화-공습 해제후 아르헨티나군의 정찰-전사자추도식-아르헨티나수송기의 착륙등으로 이어지는 이프로는 전쟁을 안방까지 끌고 들어와 시청자에게 큰 반응을 일으켰다.

決戰을 앞둔 전시홍보의 백미였다.

아르헨티나의 기본전략은 공격보다는 방어에 우선을 두고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싸움은 6백㎞對1만6천㎞의 싸움으로 비유된다.

아르헨티나는 본토에 기지를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공군력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미라지機21대, 미국제 스카이호크機79대, 이스라엘제의 대거機26대등 모두 1백26대의 신예기를 갖고있는 아르헨티나 공군은 영국 기동함대의 30여대 해리어機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공중전의 결정적우열을 가리는 전자기술면에서 뒤지고 있는것이 취약점이기는하나 지난번 영국신예구축함 셰필드號격침으로 이열세가 큰차이는 아닌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공군기는 南대서양작전사령부 (TOAC)가 있는 연안도시 코모도로·리바다비아와 리오·가제고에 분산되어 있다.

포클랜드와는 각각 8백㎞와 6백㎞의 거리다. 항속거리에 다소 무리가 있는것이 약점이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셰필드號격침에서 성공했듯이 공군력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이용해서 영국함정에 대해 가미가제式공격을 구상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어뢰·폭탄·空對地미사일을 장비한 8대의 스카이호크기로 구축함을 집중하면 5대는 실패하더라도 3대는 성공할수 있다는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성공확률이 30%는 웃돈다는 것이다.

해군력은 항공모함이 1척, 구축함 2척등 모두 14척으로 연안의 수준을 넘지못하는 소형함대다.

아르헨티나함대는 영국核잠수함 1척에도 꼼짝하지못하는 열세로평가되고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함대는 암초가많고 수심이 낮아 영국核잠수함이 작전하기 어려운 연안에 은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지상군은 포클랜드島에 모두 6개대대 1만2천여명이 주둔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천8백여명이 집중거주하고있는 東포클랜드에 5개대대, 西포클랜드에 1개대대가 주둔하고있다. 영국군은 방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西포클랜드보다는 東포클랜드의 남북을 잇는 요충인 다윈에 상륙작전을 펼것으로 추측되고있다.

포클랜드에는 영국의 봉쇄작전에 대비, 보급이 차단되어도 3개월~6개월동안 버틸수있을만큼 충분한 비축물자가 준비되어 있다고한다.

또한 영국의 상륙작전에 대비, 地對空미사일과 요소요소에 지뢰를 매설, 사실상 요새化 되어있는 곳으로 알려지고있다.

아르헨티나가 우려하고 있는것은 영국군의 연안도시 공격이다.

서울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거리에 상당하는 전장 2천여㎞안에 거쳐 상당한 간격을두고 위치해있는 주요군사도시는 아르헨티나 제1의 유전도시이며 陸·空軍 작전사령부가 있는 코모도로·리바다비아와 포클랜드의 보급을 맡고있는 공군공수기지가 있는 리오·가제고, 그리고 해군기지가 있는 지구의맨남쪽끝도시 우수아이아등 3개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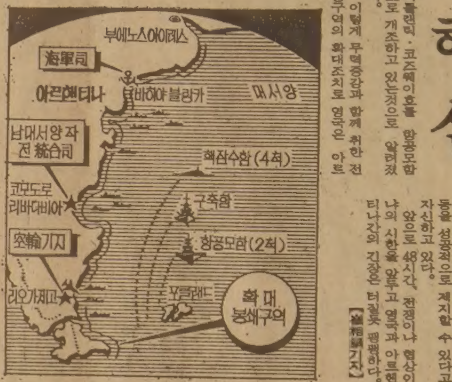
코모도로·리바다비아와 리오·가제고市에선 민방공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포클랜드와는 6백㎞ 떨어져있고 또 가장 번잡한 도시인 리오·가제고市에서는 10代이하 아동들과 부녀자들을 인근 소도시로 소개시켜 놓고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연안도시를 공격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영국의 선제공격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태세다.

◇『말비나스는 우리것이다』…최근 민방공학교를 수료하고 공군하사관에 편입된 4명의 아르헨 여군병사들이 말비나스결전에앞서 대기하고있다.

아르헨現地표정과 英國의 戰略



「철수時限」설포…'擴戰'·'協商' 선택만 남아

英國

영국의 포클랜드 기동함대는 9일 새벽 포트스탠리를 3번째로 폭격, 지난5일동안 지속되던 전투의 小康을 깼다.

이날 공격을두고 군사전문가들은 『포클랜드상륙을 앞둔 방어태세의 시험』 『본토폭격을 노리는 양동전술』등의 해석을 내리고 있다.

분명한 것은 영국이 그 어느 쪽이든 작전의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英의 軍需物資 공수현장 英國국방성이 최근 공개한것으로 시·킹헬리콥터가 아센션섬근해에 정박중인 英國기동함대의 한군함에 공수할 중요화물을 이섬의 와이드어웨이크비행장에서 들어올리고있는 모습. 【아센션섬8日UPI=聯合】

영국군의 포트스탠리폭격이 끝난 직후 대처수상이 주재한 전쟁각의는 이 두가지 대안 모두를 영국이 취할 수 있는 對아르헨티나군사압력수단으로 신중히 검토했다.

군사소식통들은 이날의 전쟁각의가 또 사실상의 최후통첩이 되는 48시간의 포클랜드철수시한을 결정해 아르헨티나에 비밀통고함으로써 전쟁과 협상의 어느 한쪽을 선택토록 압력을 가했다고 전하고있다.

영국정부의 이런결정을 뒤집어 해석하면 포클랜드의 영국기동함대가 이 시한까지는 본토폭격이나 포클랜드상륙작전을 단행할 수 있을만큼 전투력이 보강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군의 포트스탠리폭격이 『유엔의 협상중재노력을 훼방놓기위한 것이며 영국이 협상에 성의가 없음을 드러낸 새로운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영국은 국제여론의 압력도있어 유엔의중재협상에 응하고있으나 어디까지나 군사력으로 아르헨티나에 일격을 가해 양보를 받아내려는 속셈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영국은 적어도 전쟁에 졌다는 인상을 남기고서는 협상을 마무리짓지 않을 심산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한다.

지난 7일 취해진 전쟁구역의 확대조치에서도 영국은 이런 결의를 충분히 시사했다. 전쟁구역을 확대해놓고 영국은 20대의 해리어機와 3천명의 병력, 님로드 조기경보기, 수척의 구축함을 포클랜드기동함대에 증파키로 결정했었다. 이미 해리어기 20대는 아센션기지에 도착했고 3천명의 추가병력도 10일 역시 아센션에 당도하게된다. 새로파견될 구축함 브로드소드호와 브릴리언트호는 셰필드호를 격침시킨 아르헨티나의 엑조세미사일을 요격할 수있는 시울프미사일 4기씩을 장비하고있다. 영국은 또 컨테이너선 아틀랜틱·코즈웨이호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어機 20臺증강

섬孤立化 전격上陸

이렇게 무력증강과 함께 취한 전쟁구역의 확대조치로 영국은 아르헨티나 해역을 완벽하게 봉쇄, 공군력을 제지하고 포클랜드를 고립시키고자한다.

핵잠수함4척이 확대된 전쟁구역의 外선에서 본토의 주요해군기지를 봉쇄, 아르헨티나함모와 함대의 외출을 막는다. 그리고 함모2척은 포클랜드의 후방에 배치, 전방함대를 엄호함과 동시, 포클랜드의 상륙에 대비한다는 것이 영국의 전략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엑조세미사일을 발사한 에탕다르기를 제외하고는 해리어機보다 10년쯤이나 낡은 비행기를 갖고있기때문에 해리어機를 증파하면 아르헨티나의 공군력우세를 쉽게무너뜨릴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본토의 아르헨티나海·空軍力을 묶어놓고 포클랜드를 상륙하는 경우에도 영국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작전 시나리오를 구성해 놓은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포클랜드상륙작전이 전개될때 영국은 아센션의 추가병력을 수송기에 실어 포클랜드에 공중투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듯하다.

영국은 님로드 조기공중경보기의 활용으로 아르헨티나 공군기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앞으로 48시간, 전쟁이냐 협상이냐의 시한을 앞두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긴장은 터질듯 팽팽하다. 【崔相鎬기자】

英軍, 포클랜드 또爆擊

【부에노스아이레스·런던9日UPI·로이터=聯合】포클랜드전투에 참가하고있는 영국군은 9일 닷새간의 소강상태를 깨고 포클랜드의 수도 포트스탠리 공항을 공습하는 한편 첩보활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의심되는 아르헨티나어선 1척을 공격했으며 아르헨티나軍의 병력수송용 헬리콥터 1대를 격추시킨것으로 보도되었다.

아르헨티나군사정부는 포클랜드주둔 아르헨티나軍이 9일 새벽 1시40분 (한국시간 하오 1시40분) 포클랜드를 침공한 영국군을 격퇴했으며 포트스탠리 남쪽 66마일해상에서 조업중인 아르헨티나어선이 영국군의 공격을 받아 35명의 승무원중 1명이사망, 수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군사정부는 영국전폭기들이 아르헨티나어선에서 탈출한 어부들의 구명정에 기총소사를 가하는 『해전사상 전례없는 비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한편 영국 국방성은 영해군이 포트스탠리공항 주변의 아르헨티나 군부대를 공격했음을 시인하면서도 이날 공격이 포클랜드에 대한 어떠한 전면침공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포클랜드協商 진전

英외무성 '유엔에 전폭협력'

【런던10日AP=聯合】데·케아르 유엔사무총장의 중재하에 진행되고있는 포클랜드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한 영국·아르헨티나간협상은 몇가지점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고 영국외무성이 10일발표했다.

영국외무성은 그러나 아직 다른 몇몇문제들을 분명히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협상이 계속될것이며 영국정부는 페레스·데·케아르 사무총장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무성대변인은 협상에 시한이 설정되어있느냐는 질문에 영국정부는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싶어하고있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유엔주재 영국대사인 파슨즈경도 9일밤 뉴욕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많은점에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고 이날 밝혔다.

영국 보도기관들은 이날 뉴욕발 기사를통해 앤더니경이 데·케아르사무총장과의 최신회담에 들어가기전 대처수상정부의 또다른 매우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보도했다.

데·케아르사무총장은 이날 앤더니경 및 엔리케·로스 아르헨티나부외상과 별도의 회담을 가졌다.

◇추락 英機의 잔해 포클랜드군도의 포트스탠리 인근에 추락한 英해리어기의 잔해. 아르헨티나 관영텔람통신은 정확한 사진촬영일자를 밝히지않은채 9일 이사진을 배포했다. 【포트스탠리(포클랜드)10日AP=聯合】

英艦隊 포群島접근

海上봉쇄위해 미사일壓力 가중

【런던10日UPI=聯合】수척의영국 프리기트함정과 구축함이 포클랜드해역에 파견된 기동함대로부터 보다 효과적인 해공봉쇄임무수행을 위해 포클랜드군도 근해지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10일 보도됐다.

기함인 항공모함 허미즈호에 탑승한 영PA통신특파원은 해공봉쇄조치가 이제 이들 함정의 근접 이동으로 포클랜드군도와 포클랜드주민이 육안으로 보이는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에 대한 압력도 이제는 해리어 수직이·착륙기에의존하지 않고 『직접 적에게 가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클랜드군도 가까이 접근한 영국의 프리기트함정과 구축함들은 대공미사일로 무장돼있으며 또한 아르헨티나함대를 공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로 무장한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다.

유엔總長 仲裁계속

【유엔본부9日AP=聯合】엔리케·로스 아르헨티나외무차관은 9일밤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아르 유엔사무총장과약 1시간동안 회담했다.

한편 유엔주재 영국대사 앤터니·파슨즈卿도 이날 페레스·로스회담에 이어 페레스총장과 회담한뒤 본국정부의 『아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포클랜드通信

아르헨 愛國헌금 百50萬弗 金塊·자동차·주방용품까지

○…9일 아르헨TV가 戰費지원을위해 마련한 愛國헌금캠페인에서 1백50만달러(10억5천만원)상당의금품이 쏟아져 들어왔다.

헌납된 금품가운데는 금괴 50㎏, 각종보석, 가죽코트1백벌, 자동차, 주방용품들이 포함됐으며 1송이에 1만페소(4백90원)짜리 꽃 1백만송이가 팔렸다. 24시간 계속된 이 캠페인에는 연예인운동선수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했다고.

갈티에리 杜門不出

○…아르헨티나의 갈티에리 대통령은 포클랜드군도분쟁이래 상대국인 영국의 마거리트·대처수상과는 대조적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내거나 연설하는일이 거의 없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권력구조와 말비나스(포클랜드)군도분쟁의 특수성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갈티에리 대통령은 지난3주동안 공중앞에 모습을 드러낸일이 한번도없으며 모든 공식성명도 합참사령부 이름으로 발표되고 있다.

英國人 입국禁止令

○…아르헨티나정부는 8일 영국인에 대해 잠정적인 아르헨티나 입국금지령을 내렸다고 외무성대변인이 말했다.

이대변인은 이날밤 로이터통신에 『입국금지령이 발표돼 이미 실효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내무성이 이문제를 현재 취급하고 있다』고말했다.

봉쇄구역밖서 被沈

○…영국잠수함의어뢰공격으로 침몰된 아르헨티나순양함 헤네랄·벨그라노號는 피격당시 영국의 해상봉쇄구역밖에 있었으며 英함정에대해 전혀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벨그라노함장이 7일 밝혔다.

平和的해결 霧散

○…레이건美행정부는 아르헨티나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포클랜드사태를 평화적으로 타결하려는 마지막희망이 무산되고있는것으로 믿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8일 보도했다.

대처 20시간근무

○…마거리트·대처영국수상은 지난 6주동안 포클랜드위기를 다루기위해 하루 20시간이나 일했으며 1백명에 달하는 그녀의참모진들도 포클랜드위기이후 다우닝街10번지의 수상관저를 20초마다 한번씩 들락날락할 정도로 바쁘게 일하고있다.

시디 蔡外相 北京에

시디·사베트라 타이외상은 캄보디아저항세력의 反베트남연립구성문제를 논의하기위해 4일간의일정으로 9일 北京에 도착했다.

시디외상은 이날 北京공항에서 中共외상 黃華의 영접을 받았다고 홍콩에서 수신된 中共관영新華社통신이 보도했다. 【홍콩=聯合】

이, 레바논爆擊 休戰와해危機

【베이루트·텔아비브9日UPI=聯合】이스라엘 공군기들이 9일 남부 레바논의 연안과 내륙에있는 팔레스타인 게릴라기지들을 또다시 무차별폭격하기 시작, 상당수의 사상자를 냈으며 팔레스타인측도 이스라엘 국경지역에 보복포격을 감행함으로써 지난10개월전에 성립된 양측간의 휴전협정은 두번째로 와해될위기에 처했다.

메아리

벚꽃잔치 決算

벚꽃놀이라 하면 창경원을 연상하고 창경원이라 하면 밤벚꽃놀이와 동·식물원을 연상한다.

벚꽃이 아름답기로는 창경원 말고도 국내 여러곳이 있다. 특히 진해의 시가지를 온통 꽃보라로 뒤덮이게 하고 또 쌍계사 들머리 화개장에서 절로 이르는 길의 벚꽃도 볼만하다.

벚꽃은 장미과의 낙엽교목인데 10여종류가 있으며 이웃 일본의 나라꽃으로 일본사람들이 좋아도 하고 내세우기도하나 기실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알려지고 있는 꽃이다.

그런데 9일로 한달동안의 창경원 밤 벚꽃잔치가 끝난 참이다. 밤벚꽃놀이에 무려 1백37만여명의 상춘객이 몰려들었고 입장료수입만도 5억3천여만원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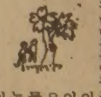
창경원에서 밤 벚꽃놀이가 시작되면 정문앞에선 밀려드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교통이 막히고 공원안은 안대로 꽃그늘에 인파가 물결쳐 이리저리 밀려 다니느라 꽃놀이는 말뿐, 실컷 사람구경이나 하다 돌아가기가 고작이다.

우리나라 재래의 풍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지어 밤에 꽃을 구경한답시고 꽃그늘에 술판을 벌이거나 떠들썩하는 일은 없었다.

밤에 꽃을 찾는다면 외딴 서당에서 저녁 이슥하도록 호롱불 아래서 독서삼매에 젖었던 선비가 문득 어둠속에서 은은히 풍겨오는 매화향기에 이끌려 호롱불을 들고 심매(尋梅)하는 그윽한 정취가 있었을 뿐이다.

근래 해마다 봄이면 으레 있어왔던 창경원의 밤벚꽃놀이와 꽃그늘에서 질탕한 주연을 벌이는 풍습은 아마도 일제시대 이래의 일로써 뿌리가 꽤깊은 것이나 이제는 정착된 느낌이다.

몰리는 인파 또한 해마다 느는 추세에 있다는게 당국의 말이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10만명이 는 반면 시민들의 공중질서를 지키려는 의식이 높아져 미아는 1백35명이었다. 예년까지 5백명이던 실정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셈이다.

꽃만아니라 꽃을 꺾거나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취한도 없었다니 비록 뿌리가 얕은 새풍속 밤벚꽃놀이 일지라도 아름다운 꽃그늘아래서 제각기 도리를 지키며 즐길수 있는한, 앞으로도 세세연년 이어져 무방하리란 생각이 든다.

씨알여름학교안내

씨알예술제 '82

창작음악극 **토 끼 전** 2막4장
김옥자 각본 유회자 작곡
그외 씨알 무용단의 탈춤, 바이올린 합주, 씨알 합창, 태권도, 미술전시등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각 한글학교의 어린이들과 부모님을 초청하오니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고 어린이들의 한국어 공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2년 6월 5일 토요일저녁 7시30분
Central Technical School(베다스트와 하보드)
★어린이 무료 어른 2불

씨알 여름학교 안내

씨알여름학교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름방학을 가장 보람있게 보낼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인 친구들 사이에서 구김살 없이 학교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짧은 여름동안에 배우는 양은 어느 학교에도 비교할수가 없읍니다. 한국어를 비롯해 자기가 선택하는 예능과목, 정규학교 공부를 도와주는 영어, 수학, 과학, 그외에 수영, 운동경기, 축구, 야구, 현지견학, 소풍등 풍부한 프로그램과 유능한 선생님들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여러분 자녀의 여름을 값있게 보내도록 할것입니다.

자격: 유치반부터 9학년까지
시간: 아침 9:30부터 오후 3시까지 월-금
Day Care는 8시부터 6시까지
기간: 7월5일부터 8월13일까지
장소: John Wanless Public School
250 Brookdale Ave, Tor.
(로렌스와 아베뉴로드)
수업료: 1학생 160불, 2학생 310불
신청마감: 6월20일까지
뻐쓰: 동,서,다운타운, 미시사가지역에서 운행합니다. 6월 20일까지 441-2986으로 신청요망.
버쓰비: 한학생 140불, 두학생 270불
미시사가: 한학생 160불, 두학생 300불
Day Care Service: 60불을 추가

씨알여름캠프

모집인원: 60명 12학년이상, 등록선착순
기간: 8월24일~27일까지
장소: 보이스카웃 캠프장, 수세식 변소시설 되어 있음.
캠프비용: 45불
신청: 6월20일까지 신청서와 수표를 우송하여 주십시요.

씨알여름학교신청서

학생이름 ____
생년월일 ____
현재학교이름 ____
학년 ____ Brough of ____
주소 ____
____ Postal Code ____
전화번호 Res.____ Bus.____
신청과목 영어, 수학, 과학,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무용, 태권도, 축구
▲이중에서 두과목만 ○ 치십시요.
보낼곳 The See-All Korean School
150 Madison Ave, Tor, H5R 2S5
부모이름 ____ 싸인 ____

씨알여름캠프신청서

학생이름 ____
학년 ____ 생년월일 ____
전화번호 Res.____ Bus.____
주소 ____
____ Postal Code ____
보낼곳: The See-All Korean School
150 Madison Ave, Tor, M5R 2S5
부모이름 ____ 싸인 ____

나의 이력서

金蘇東 ㊶

(題字 金蘇東)

생활의 방편으로 불편생활을 해왔으나 큰 희망도, 큰 발전도 기대할수 없었다. 그동안 얻은 것이라고는 한반도의 자동차사업망과 자동차부속품, 기계공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한것 뿐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쓰이는 그많은 베어링의 종류를 번호만으로 척척 구별할수 있을 정도로 능숙해졌고, 부속품에대해서는 사전과 같이 자세해졌다.

서울의 상사들로부터 사들이는 조선운송의 부속품과 기계공구의 수요는 막대했고 매일 지불하는 금액도 엄청나게 컸다. 전쟁으로 배급되는 물량은 날로 늘어갔고 아세틸렌자동차, 목탄자동차의 부속품도 그량이 막대해졌다. 선택, 구입, 발송등의 일을 혼자해내는 내 실력이 회사에서 크게 인정받아 급료도 약간 올랐다. 노선자동차사업은 확대되었고 화물자동차의 보충도 시급해졌다.

機械商 개업

購買係시절에 익힌 部品知識이 바탕

당시 일본에서는 이스즈, 大甲, 닛산, 도요다등의 자동차를 생산했고 그 판매회사들이 서울에 설치되던 때다. 그 화물차의 보충과 매입 사업에도 관여했다. 그러는동안 서울시내의 수많은 기계상과 일본에 있는 기계상사들과도 친숙하게 거래하는 유능사원이 됐다. 서울에있는 상사들은 대우를 후하게 해줄테니 자기네 회사로 와서 일해달라고 유혹했다. 생활의 방편으로 취직을한 바에야 군색하지 않은 생활이 필요했고, 또 일본인들의 압제를 피할 수도 있었다. 그뒤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의 서대문 네거리 근처에 흥아기공이라는 기계상을 차렸다.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면 반드시 치부할수 있다는 점에 자신을 얻은 것이다.

필요한상품들을 오오사까나 나고야에 전화로 주문하면 재차편(당시 물건을 가장 신속하게 수송하던 방법)으로 보내준다. 보내준 물품의 대금은 한달후에 일본에서 수금원이나와 받아갔다. 서울에 있는 상사들도 상호간 전화로 거래를 하고 한달후에 대금을 결제하는것이 상례였다. 내가 경영하는 흥아기공상사도 제 신용이 상승했다. 약간의 자금도 조성되었고 중국 陶周公의 치부비결도 터득해 나갔다.

(註: 陶周公은 越나라 구천왕의신하. 말년에 정치를 떠나 각국을 돌며 재치있는장사로 큰돈을 벌었는데, 번돈을 그나라에 다시 돌려주는 식의 장사를해 흠모의 대상이됐다)

한예로 1929년도에 만든 낫슈라는고급차가 있다고하자 그차에 필요한가장 중요한 베어링한개가없어 어쩔수없이 폐차해야할 경우, 그베어링의 값은 부르는게 값이다. 그러한 희귀품이 거의 없었다.

곰곰 연구한끝에 그 비결을 발견했다. 미국 제너럴 모터즈에서 발행한 모터 핸드북 한권을 미국으로 주문했다. 이책에는 1920년부터 1938년까지 제조된 각종자동차의 공통부품일람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었다. 예를 들어 1928년도 낫슈차의 트랜스미션에

◇자동차부속상을 경영할때의 필자가족들. 왼쪽부터 장녀 善枝, 2남 秀雄 (사망) 처 장남 辰雄 (在美).

美GM社 안내서주문 稀貴品공급 어려울적마다 顧客늘어 한때致富

사용되는 스타스트·베어링은 닷지차의 몇년도것과 같고, 또 올스모빌차의 몇년도와도 공통된다는등 동일한 베어링을 쓰고있는 자동차의 종류와 연대가 명시되어있었다. 이책 한권만 있으면 돈 벌기는 땅짚고헤엄치기였다. 이러한방법으로 상사를 운영하는 동안 찾기어려운 희귀한 물건들은 으례 나에게 의뢰되었다. 서울시내에 있는 상사들도 도저히 공급할수 없는 어려운 부속을 찾는 고객들을 나에게 보냈다. 척척 찾아줄뿐 더러 또 그 한개의 부속품이 폐차직전에 놓인 고급차를 새차나 다름없이 만들어주었다.

개업 1년만에 일금순이익 상당을 3만원 (현3억원정도)에 매입 전세집을 면했다. 병동에서 신당동 (유락동)으로 옮겨갔다. 수단껏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일제하에서 조선사람이 살아갈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며 또 민족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다만 그 방법이 문제이기는 하나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기만은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끄럽지 않게 살고, 부끄럽지 않은 양심으로 위기와 난국을 돌고 나가자는 것이 내 신조였다.

기다리노라면 반드시 때가올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늘 陶周公을 생각했다. 이때 일본의 대기업 소화전공이 진남포에 알루미늄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서울에 조선전공회사를 설립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0局 第8譜 101~118 (덤5집반 각5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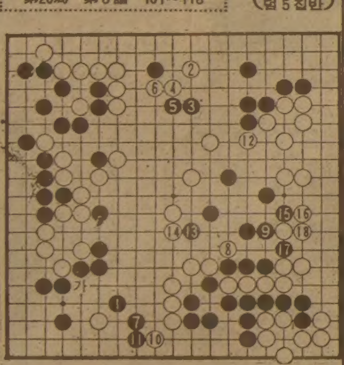
白 (7段) 河燦錫 〈3勝2敗〉
黑 (6段) 徐能旭 〈2勝3敗〉

黑1로 하변白의 어깨를 짚은수는 결사결사 白「가」로 끊기는수도 예방한것인데 여기서 河7단은 일단 손에 쥐었던 白돌을 통해 도로넣고 전체 형세를 살핀다.

전보에서 좌변白집을 한껏 유린당한때문에 黑의추격을 허용한결과지만 아직도 역전되지 않고있다.

이윽고 12분만에 방향을 크게 바꿔 상변에 白2. 黑1에 대해 손을 빼더라도 장차 白10에 모하는 것이 우하黑에 대해 선수로 듣는 맛이 있다.

이렇다면 河7단의 손빼기는 일종의 자랑거리랄까. 그런 기색이 얼굴에나 타나 보인다.



黑도 白2를 직접공격하기에는 중앙黑이 미생인때문에 자신이없다. 그래서 黑3, 5로 깨끗이 양보하고 대신 黑7로차단, 그만한 보상을 구했다. 이때 노타임으로 白8. 河7단은또 수하고 허를찾다. 黑9때 白10을 선잡고 白12. 黑은 13으로서 白8을 잡고 살수있는길이되었다.

白12로 참고도의 白2이하는 16까지 빅이된다. 그러나 白은 8까지 선수로 두어버려도 무방했다는 중론이다. 【一凡】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81

癌이 무너진다 〈9〉

世界의 抗癌전선…本社기자 現地리포트

스탠퍼드大 附設암센터

"인터페론은 「癌에 萬能」 아니다"

종류·환자反應力 따라 큰차이

"骨髓·만성乳房癌만 效果" 확인

일반藥과 달리 副作用없어 장점… 大量 生産 값싸져

스탠퍼드大學병원 암센터만큼 80년대에 각광을 받는 암전문병원도 드물다.

암센터라고해봤자 8명의 전문의와 10명의 간호원을 가진 소규모이지만 이들은 인터페론연구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왔다.

인터페론 첫 實驗

인터페론은 스탠퍼드에서 발견한것은 아니나 인터페론이 암의 특효약일것이라는 가설을 잡고 집중적인 실험을 처음 시도한것이 스탠퍼드팀이었으며 1979년에는 스탠퍼드大유전학교수 스탠리·코헨이 유전인자結合을 통한 인공인터페론을 만들어냄으로써 암학회의 관심이 단연 스탠퍼드쪽으로 쏠렸던것이다.

암병동으로 기자를 안내한 사람은 암병동의 수석간호원 미셸·M·마이어양이었다.

『80년대를 통해 스탠퍼드병원은 세계각지에서 몰려오는 편지, 전화, 손님으로 무척 바빴어요. 인터페론때문이었지요. 정말 인터페론이라는 秘藥이 발견됐느냐, 언제부터 일반 암환자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느냐등의 질문이었어요』

스탠퍼드에 앉아있는 세계적인 인터페론 권위자의 얼굴을 만나기전 시간을내어 병원의 이구석 저구석을 안내하는 미셸의 친절은 암병동을 도는 침울한 마음을 한꺼번에 가시게 할만했다.

『여기는 유방암환자』 『저기는 골수암환자』등의 설명을 해가는 미셸은 만나는 환자, 의사, 병원기사마다 그 한마디씩 웃음을 가득가득 건네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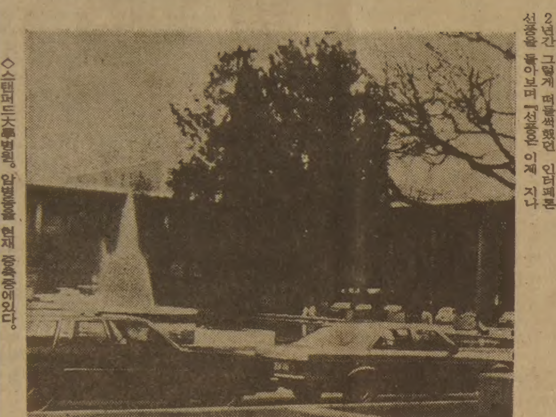
병실을돌아 방사선과로 내려오면서 기자는 그녀의 친절에 감탄하여 『어떻게 그렇게 친절할수 있느냐』라고까지 물었다.

사실 미국의 암병동을 취재하면서 암병동에서는 한번도 심한 不親切 같은것을 본일은 없었지만 미셸의 그것은 좀 월등하다고 생각됐다.

미셸의 얘기는 딱 떨어지는 것이었다. 암환자는 죽음과 싸우고 있는 것이며 그 투쟁과정은 두려움이 따라오는것이 정상적이다. 의사나 간호원들이 이들을 실망시킬 일이라도 한다면 그 타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웃음은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는 최선의 무기다. 들들의 이론이다.

암은 절대 전염되지 않는다. 입을 맞대고 몸을 마주하는 부부라도 암균이 건네지는 일은 없다.

아마도 암병동의 의료진들은 이런 不전염성의 특징때문인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암을 증오하는 심리가 환자에 대한 사랑으로 변해있는것 같았다.



◇스탠퍼드大學병원, 암병동을 현재 증축중에있다.

바이러스를 막아

美암협회 (ACS)의 6백만달러짜리 『인터페론의 암특효약성연구』계획을 받아 81년12월 그결과를 발표했던 토머스·메리간교수는 지난 1, 2년간 그렇게 떠들썩했던 인터페론 선풍을 돌아보며 『선풍은 이제 지나갔다. 그러나 그것이 인터페론의 암특효약성을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고 새단계로 접어들었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라고 말했다.

메리간은 인터페론의 암특효약 연구 프로그램을 맡아 지난1년간 쉼없이 신문지상에 그 이름이 오르내린 人物.

그는 언론들이 인터페론의 癌약효를 성급히 판단하여 보도하는터에 사실상 연구에 큰 부담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지난해 연구결과를 발표한후 일단 여론이 가라앉아 인터페론연구자체는 오히려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메리간이 비등하는 여론속에 인터페론藥效연구를 내놓은것은81년12월. 그는 1년여간의 6백만달러 짜리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인터페론이 암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약효는 암의 종류와 환자의 약반응에 따라 다르다』는 약간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인터페론이 암약의 秘方이라는 주장은 60·70년대를 통해 줄기차게 나왔던것. 그러나 인터페론이라는 것이 인체에서 생성되는 극히 희귀한 물질이어서 값이 엄청나게 비쌀뿐 아니라 구하기가 어려워 『그림의 떡』쯤으로 남아있었다.

인터페론은 人體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때 이 침범을 받은 세포가 바이러스 침입정보를 이웃 세포에게 알리는 일종의 傳達者인것으로 이해되고있다. 인터페론을 통해 바이러스의 침입을 안 이웃 세포는 反바이러스단백질 (Anti Viral Protein)을 생성하며 이 反바이러스 단백질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한다.

암균이 발생했을때도 인체에는 抗癌 인터페론이 발생하는데 이 인터페론을 뽑아내 암환자에게 주사하면, 결국 암이 죽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페론의 역할이 암균을 직접 죽이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암세포의 번식을 막아 결국 암이 사라지게하는지는 밝혀지지않고 있다.

어쨌든 1957년 영국의 생물학자엘릭·아이삭스와 스위스의사 진·린덴만이 처음 발견한 인터페론은 그동안 암의 만병약이라고 알려져왔으나 스탠퍼드大의 스탠리·코헨과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 (UCSC)의 허만·보이어가 유전공학을 이용한 인공인터페론의 생산에 성공하기 까지는 그 실효성이 약했다.

그동안 핀란드中央보건연구소가 백혈구를 이용한 인터페론생산을 해내고있었다.

인체의 백혈구를 빼내 바이러스로는 일정한 화학물질의 자극을 가하여 인터페론을 생산해냈다.

그러나 1밀리그람정도의 인터페론을 생산해내려면 『강물처럼 많은 피』가 필요하기때문에 1조분의 1그람의 값이 1백달러나 됐다.

加州大서 人工生産

1979년 스탠리·코헨등이 유전공학을 이용, E콜라이 바테리아들이 용한 인공인터페론을 만들어낸것은 일대혁신이었다.

이 『癌만능약』이 현실화될 희망이 부풀어졌던것이다.

여기서 美암협회(ACS)는 노벨상수상 DNA학자 폴·버그를 비롯, 스탠리·코헨, 토머스·메리간등의 출중한 인터페론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스탠퍼드大에 6백만달러의 거대한 인터페론연구프로그램을 맡겼던것.

연구는 人體인터페론과 인공인터페론의 2가지로 따로 실시했다.

우선 그비싼 자연인터페론을 써서 암환자들을 치료한 결과 임파선암환자 28명중 1명이 『현격한 효과』를 보였고 2명이 『상당한 효과』를 보였으며 유방암환자 25명은 치료결과 6명이 『현격한 효과』, 2명이 『상당한 효과』를, 골수암환자 14명은 4명이 『현저 내지 상당한 반응』을, 피부암환자 36명중 1명은『현저한 반응』을, 그리고2명은 『상당한 반응』을 보인 결과를찾아냈다.

유전자조작방법을 통해 만든 인공인터페론을 사용한 경우도 자연인터페론을 쓴경우와 대차없는 결과였다. 환자 7명중 2명이 『계속적인 반응』을 보였고 1명이 『근소한 반응』을 그리고 나머지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거나 오히려 병이 악화된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페론연구는 이제부터』라고 말하는 토머스·메리간교수.

癌藥이 암유발도

메리간의 인터페론보고서가 발표되던 81년12월 癌만능약의 탄생을 기다리고있던 암학회내지 관계자들은 내심 실망을 금치 못했던것.

『인터페론연구실은 12월의 발표로 우선 조용해졌다. 안정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안전한 결과를 가져오는 확실한 길이다』라고 메리간교수는 말하면서 인터페론 연구는 일반의 실망으로 오히려 雜音이 적어졌다고 만족해했다.

전체적인 데뷔로는 희미한것으로 남아있지만 개별적인 진전은 꽤 되었다는것.

우선 인터페론이 듣는 암癌이 드러났다. 연구결과 인터페론은 모든 癌의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骨肉腫 (Osteogenic Sarcoma), 多發性骨髓腫 (Multiple Myeloma), 非호지킨스性 임파腫 (Non-Hodgkins Lymphoma), 만성유방암(Metastatic Breast Cancer)에는 인터페론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골암, 다발성골수암, 非호지킨스性 임파종, 만성유방암등은 특히 難治영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암약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끌고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페론은 흔한 암약처럼 듣지않는 곳이다.

암약. 암환자들에게는 누구나 잘 알려져있는 6MP, 5FU, 아드리아마이신, 사이톡산, 이런것들은 물론이고 새로 개발되는 모든암약들이 심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머리가 빠지고 밥맛이 싹가시고 몸이 형편없이 말라빠지는등 그부작용의 피해가 이만 저만한것이 아니다.

암약이 암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방사선치료가 제2의 암을 유발한다는 신뢰할만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있다.

이런 부작용을 피할수있다는 것은 환자들에게는 曙光이 아닐수없다.

인터페론연구가 『희망있게 됐다』는 것은 또한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순수도 98%의 인공인터페론을 싼값으로 만들어 낼수있다는 것이다.

지금 스탠퍼드大學을 싸고있는 소위 DNA계곡에는 제넨텍, 시터스, 디낵스등 유전공학의 봄속순같은 기업들이 인터페론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스탠퍼드대학병원은 암센터를확장할 예정이다. 인터페론연구를 통한 스탠퍼드 암센터의 명성이 커지자 암환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82년이 다가기전에 제13병동을 열 예정이다. 골수이식수술실까지 마련할 이 새암병동은 특히 인터페론요법을 통한 암치료에 크게 投力할 예정이다.

熱波치료 큰성과

스탠퍼드大學병원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 대학의 1백년 역사에 비해 병원이 현재의 팔로·알토 캠퍼스에 들어선것은 20년 정도밖에 안된다.

스탠퍼드 대학병원이 主力해온 의료분야는 심장병과 암.

암은 특히 인터페론, 熱치료, 超音波치료, 超短波치료등 일반의 암병원들이손대지않는 특수분야를 집중연구해왔다.

방사선실에 설치돼있는 섭씨43도정도의 熱波를이용한 熱치료기 (Hyperthermia)는 아직 실험단계이지만 상당한 치료효과를 올리고있었다. 암렌·볼하 방사선실 담당관은 『열치료는 방사선치료자들에게 방사선치료 30분전 또는 30분후에 열을 쬐게하여 환자에 따라서는 큰 效果를 올렸다』라고 말했다.

별로 쓰지않는 超短波치료기는 기계제작당시의 금속냄새가 날정도로 신품그대로 있었지만 고열치료기는 손때가 반들반들 묻어있었다.

병원문을 나서면서 기자는 수석간호원 미셸에게 물었다. 『당신네들병원에서는 인터페론이다, 고열치료기다, 모두 실험단계의 것밖에 없는것 같다. 언제쯤 이런것들이 표준치료술로 세계에 보급될것같으냐』

상냥한 미셸은 제발 그런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하며 생긋 웃었다.

【샌프란시스코=鄭逸和기자】

癌투쟁의 司令塔

미국에 국립암연구원 (National Cancer Institute)이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50개주에 펼쳐있는 크고 작은 1백20여개소의 암연구소가 NCI라는 중앙기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타내고 있다. NCI가 전국암연구단체에 전해주는 연구비만도 연6백만달러에 이른다.

『NCI는 암과 싸우는 全미국인들의 중추기관임에는 확실하지만 절대로 명령기관은 아니다. 연구를 보조하고 정보교환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곳이다』

부원장 베이야드·모리슨 박사는 NCI가 맡고 있는 對癌투쟁의 막중한 임무를 그저 『보조하고 다리를 놓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연예산10억달러. 85년까지세워둔 예산규모는 매년 15~20% 증가하게 되어 있다.

1937년 보건성 예하기관으로 발족하여 전국암연구기관의 뒷바라지를 해오다가 1971년 국가암법이 제정됨으로써 예산과 기능이 대폭 확대됐다.

전국 22개종합암센터를 비롯한 암연구기관에 나가는 예산의 60%외에 연1천5백만부의 암전문지, 일반정보지를 제작·배부하며 암전문의를 기르는 교육계획을 대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암에대한 정보라면 옛것, 최신것, 진짜, 가짜할것없이 모든것을 관장하고 있다.

미국의 어느병원, 어느 연구소를 가도 이 NCI의 존재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말하지 않는곳이없다.

美국립 癌研究院

年예산10억달러…全國 百20단체총괄

어느 病院을가도 NCI의 손길느껴

운영을 총괄하고있는 모리슨부원장은 『NCI는 운영해볼만 하다. 정부가 돈을 대주면 민간도 돈을낸다. 미국의 암병원치고 NCI의돈을 받지않은 곳이 없지만 민간인의 기부금으로 커지지않은 병원도 없다』고 말했다.

텍사스의MD앤더슨 암병원이 그렇고 뉴욕의 슬론, 케터링암병원이 그렇다. 슬론, 케터링, 앤더슨ㅡ이런 이름들은 거대한 재산을 암전선에 던진 人物들. 한장의 주식이나 한자리의 명예도 얻지않고 그저 피땀흘려 번돈을 섬뜩 던진것이다.

국립암연구원은 이런 거국적인對암투쟁을 치르는 『한 선봉부대』라고 모리슨부원장은 겸손해했다.

◇모리슨 美국립암연구원부원장.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큇·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뱅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 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Bathurst / Bloor / CHINA HOUSE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6-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전량加工 재수출條件
바나나 流出…暴利

市中에 나도는것 모두不法
한箱子 萬원에 輸入…8萬원
대구산업·옥산양행등 4개社수사

일부 국내상사들이 재수출용바나나를 대량으로 국내시장에 불법유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있어 농수산부가 10일 치안본부에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나도는 바나나는 국내시장에서 팔수없는 전량재수출용인데다가 지난해 파임생산된 각종 과일가격을 더욱 떨어뜨리는등 유통질서까지 어지럽히고 있다는것.

◇이젠 바나나까지 도입가격의 7~8배의 폭리를 취하고있는 시중유출바나나。

농수산부 관계자는 국내시장 소비용 바나나는 반드시 농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올해는 물론 지난해에도 단一건도 추천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재 시중에서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는 바나나는 그대부분이 전량 재수출 조건으로 도입된 수출원자재용이거나 외화획득용 수입물인데 수출원자재용 바나나는 껌 또는 페이스트 (유아영양식 또는 과자제조용의 죽같은 형태의 반제품)로 만들어져 전량을 재수출하게 돼있다.

그러나 올들어 바나나가 시중에서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고 가격도 도입가격에비해 무려 7~8배나비싸게 팔리고있어 일부회사들이바나나유출을통해 폭리를 취하고있다는것이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현재수출원자재용 또는 군납용바나나를 도입할수있는 국내상사는 대구산업 (군납)옥산양행 한국대상흥업, 미보인터스트리얼등 4개상사뿐으로 이들상사의 지난해수입실적은 수출원자재용 17톤, 군납용 4백30톤이었다.

또 올들어 지난4월 말까지 수입된 원자재용 바나나는 지난한햇동안의 도입량에 비해 무려 13배인 2백20톤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새벽의 도매시장을 여러차례 점검했다는 한 농수산부 담당자는 지난3월중순께 이들 수출원자재용 바나나가 통관되기 시작한 직후부터 시중에 바나나가 범람했다고밝혔다.

한편 南大門상가등 시중청과물도매상가에 따르면 시중에서 7~8송이에 팔리는바나나 한상자(12㎏들이)의 도입가격은 1만원안팎수준이고 때때로 교포들이 귀국하면서 반입한 바나나는 12㎏상자당 5만원내외로 넘기고 소비자에게는 7만원내외로 다시판다는것이다.

"見質어음" 일부 詐欺罪
張여인事件 私債업자등 召喚…「割引수사」

오늘 搜査중간發表

李哲熙·張玲子씨부부의외화도피및은닉물사건을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 10일이들의 견질어음유통행위중 일부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판단, 이미 밝혀진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외에 사기혐의를 추가 입건키로하고 이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한편중간수사결과를 11일하오 발표할방침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이들부부의 사기혐의부분에대한 수사가 계속중이다』고 밝히고『11일 발표때는 이들 부부가 유통시킨 담보용 견질어음액수및 할인해준 어음액면의 사용처, 어음발행기업의피해액수등을 우선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부부의사기혐의에대한추가수사를위해 대검검찰연구관李鍾燦검사와 서울지검 鄭熙仁검사를 수사팀인 대검중앙수사부 2과에 보강시키는 한편 張씨가 할인해준 견질 어음액수와은행에서의 어음할인 과정을밝히기위해張씨와관계된사채업자 5,6명및은행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소환, 신문하고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채시장에 끼칠영향을 고려, 張씨와 관계된 사채업자만을 소환했을뿐 전체사채시장에대한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기업체로 부터 담보로받아 현금으로 할인교환한 견질어음가운데 발행기업으로부터 활용해도좋다는 양해를 받은 견질어음은 사기나 배임죄가 성립되지않지만 발행기업과 사용치않는다는 명백한 전제조건아래 발행된견질어음을 일방적으로 시중에 유통시켰다면사기나배임죄가 해당된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張씨가 유통시킨 견질어음가운데 담보용으로 보관만하기로 약속하고서 할인해버린 어음액수가 모두어느정도인가를 밝혀내는것은 시일을 요하나 업체들의 진정내용중 우선적으로 명백히 밝혀지는 부분만있어도 사기죄를 추가할 방침이다.

共榮토건 法定관리申請

부도직전인 상태로 알려진 共榮토건이 지난8일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신청을 냈다.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법원은 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회사업무와 재산에대해 가압류, 가처분및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수있다.

女子 마취強盜
음료수 먹이고 가게털어

10일 상오10시께 서울 東大門區 新內洞461 林英子씨(29)의 양품점에 30대여자마취강도가 들어 林씨와아들 正勳군(4)에게 마취제가든 음료수를먹이고 금고속에서 현금 12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林씨에의하면 이날 상오9시께 37세가량의 여자손님이 들어와 물건을 고르는척 이야기를 주고받다가『음료수를 먹겠느냐』며 자신에게는 삼강사와를, 正勳군에게는 야쿠르트를 건네줘 먹은뒤에 갑자기 졸음이와 쓰러졌다깨어나보니 금고속의 현금이 없어졌다는 것.

경찰은 범인이 9일하오4시께에도 이가게에와 林씨와 남편 金允鵬씨(31)에게 야쿠르트를 전하다 거절당해그냥갔다는 林씨의 진술에따라 계획된범행으로 보고있다.

결혼예물을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尹潽善씨 차남 美서 失踪2년째
뉴욕 尹同求씨 家族수소문…FBI수사

◇소식끊긴同求씨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있는 前대통령 尹潽善씨(84)의 차남 同求씨(29)가 뚜렷한 이유없이 2년째 소식이 끊겨 가족들이 공식, 비공식 채널을통해 찾고있으나 계속「실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사는 가족들에 의하면 同求씨는 지난80년 여름부터 편지나 카드, 전화연락등이 일체없었다는 것.

미국뉴욕에살고있는 同求씨는 각주를 돌면서 상업디자이너로 일해왔는데 서울에도 자주 연락을 하지않았어도 로스앤젤레스에 살고있는 형 商求씨(32·인터콘LA지사부사장)에게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전해왔다는 것인데 소식이 없기시작하더니 80년9월 서울鍾路區安國洞8의1 자택에서 치른 商求씨의 결혼식때도 연락조차없어 尹씨부부등 가족들이 同求씨의 안부를 걱정해왔다는 것이다.

同求씨의 소식두절이 장기화되자 尹씨는 대통령재직당시 측근이었던 金某씨 (전 대통령의전담 비서관·D일보미주지사장)를 통해 美國내 친지를 통해 수소문했는데효과가 없자 지난4월에는「부시」美부통령과 함께 귀국한 柳炳賢주미대사에게 同求씨의 소재확인을 개인적으로부탁했으며 柳대사는 FBI등 美수사기관에 의뢰, 소재수사가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同求씨는 尹前대통령과 孔德貴여사 사이의 2남중 차남으로 서울齋洞국민학교와 中央중학교를 졸업하고 中央高2년 재학중이던 지난69년 미 매서추세츠州에 있는 윌리스톤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72년9월 귀국한뒤 입대, 75년7월 육군상병으로 만기제대했고, 75년9월 재차 도미해 노드아일랜드의 디자인 스쿨을 졸업했다. 상업디자인을 전공한 同求씨는 졸업후 상업디자이너로 일해왔는데 기반을 얻어 美國각처를 다니며 활동해온것으로 알려졌다.

"獨立心 강해" 동창·僑胞들 밝혀

【로스앤젤레스支社=盧昌煥기자】同求씨는 어릴때부터 성격이 쾌활하고 사교적이었으며 미술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다.

한편 미국에있는 고교동창이나 친지들은 同求씨가 괴팍한 일면도있어 편지쓰기나 거처를 밝히기를 매우싫어하고 도자기, 그림등에만 외곬로 몰두하는 성격이라고 전했는데 최근에 본국가정에서 同求씨의 혼담을추진하자 同求씨는 더욱 본가와의연락을 꺼려했다는것.

失踪은 아닌듯
尹潽善씨 밝혀

한편 尹潽善씨는 10일하오 서울鍾路區安國洞8의1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아들로부터 연락이 끊긴것은 사실이지만 실종된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柳대사에게 同求씨의 소재확인을의뢰한사실을부인했다.

美國시민권 안가져
여러갈래로 수사

한편 同求씨의 장기실종에 대해 尹씨측근과 관계자들은 同求씨가▲개인적인 사유로 잠적했거나▲미국밖으로 출국한 흔적이 발견되지않았고 미국시민권도 얻지않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불순세력과의 관계가능성도 있지않은가 추정하고있다.

人道꺼져 母女중상
峴底洞 地下鐵붕괴 날림복구

서울西大門區峴底洞 지하철붕괴사고현장에서 지난번 복구됐던 인도의 지반이 무너져 행인모녀가 중상을입었다.

9일하오7시10분께 사고현장부근의 지반이 직경1m, 30㎝, 깊이70㎝가량 내려앉아 인도위를 걸어가던 李德順씨(40·여·母岳洞81의11)와 李씨의2녀 宣英媛양(13·안산국교6년)이 구멍에빠져각각중경상을입은것.

가슴까지 흙더미속에 묻혀 허우적 거리던 李씨 모녀는 10여분뒤 인근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에 의해구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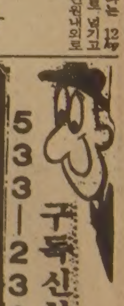
이날 사고는 지난달지하철 붕괴사고후 흙으로 메웠던 인도지반에 8일내린 비로 물웅이생겨 꺼지면서 일어났다.

밤길女人 핸드백
20代靑年 날치기

10일하오8시45분께 서울 西大門區 延禧洞105의20 앞길에서 이웃네 김금순씨(47·여·상업)가 현금5만원이든핸드백을 날치기당했다.

김씨에 의하면 가게가있는 연희 쇼핑센터가게문을 닫고 귀가하던중 뒤에서따라온 20대청년이 왼쪽어깨에 멘 손가방을 낚아채 10m쯤 앞에 대기시켜둔 승용차를 타고달아났다.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새벽한탕노린 택시들
驛광장까지 들이닥쳐

◇서울역 시계탑앞 광장까지「무법자」처럼 들이닥친 영업용택시들. 이들은 철야영업을 끝낸후 교대직전 마지막「한탕」을 하기위해 몰려든것인데 새벽4시10분께 도착하는 야간열차 승객들을 노린것이다. 그러나 승차장이 붐비자 단속의 허점을 이용, 불을 끄고 광장안으로 떼지어 몰려와 승객들의 짐이나 손을 끌어잡아당겨 강제호객행위도 일삼는다.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질서를 찾는 일이 시급하다.【8일 새벽4시15분께 서울역에서】

百여차례 億臺
훔친車로 聯立住宅골라竊盜
3人組에 拘束令狀

서울泰陵경찰서는 10일, 훔친 차량을 몰고다니며 연립주택을 골라 1억2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온 박영일(20·서울冠岳區 新林8洞1001)박상현(21) 홍성언씨(20)등 3명을붙잡아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등은지난4월3일하오 2시께 서울城東區 典農洞 227의8한준기씨 (32·상업) 집 연립주택에침입, 다이아반지 1개(싯가 1백50만원)의 귀금속 4점등 2백8만원어치의금품을훔친것을 비롯, 지난8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백여회에걸쳐 1억2천만원어치의금품을 훔쳐온혐의이다.

또 洪씨는 지난2일상오10시께 서울麻浦區城山洞200의256 앞길에 세워둔홍윤호씨 (40·회사원) 소유서울3다4074호 포니승용차를 훔쳐타고 달아나는등지금까지 6대의 차량을 훔쳤다.

이들은 연립주택만을 골라 초인종을누른뒤 인기척이 없으면 베란다로 침입, 금품을 훔쳐 차에싣고 달아나는 수법을 써왔다.

유명商標를 사들여 청바지에 붙여팔아
20代재단사 구속

서울城東경찰서는 10일 沈鐘玉씨 (26·재단사·서울冠岳區 奉天洞81)를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인 金泰東씨 (32)를 수배하는 한편 金永昭씨 (37·상업·서울江東區蠶室2洞260동401호)를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沈씨등은 지난 3월25일 平和시장의 상표상가에서 특허품인 부르뎀 등록 상표2천매 (싯가 16만원상당)를 사들여 어린이용 청바지 3백20개 (싯가 54만3천6백원)에 붙여 신평화 2층A동170호의 金永昭씨에게 넘겨 쥐 이를 팔게한 혐의이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첫 한국系 女警 로젠블룸嬢
地下鐵담당… 잘룩한 허리에 拳銃차고

뉴욕의 지하철에서 절절매던 교포할머니는『안녕하십니까』하는 서양여자순경의 말을 듣는 순간 구세주라도 만난듯했다. 여순경의 친절한 안내로 전차를 얻어탄 할머니는『저 참한 서양색시도 다있군』하며 연상 중얼댔다.

아이다·로젠블룸嬢 (Ida Rosenblum·24·사진)。

그녀는 뉴욕경찰에 탄생한 첫 한국계 여자경찰관이다. 仁川에서 유대인 아버지 허먼·로젠블룸씨와 한국인 어머니 주정자씨 (46·뉴욕거주) 사이에 태어나 3살때 뉴욕에 왔고 80년9월 뉴욕경찰관임용시험에합격, 지금 뉴욕시 지하철경찰로 맹활약중이다.

로젠블룸양의 근무지는 경찰이 맨해턴14번가에서 사우드페리까지의「남부맨해턴」。 경찰차량에 합상 12발의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차고 그무시무시하다는 뉴욕지하철의 치안을 맡고있다. 그녀는 근무중한국사람을만나는일 처럼 즐거운 일이없다. 한국사람인듯 싶으면 먼저 다가가서 서툰 한국말로 먼저 인사를 건넨다.

로젠블룸양은 경찰이되기까지 어머니주여사와 같이 많은역경을 싸워 이겨냈다. 어머니주정자씨가 아버지 로젠블룸씨와 결혼한것은 그녀가 仁川博文여고를 졸업, 富平에서 근무할때인 50년대末。

맏딸 아이다와 차녀 셰리양을 낳고 60년 남편따라 미국에 온후 4년동안 시어머니까지 모셨고 뉴욕 그랜드·스트리트의 아파트村에서 막내조쉬 (20)을 낳았다.

그러나 64년, 아이다가 7살때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죽고 다음해 아버지까지 사망한것。 그후 아이다와 셰리, 그리고 조쉬 세남매는 졸곧 홀어머니 자씨밑에서 컸다. 아이들을 키우기위해 어머니는 체이스·맨해턴은행에 비서로 취직, 지금까지 13년째 근무하고있다. 이런 환경에서 맏딸 아이다의 취직은 큰경사였고 어머니의 짐을 크게 덜었다. 그녀의 월급으로 코넬大학업반인 동생 셰리양과 포담大에 다니는 남동생 조쉬의 학비를 댈 정도가 됐다.

어머니가 펴여준 밥과 된장찌개 김치를 먹고자란 그녀는 요즘도 김치를 하루도 거르지않고 찾는다.

앞으로 한국남자와 결혼하겠느냐는 기자질문에 그녀는『좋은남편감 구해달라』고 농담 아닌듯한 부탁을했고 어머니 朱여사는『글쎄 너같은 왈가닥 여순경 데려갈 한국남자 있을지 모르겠다』며 활짝웃어보였다.【뉴욕支社】

각종 골프장비 특별세일

LYNX, BENHOGAN, TITLEIST, POWERBILT, SPADING등 각종골프채와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제 HONMA를 취급하며 골프신발, 백, 카트등 골프에 필요 한 모든 장비를 한자리에서 구입하실 수 있읍니다.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지도해 드 리 며 특히 여성초보자들을 위한 무료강습이 있으니 많 은 여성초보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5월1일~5월31일)

MUNAMI TROPHY & SPORT 이 기 훈
880 ELLESMERE RD. SCARBOROUGH ☎ 298-3584

한국, 泰A 거친 플레이 잠재워

킹스컵蹴球

심한태클뚫고 大破 3-0

印尼꺾고 4強진출

李康助·崔淳鎬 한골씩 2-0

【본사=방콕국제전화】한국 대표축구팀은 10일밤 방콕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제15회 킹스컵 국제축구대회 2차리그 B조최종경기에서 인도네시아를 2-0으로 누르고 예상했던대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이날 1차리그에서 1-0으로 격파했던 인도네시아를 다시맞아 전반6분李康助가 단독으로 왼쪽사이드를 치고들어가며 수비2명을 제친후 가볍게 선제골을 뽑아낸뒤 후반4분 수비로부터 롱패스를받은 崔淳鎬가 단독드리블을 하다 슛, 한점을추가, 완승했다.

한국대표팀은 이에앞서 9일밤 홈팀인 泰國A를 3-0으로 대파했는데 10일까지 5연승에 득점16골,무실점의 새로운 기록을 올렸다。

한편 이날 2차리그 A조 경기에서 싱가포르는 中共을 2-1로 제압했다。

◇2차리그최종일전적

한 국2 (1-0 / 1-0) 0 인도네시아

◇2차리그첫날전적

한 국3 (2-0 / 1-0) 0 태국A

◇태클 당할소냐 — 날아가는 韓一銀行。韓一銀 FW 柳鍾濂이 서울市廳 수비선수의 격렬한 태클을 뛰어넘어 볼을 쫓고있다。서울市廳이 3-2로 신승。

프로야구

도깨비팀 三美 슈퍼 스타즈가 프로야구의 선두경쟁질서를 뒤흔들어놓고 있다。三美는 5승13패로 최하위。그러나 상위를 다투는 선두주자들로서는 三美에 지면 치명타。

三星은 8、9일 大邱서열린 三美와의 2연전서 13-5、9-1로 연승、13승6패로 단독선두를 고수했다。

◇전기중간순위 (10일현재)

	승	패	승률
①삼 성	13	6	·684
②O B	12	6	·666
③해 태	8	9	·470
④MBC	8	10	·444
⑤롯 데	7	9	·437
⑥삼 미	5	13	·374

MBC 靑龍은 9일 해태 타이거스와의 서울경기서 홈런 6개를 날리는 격전 끝에 11-5로 대승、8승10패로 4위를 마크했으며、해태에 3連敗끝에 1승을 올렸다。한 1게임 최다 홈런을 기록한 이날 경기서는 두팀이 홈런만으로 11점을 올렸다。

OB베어스는 釜山경기에서' 9회초 9번 柳志烜의 좌전 결승타로 롯데 자이안트에 5-4로 신승、12승6패로 2위를 지켰다。

연예話題

"癌도 내演技 못뺏어"

66세 老女優 버그먼 필생의 熱演보여

◇버그먼

암과 투병을 벌이고 있는 여우 잉그리드·버그먼은 「암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있다。나머지 인생에 최선을다할 뿐이다」며 담담한 표정이다. 올해 66세의 버그먼은 6개월전 암이라는 선고를받고 주위로부터 은퇴할것을종용받았으나 이스라엘 골다·메이어수상을 그린 영화에서 끝까지 열연, 촬영을 마무리지었다.

「암이라는 운명을 거부할수는 없다. 그러나 앉아서죽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투쟁하면서 삶을 연장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겠는가」는 것이 노여배우의 의지다.【外】

主演 선전에 갖가지 作戰

불황邦畵界 自費시사회도

극장가의 불황이 심화되자 주연배우들이 방관만 하고있을수 없다며 관객동원에발벗고 나서 화제가되고 있다.

최근 촬영을 끝낸「여자의함정」(감독 李赫秀)에서 공연한 丁允姬·尹一峰은 이영화의 흥행성공을위해 주연배우로서 선전에 앞장서기로합의, 서로가 자신의 팬을위한 시사회를 자비로 개최키로한 것。丁允姬의 팬초대 시사회는 12일하오2시, 尹一峰의 팬초대시사회는 13일하오 2시, 각각 영화진흥공사시사실에서 갖기로했는데 감상후에는 영화의 평가를겸한 대화의 시간도가질 예정이다。

두스타가 팬 초대시사회를 마련한것은 최근 있었던 시사회에서 이 영화가 호평을 받자 다시한번 팬들의 심판을받아보자는데서 비롯됐다。

尹一峰은『본 영화외에는 관객이 없다고 한숨을 쉬고 있는 영화가에 좋은영화는영원히 관객이 있다』는것을보여주겠다고 기염을토하기도。

映畵「불의 전차」主題曲 1위

3週間「아이러브·로큰롤」2位처져

팝토픽

지난달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불의전차」의 주제곡이 이번주 미국 싱글팝 레코드의 베스트 셀링 톱을차지했다。

「불의전차」는 오스카상에서 작품상뿐 아니라 음악상도 함께 수상했던 작품。

지난 3주일동안 톱을 지키던 존·제트 & 블랙하츠의 「아이 러브 로큰롤」은 2위로 처졌다。

이번주 텐톱팝에 새로 랭크된 곡은 토미·튜톤의「867~5309~제니」와 폴·메이비스의「65러브 어페어」 2곡이다。

한편 컨트리·웨스턴 싱글차트의 톱은 지난주 3위였던 조지·스트레이트의「You're thinking you want a stra[e]」가 차지했다。【AP】

◇싱글팝·베스트10 (캐시박스선정·괄호안은 지난주 순위)

△1 (3) 「Main theme from chariot of fire」=뱅겔리스
△2 (1) 「I love rock'n roll」=존제트&블랙하츠
△3 (2) 「We got the beat」=고고스
△4 (4) 「Freeze frame flame thrower」=게일즈 밴드
△5 (5) 「Don't talk to stranger」=리크·스프링필드
△6 (9) 「Evony and Ivory」=폴·매커트니
△7 (7) 「Key largo」=배르티·히긴스
△8 (6) 「Make move on me」=올리비어·뉴튼·존
△9 (12) 「867~5309~Jenny」=토미·튜톤
△10 (11) 「'65 Love Affair」=폴·메이비스

「에버니 아이버리」英텐톱팝 首位고수

폴·매커트니의「에버니&아이버리」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 英國의 베스트셀링 싱글팝차트의 톱을 지키고있다。폴·매커트니의 이같은 히트는 지난77년「물·오브 컨타이어」이래 최고의 빅히트로 간주되고 있다。

또 엘튼·존의 블루·아이스와 로큰롤의 다이애너주로 불리는 아가씨들의 그룹인 헤어컷·원헌드레드의 「판타스틱·데이」가 각각 10위권안에 다시 랭크되었다。【AP】

流星의 賦 <379>

李炳注 作 李友範 畵

고독한 英雄 ㉞

이순신과 원균이 이끈 수군이 한산도(閑山島)에서 큰 승리를 올렸다는 소식을 홍계남이 들은것은 이무렵의 일이다。

이른바 이 한산대첩은 세계 해전사상(海戰史上)빛나는 한페이지를 장식한다。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된것도 한산대첩이 결정적인 자극이 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북쪽으로부터 나날이 패전의 비보만이 날아들어왔다。그 가운데서도 가장 비통한것은 해정창(海汀倉)의 전투 소식이었다。

남병사 이혼이 철령에서 패배한 것은 6월12일의 일이다。이로 인해 함경남도의 여러 군읍에 있던 군사들은 뿔뿔이 헤어져 무인지경이 되었다。이 무인지경을 가등청정의 군은 승승장구하여 7월18일엔 마천령(摩天嶺)을 넘어섰다。

이때 북병사 한극성은 회령、종성、온성、경원、경흥、부령등 6진의 군사를 모아 달려와서 길주 임명에 진을 쳤다。그리고 고령민으로 하여금 정병 4백명을 거느리고 북청을 지키게 했으나 고령민은 적의세가 왕성한 것을 보고 두 왕자를 따라 마천령을 넘어 돌아왔다。

철령이북의 패주한 병력을 수습하여 마천령을 지키려던 한극성은 적이 이미 마천령을 넘어간 뒤였으므로 적을 포위 공격할 작정으로 해정창 쪽으로 출전했다。

이때의 병력은 1천여명。

적은 창내의 마대와 가마니를 곡식이 들어 있는대로 성처럼높이쌓아올리고 아군의 화살을 피하면서 조총을 연발했다。우리의 전법은 밀집대형으로서의 공격이었다。그러니 적이 쏘기나 쏘아대는 족족이 탄환이 백발백중의 효과를 내었다。드디어 부령부사 원희(元喜)는 적의 머리 한급을 베고 마침내 힘이 다하여 전사했다。

한극성은 패주하는 아군을 극력 수습하여 임명을 근거지로 하여 다음날 공격할 작전을 세웠다。그런데 그날밤 적은 야음을 이용하여 잠복해 들어와 우리의 근거지를 미리 포위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그리고 다음날 아침 즉 7월19일 아침 안개가 자욱한 때 좋속에 숨어 있던 적군이 일발의 포성을 신호로 하여 별안간 돌격을 감행하여 왔다。

한극성군은 적이 아직 산 아래에 있을 것으로 알고 안심하고 있었던 터라 돌연한 공격을 받으니 감당할수가 없었다。대항은 커녕 쥐구멍을 찾기가 바빴다。도망치려다가 거의 총탄에 맞고 칼에 맞아 죽었다。전투다운 전투도 못해보고 패족을 당한 것이다。

한극성은 일방으로 혈로를 뚫어 경성쪽으로 도망을 쳤다。그런데 그를 뒤 따르는 우리의 군사는 하나도 없었다。

이 전투는 홍계남이 과천령의 전진을 월환한 전법을 일본군이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북병사 이혼이나 남병사 한극성은 몰다 통렬한 전법에 의해 북도의 요충을 적에게 내어 주었을뿐 아니라 아무런 보람없이 많은 인명을 손상케했다。

이렇게 북도 육진의 정병 1천여명은 모조리 궤멸상태가 되었다。그런데 사정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북도 각지에서 엄청난 반란이 발생했다。패전은 흔히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적을 앞에 두고 일어난 반란은 패배이상으로 치욕스러운 일이었으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07>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 ㊶

『난 자기가 이렇게 추근추근한 사람인줄 몰랐어』

천신만고끝에 만난 수지의 첫마디였다。야비한 욕설 아니면 지엄한 경고나 듣기 일쑤인 전화통에도 매달려 봤고、첫사랑에 눈뜬 십대소년처럼 수지네 집 근처를 배회도 해보았고、중간에서 다리를좀 놔달라고 수지의 친한 친구를 만나 애걸도 해보았다。

인재가 이렇게 수지와 그를 가로막고있는 보이지않는 장벽을 뚫기위해 온갖수모와 박해를 무릅쓴 것은 수지 역시 그 못지않게 그가 보고싶어 애타고 있으리란 믿음 때문이었다。도대체 어떤놈모가 수지를 에워싸고 수지를 옥바지르고 있을까。구해내야지 구해내야지。

낮동안 회사일은 통 손에 잡히지않은 채 오로지 수지를 구해낼 생각으로 이야기속의 기사처럼 씩씩하고 정의롭던 그도 수지네 집근처까지 달려오는 사이에 무력한 겁장이가 되고말았다。

수지하고는 그렇게 오래사귀고 약속한바 없이도 장래를 믿게된 사이건만 한번도 정식으로 초대된 적이 없는 집이 저만큼 바라보이기만해도 인재는 그 동네가 온통 이방의 도시처럼 낯설고 서먹서먹했다。

한번도 초대된 적이 없고, 따라서 가족들과 정식으로인사한 적도 없다는 사실이 그들의 사랑에 결정적인 혐이 될줄은 미처 몰랐었다。현이 될 뿐아니라 이젠 숫제 그들의 사랑을 송두리째 무화(無化)시키려 하고 있었다。

약한 마음으로 우러른 수지네집은 아름답고 견고하고배타적이었다。쇠꼬챙이가 안팎으로 날을세운 높은 담장안엔 수목이 울창하고 그녀머에 우뚝선 양옥은 시골이발소에 걸린 액자속의 질처럼 영원히 이국적이었고、창마다 헤이스 커튼이 늘어져 있고 불이 밝았다。

속속들이 시골뜨기인 인재는 그 속에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짐작도 할수 없었다。아침 저녁 외국산 분홍색 대리석 바닥으로 유연하게 미끄러져 드나들고 고속 엘리베이터로 이십층을 오르내리는 최첨단의 직장에 아무리 익숙해졌다해도 그걸 모른는한 그는 이 도시에서 시골뜨기 신세를 면할수 없었다。

수지가 저기서 살고있기나 할까? 저속에 있고서야 이렇게 엄씬도 안할수가 없지。아마 어디로 납치라도 당했을 거야。입에 자갈을 물리고 질질 끌려서。

인재가 저만큼 수지네를 노려보면서 할수있는 생각은 고작 그 정도였다。그러면서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미친개처럼 으르렁댔다。그건 실로 지옥의 고통이었다。인재가 만일 조금이라도 체면이라는 걸 생각했다면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나 할 짓이지 노상에서 할짓이 못됐다。

지섰으면 감천이라고 그러다가 만난 수지의 첫마디가 겨우 추근추근하다는 차디찬 경멸이었다。그러나 인재는 아무일 없는 수지를 만난 것만 반가와서 어쩔줄을 몰랐다。그동안의 노심초사는 악몽처럼 멀어내고싶었다。

『뭐라구?』

그 정도의 반문도 수지를 반강제로 근처의 다방까지끌고가고나서야 할수 있었다。

『제발 추근추근하게 굴지좀 마。제발』

『내가 추근추근하다구?』

『그래 내 말이 뭐가 잘못됐어?』

수지가 인재를 치한(痴漢) 바라보듯 경멸과 공포를 가까스로 억제한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Noor Es (INTERNATIONAL)
Importers & Wholesalers
UNIT 7, 777 WARDEN AVENUE
SCARBOROUGH, ONTARIO
Tel. 757—9271

Special 'Alarming' Pro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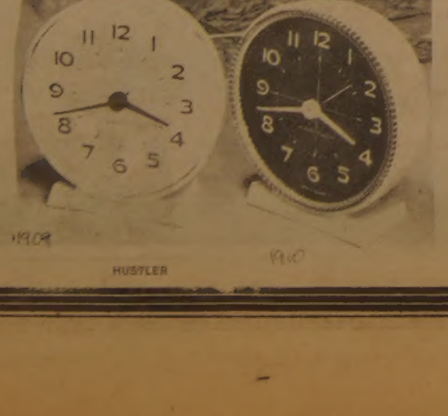
BUY ANY SIX CLOCKS
— ONE F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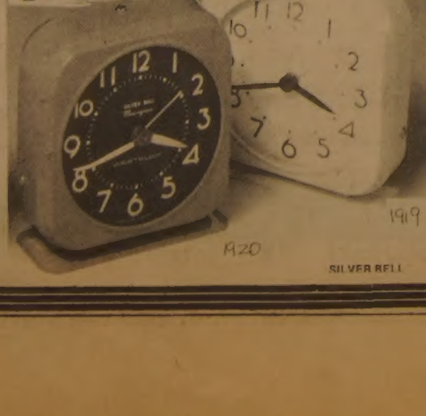
「NOOR ES (INTERNATIONAL)에서 알립니다」

본사와 거래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지상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근간 많은 고객으로 부터 문의를 받은바 있는 본도매상의모든 상품의 가격 문제는 어느 도매상과도 비교 될수 없는최저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더우기 치솟고 있는 가격의 변동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저선을 유지 한다는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곳보다 특별할인을 받고 있다는 점 잊지마시고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Keywound Ala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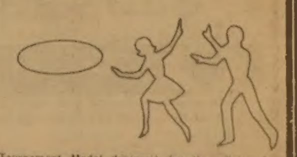


MASTER FRISB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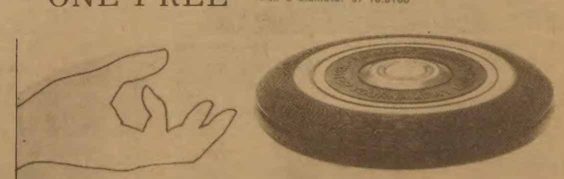
MA 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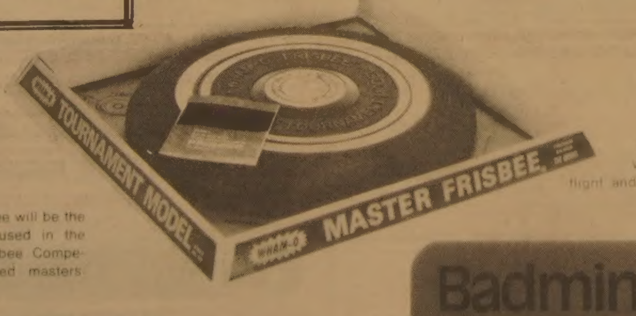
BUY SIX
—ONE FREE

Noor Es (INTERNATIONAL)
Importers & Wholesalers
UNIT 7, 777 WARDEN AVENUE
SCARBOROUGH, ONTARIO
Tel. 757—9271



The Master Tournament Model designed for the aficionado. International Frisbee Association approved, weighing 150 grams with a diameter of 10.9168





NEW
Increased size and weight for optimum flight and wind performance

*The Master Frisbee will be the Official Frisbee used in the International Frisbee Competition for qualified masters

MA 930

JUNIOR
BADMINTON

BUY 3
—2 FREE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학생구함
피아노 레슨, Theory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명(오후 5시이후 연락바람)

유경험자 토요일,일요일 Variety Store Helper 구함.
영 / 에그린톤 부근.(낮12부터 밤10까지)
전화: 481-2172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입주하셔서 아기 둘 보아주실분 구함
전화 : 929-0882

남•녀 관계없이 Milk Store에서
일하실 Helper구함
전화 : 691-3666

입주하셔서 집안일 도와주시고 노인네(여자분) 시중들어 주실분 구함.
전화: 742-8537(5시이후 연락바람.) Mrs. Kim

경험있는 여자 캐셔 구함.(Good Wage)
(스카알렛×이그린톤: 서부지역) 전화: 767-0762

Rose Garden 웨이추레스 급히 구함
경험자, 영어가능자 원함.
전화 : 654-6609 12시 이후 연락바람

Full Time or Part Time 캐셔구함.
동부지역 전화: 422-3121

광 고 접 수
533~2361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매매및 양도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Building For Sale
토론토 서부지역 매우좋은 위치의 Corner building
10 Apartments, 7 Stores
Yearly Income : $79,000
Yearly Expense : $23,500
First Mortgage : 13%, 1985년까지
아스킹 프라이스 : $439,000
Call Spiros 762-9134

Variety & Hardware Store 매매
주매상: $9000이상 권리금및 Stock은 All Cash
요구, No Mortgage! 리스 4년+옵션 5년
361 Carrville Road,Thornhill Ont. (Hill Crest Mall옆)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ilk Store 매매
주매상 : $4,500, 리스 : 5년+옵션5년
394 Browns Line, Etobicoke, Mr. Kim

건물및 상점(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현주매상 : $8,500~$8,800 아스킹 : $229,500
로타리오 머신 (별도)
237 ParkLawn Rd.(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최고의 거주지역에 위치한 Corner Variety Store!
(독립2층빌딩및 비즈네스)(Detached Drick Two Story Building)
아스킹: $239,000 주매상: $4,500이상
다운페이: ¼ 아스킹 프라이스
Carol Chao 596-8681
Gulios Aloi Real Estate

BUSINESS BARGAINS
드라이 크리닝 장비 싸게 팝니다.
4 Drycleaning Plants asking $29,000, $49,000, $69,000, $159,000

2 Variety Stores asking $26,900, $45,000

2 Donuts Shops askig $129,000, $169,000

Call Nick Marali
Selective Realty, Realtor
Days : 751-6850
Evenings: 439-7796

큰 규모의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2,400 sq. ft. 주매상 : $7,500
아스킹 : 7만불+스타
전화 : 769-9704(5시이후)

80년형 Pontiac Parrisienne Safari Wagon,
거의모든 Option 들어있음 55,000Km, $6,900
전화 : 439-4620

2 Ton(2000 Kg) 적재할수 있는 Condition좋은 Trailer 매매 가격 : $1,200
전화 : 532-0602 (3시에서—6시사이에 연락바람)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MITA COPIER 500D (Very Good Co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꽃가게 급매
전화 : 624-7597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히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Recreation Farm On Trent — Severn System.
상업성 전망이 밝은 약 30 에이커를 포함한 200 에이커 정도의 레크레이션 농장 팝니다.
많은 수목이 우거졌으며 토론토까지 1시간 거리로서 낚시와 사냥을 할 수있는 좋은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흥미있으신 분은 한국일보의 Miss. 박에게 문의 바랍니다.

Using Language Labor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months (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Varity, Fruit & Vegetable Stores For Sale
(꼭히 영어로 문의하시기 바람)
Call Peter Chung 636-1504

Variety &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4,000이상, Rent: $500
전화: 463-4181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3,000
4 비데오 머신, 라이센스와 로타리오 (로렌스×브립리)
전화 : 261-4469(Joe) 오전7시30분~오후6시 사이에 연락바람.

2베드•룸 딸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사정으로 급매.
리스 : 4년, 옵션 : 5년, 렌트 : $550.
전화 : 266-4866 (월~토)

Kingston Rd. 와 Victoria Park Corner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전화 : 698-0844 언제든지 연락요망

식당과(Snack)아이스크림 & 그로서리를 겸한 가게 급매
499 David Dr. (New Market, Ont.)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Donuts Franchise
Yonge Street North Thornhill
1500 Sq. Feet
Seats 30,Open 24 hours
Excellent Lease, Call Mr. Pridham 883-3095
The Gormley Group Real Estate

Becker Milk Store Franchise
3731 Lawrence Ave. E.
꼭히 관심 있으신분 내방바람. 전화: 431-3921

하우스 렌트

클링톤하우스 ·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십시오.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3개의 방이있는 사무실 렌트 합니다.
(Professional Suit) 회계 또는 변호사사무실로 적합.
815 Bloor St. W. 2nd Fl.로 직접 내방 원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한 교통이 편리하고 1년반된 최신식 시설의 미장원 Rent($500/Men.) (St.Clair × Weston)
전화 : 763-3289, 444-1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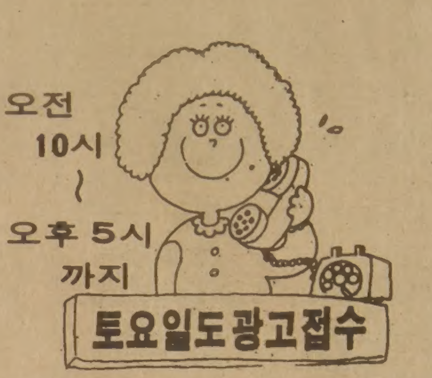
시설완비된 Semi Detached, 3 Bed Room
Rent: $650/mon. (케네디 & 엘스미어지역)
전화: 225-1204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 한국일보 안내광고 *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전화: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데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식 품 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오전 11시~6시30분 전화 : 530-1870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광고문의 533-2361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일보 · 토론토 지사의 일간지발행 1주년을축하하오며 더욱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大韓航空

KAL

로스앤젤리스 (213) 484-1900 · 로스앤젤리스공항 (213) 417-5200 • 뉴욕 (212) 371-4820 • J.F. 케네디공항 (212) 632-8730 • 호노루루 (808) 923-7302~6 • 시카고 (312) 558-9300 • 샌프란시스코 (415) 956-6373 • 와싱톤 (202) 785-3644
필라델피아 (215) 665-9080 • 아틀란타 (404) 522-7461 • 휴스턴 (713) 658-8892 • 토론토 (416) 862-8250 • 뱅쿠버 (604) 689-8431 • 달라스 (214) 744-5981 • 디트로이트 (313) 353-6680 • 상파울로 (259) 6719 •
TOLL-FREE : 캘리포니아 (800) 252-0128 • 기타 전 서부지역 (호노루루, 알라스카 제외) (800) 421-8200 • 뉴욕주 (뉴욕시 제외) (800) 522-5640 • 기타 전 동부지역 (800) 223-1155 • 카나다 (퀘벡·온타리오) (800) 268-9431